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2월 9일(음력1월 1일) 수요일 (주간) 제512호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지율 스님·정부 극적 합의

환경영향조사·공사 일시중단 ·단식 중단

"생명 살리자" 여론 비등 속 이해찬 총리 직접 나서

'정부는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지율 스님은 국민의 여망과 종교계지도자들의 권고, 국회 및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정부와 지율 스님측은 3일 저녁 7시부터 10시 15분까지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륜(정토회), 도법(실상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회담을 갖고 △환경영향조사 실시 △조사단 요구시 공사 일시중단 △지율 스님 단식중단에 합의했다.

정토회관에서 합의내용을 발표한 법륜 스님은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회 결의안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정부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은 "지율 스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동의를 얻은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의 '지율 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촉구 결의안'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를 깊이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환경영향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조사단이 공사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조사단의 요구에 최대한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환경영향조사단은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을 꾸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은 시공사측과 지율 스님측이 추천한 각각 7명(전문가 각각 5명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3개월 동안 지하수, 지질, 생태계와 터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단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앞서 2월 3일로 단식 100일째를 맞은 지율 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정부와 시민 종교 사회단체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3일 오전 7시 30분 정부를 향해 지하수맥에 관한 영향과 지질 안정성 여부에 대해 시민 종교단체와 함께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오후 2시경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토회관을 방문해 "국가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토회 법륜 스님은 "사람이 죽어가니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총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의 불가입장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되면서 총리실은 오후 4시경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율 스님이 그동안 주장해온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의 일시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천성산 고속철도 발파공사 최소화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협상안을 확정했다.

협상안을 들고 오후 7시경 정토회관을 찾은 남영주 총리실 수석은 1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7시 30분경 모처로 떠났고, 다시 8시 30분경 정토회관으로 찾아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발파공사 중단문제로 10시 30분경 합의돼 발표에 이르게 됐다.

지율 스님 관련속보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율 스님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법륜 스님이 정부측과의 협상을 마친 후 합의안을 발표하자 신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트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강진 국무총리실 공보수석이 3일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수 기자

합의내용

①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정부는 석달간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지율 스님은 조속히 단식을 중단한다.

지율 스님 "감사, 일어서겠다"

한편, 지율 스님은 '단식을 풀며'라는 글에서 "힘겨운 시간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2~3일간 정토회관에서 안정을취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우 · 박봉영 · 유철주 기자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 "맛 보세요"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가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는 전용 단말기(모델명 HP rw 6100)를 통해 무선 랜이나 CDMA를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과 각종 불교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뉴스, 법문, 교양대학, 사이버 법당, 엔터테인먼트, E-book, 커뮤니티, 불교문화숍 등 8개 메뉴로 서비스 되며 아이벗 홈페이지(http://ibud.buddhapia.com)에서 전용 브라우저를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불교를 만날 수 있다.

"환영…가치중심 사회 연 계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논평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3일 논평을 통해 "100일 동안의 단식을 마치기로 한 지율 스님의 결정을 2천만 불자와 더불어 환영한다"며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고뇌에 찬 노력과 결단에도 2천만 불자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반목과 질시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개발주의에서 가치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율 스님께서도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생명과 평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더 큰 수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총리실 "공사중단 아니다" 지율 스님측 "공사중단 의미다"

합의문 놓고 양측 해석에 차이

2월 3일 발표된 합의문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르게 발표한 내용은 공사중단 부분. 총리실 측은 "공사는 계속하되,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의 의미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실 측은 "공사중단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토회 유수 스님은 "우리 측 발표가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은 추후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합의는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할'



그림 · 조태호

천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아이벗'으로 만나는 – 불자들의 유비쿼터스 세상



스마트폰 아이벗

뉴스 · 법문 등 각종 불교정보 실시간 서비스 개시

뉴스 불교계의 다양한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실시간 제공.
법문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
교양대학 영상과 문자를 통해 집에서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청취.
사이버 법당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 경전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
엔터테인먼트 찬불가, 주말정보, 불교계 일정 등이 상세히 제공되며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재미거리를 제공.
E-Book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한눈에.
커뮤니티 아이벗 단말기의 필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향후 사이버기자,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불교문화샵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교 문화상품들의 정보 제공.

http://ibud.buddhapia.com

단한번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사은품 1GB SD메모리카드 증정)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교구본사 환경위 설치 의무화

조계종 종령개정키로… '환경의제21' 내달 7일 공식선포

조계종 교구본사에 환경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지원 · 조계종 사회부장, 이하 환경위)는 1월 31일 송현클럽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령에 권고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교구환경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개정키로 했다. 현재 환경위원회는 해인사, 통도사, 용주사, 월정사, 화엄사 등 5개 교구본사에만 설치돼 있다.

환경위원회가 모든 교구본사에 설치될 경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교환경의제21'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위 자문위원인 불암사 주지 일면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환경의제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실시 이후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사안 발생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구환경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31일 송현클럽에서 열린 조계종 환경위원회 전체회의서 모든 교구본사에 환경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도 3월 7일 공식 선포하기로 했다. 또 8~9월 경 환경의제21 실천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도 3월 중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원들로부터 12개의 연구제안서를, 5개 불교환경단체로부터 16개의 실천프로그램을 접수받은 조계종 환경위는 2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선정한 뒤 3월 환경위 2차 정기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은 "2005년은 환경활동의 선구자로서 조계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교환경의제 21 선정과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종단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경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종단 산하기관 방문
법장스님, 중앙신도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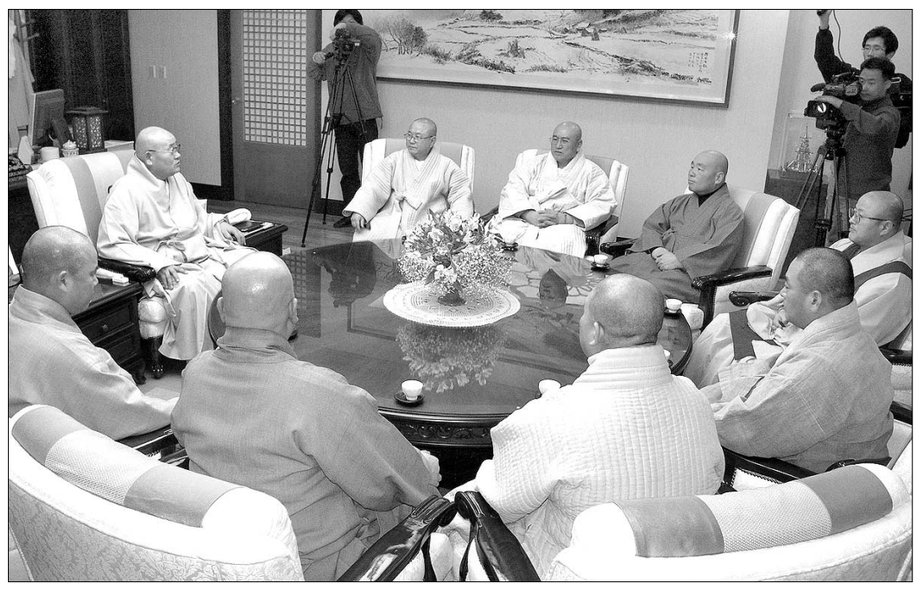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31일 종단 산하기관인 중앙신도회, 불교신문사, 교육원, 대한불교청년회와 법장 스님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중앙신도회를 방문한 법장 스님은 "그 동안 종단이 생기 있고 화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돼 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안식 부회장은 "교구 및 말사 신도회 결성 완료를 위해 각 사찰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공문을 띄워 달라"고 부탁했다.

법장 스님은 교육원에서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가교육개혁에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법장 스님은 불교신문사, 대불청, 종단협을 방문해 현황보고와 애로점을 들은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월2일 '자비의 탁발' 성금을 전달한 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얼굴 보이는 왼쪽부터 법장 법타 종상 마근 스님.

'자비의 탁발' 목표(10억) 훌쩍… 14억 돌파

조계종 교구본사 앞장, 스리랑카 복지센터 건립 청신호

조계종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를 위해 진행했던 '자비의 탁발' 모금액이 목표치인 10억원을 넘어 2월 2일자로 14억4200여만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설날을 전후해 15억원을 훨씬 뛰어넘어 조계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리랑카 복지센터 건립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1월 31일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과 의성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각각 2천만 원을 전달했다.

2월 1일 오전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신도회 대표들과 1억원을 전달했으며, 곧이어 불교신문사 사장 향적 스님도 신문사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신문사에서 접수한 성금 등 총 4천3백여만 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지역 KBS와 MBC에 각각 전달한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 속초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이 5000만원,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이 3000만원,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2000만원을 전달했다.

2일에는 광주사암연합회(회장 혜향)가 사암련 차원에서 범종단적으로 실시해 모은 탁발금 721만3260원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3일에는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5065만8200원,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8836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후 법장 스님은 "전 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고맙다"며 "자비의 탁발이 성공적으로 회향하면 종단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숨쉬는 생활불교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고문에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일 발족된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광복 60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행사와 문화사업을 추진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또 이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2명(당연직 정부위원), 강 총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48명 등 60명의 위원과 법장 스님을 비롯한 19명의 고문단으로 구성됐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발족했으며 △진실과 화해 △평화와 희망 △미래와 세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둬 근대사를 조명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재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국가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과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구족계·식차마나니계 4월에 봉행

조계종, 송광사 유마사서… 내달 3일 접수마감

조계종 제2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송광사(비구계)와 유마사(비구니계)에서 봉행된다.

수계대상은 2001년 3월(행자교육 20기 수료생)까지 사미계를 수지한 사미 · 식차마나니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강원/중앙승가대학/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 또는 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 8안거(동안거 4, 하안거 4) 졸업자, 제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등이다.

수계지원자는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하면 된다.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한다.

이후 수계지원자는 3월 25일 낮 12시까지 사미의제를 착용하고 중앙승가대학교에 도착해 제4급 승가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제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4월 19일 낮 12시까지 수계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한편 제13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광사에서 봉행된다.

수계대상은 2003년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마니로서 기본교육기관 3학년 재학자 등이다.

수계지원자는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재학중인 기본교육기관이나 재적교구본사에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수계지원자는 4월 27일 오후 2시까지 송광사에 도착. 02)2011-1701,4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법륜종



한국불교 법륜종 새 총무원장에 인천 보화정사 회주 탄공스님(사진)이 취임했다. 탄공 스님은 1월 4일 사임한 총무원장 창법 스님을 이어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돼 1월 29일 열린 법륜종 제5대 중앙종회의 인준을 받았다.

탄공 스님은 1958년 계룡산 갑사에서 대의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법륜종 총무부장, 부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새총무원장 탄공스님

방장후보 선출 산중총회
통도사, 2월28일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가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2월 28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통도사 교구 재적승 △임명일로부터 1년 경과한 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인 비구 · 비구니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통도사교구 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이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구성원명부 열람은 22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 종무소에서 할 수 있다. 055)382-7182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지사 약정 해지

대전지사 류재희 지사장
전북지사 조기식 지사장

위 지사장들을 2005년 1월31일자로 약정 해지함.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 제2기생 모집 안내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전통 승가교육 계승을 위하여 종단 최고의 강백 스님들을 교수사로 모시고 불교전통 교학에 입각한 2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기생들을 원만히 육성하고 배출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도 2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에게는 전통교과에 대한 교육 욕구 충족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시금 절차탁마 할 수 있는 있는 장으로서 승가 재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가불자와 지식인에게도 본 강당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불법의 이해와 전통승가교육의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포교 일선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1. 승 려 : 총 50명 내외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비구 · 비구니 스님
2. 일반인 : 총 20명 내외 - 수학능력을 갖춘 재가불자(포교사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우대)

◆ **모집 방법**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육 시간 및 장소**
1. 1 학 기 : 2005년 3월 7일 ~ 7월 5일
2. 2 학 기 : 2005년 8월 9일 ~ 12월 7일
3. 수업시간 :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6시 00분 ~ 9시 00분
4. 교육장소 : 법련사(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수료자 특전**
1. 사찰 주지인 경우 당해연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면제
2. 99년 이후 구족계 수지자인 경우 '2년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 (2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소정양식) ····· 1부
2. 반명함판 사진 ····· 3매
3. 포교사인 경우 포교사증 사본 첨부, 불교교양대학 졸업증 사본 첨부

◆ **등 록 금**
스 님 : 1학기당 700,000원 / 재가불자 : 1학기당 1,000,000원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입처는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교육 과정** (2년제 4학기)

학 년	학 기	과 목	교수사	교육일수	수업기간	비 고
1학년	1학기	초발심자경문	무관	6회	3. 8~3.23	조계종 총무부장
		서장	종범	16회	3.29~5.31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도서	지운	10회	6. 1~7. 5	前 송광사 강원 강주
	2학기	절요	통광	10회	8.16~9.14	쌍계사 강원 강주
		선요	우룡	12회	9.27~11.2	경주 함월사 회주
		원각경	우진	10회	11.8~12.7	통도사 강원 강주
2학년	3학기	능엄경	혜거	20회	2006년	금강선원장
		금강경	지관	12회	2006년	조계종 원로의원 가산불교문화원장
	4학기	기신론	각성	8회	2006년	前 해인사 강원 강주
		화엄경 1	지안	12회	2006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화엄경 2	무비	12회	2006년	前 교육원장

※ 교수사, 교육일수, 수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05년 2월 7일(월) ~ 2월 18일(금)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조계종 교육원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 전화 02)732-4922~4 팩스 02)732-4926
홈페이지 : http://www.buddhism.or.kr E-mail : pandonso@buddhism.or.kr 담당 : 오문식

불기 2549(2005)년 2월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교 육 원 장 **청 화**



지율 스님의 단식이 100일째를 넘기면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이해찬 국무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왼쪽부터 순서대로) 등 종교계 지도자와 정부 관리들이 스님을 만나기위해 잇달아 정토회관을 방문했다.

눈·귀 가린 '空約정부'가 문제 키워

천성산 문제 왜 '막판'까지 가야했나



2월 2일 정토회관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이 도법 스님(가운데), 법륜 스님과 함께 지율 스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율 스님이 우리 사회에 '생명'을 말하기 위해 곡기를 끊은 지 2월 3일로 100일째. 지율 스님의 간절한 호소가 요지부동이었던 정부를 움직였다. 2003년 2월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백지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후 네 차례 단식을 하며 천성산을 살려달라고 외쳐온 지 꼭 2년 만이다.

행방을 감췄다가 1월 31일 정토회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율 스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통해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종회의장 법등 스님, 길상사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이해찬 국무총리, 오영교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종교계 성직자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줄이어 정토회관을 찾았다. 2월 3일 저녁 타결안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황이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율 스님이 100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며 세상을 향해 '생명' 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두고두고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공사 중단' 첨예한 대립

▮문제점 드러나도 '국책 사업' 만 강조=단식 100일째던 2월 3일까지도 정부는 '국책 사업의 중요성' 만을 역설했다.

이해찬 총리,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지율 스님의 단식은 안타깝지만, 국책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환경정책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발표된 법원의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천성산 터널 공사도 과감하게 재검토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지율 스님이 단식으로써 강변하고 싶은것은 무엇보다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와 동식물은 1994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됐으면 2002년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의 약속파기다. 2002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경부고속철도가 천성산과 금정산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지율 스님이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한 1차 단식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2차, 3차 단식 역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믿음을 못주는 행동에 기인한다.

정부 일방적 약속 파기

▮대응방식에 문제 있었다 =불신을 키운 것은 정부의 대응방식 때문이다.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지율 스님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지율 스님의 1차 단식으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지율 스님과 천성산 대책위를 제외시킨 채 노선 재검토위를 신설하고 '기존노선강행' 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2차 단식을 부른 일방적 약속 파기였다.

이어 '도롱뇽 소송' 이 시작됐지만 정부는 재판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지율 스님의 3차 단식을 부른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었다. 3차 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정토회관에서는 불자들이 도롱뇽을 접으며 지율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기가 무섭게 독자적으로 천성산을 둘러보고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다시 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뜻을 같이 했던 일부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율 스님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지율 스님은 정부는 물론이고 환경단체마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고 지율스님은 백일간의 초인적인 단식에 돌입했던 것이다.

유철주 기자

생명 던져 생명 살렸다

지율 스님 총 241일간의 단식으로 '요지부동' 정부 움직여

"티끌처럼 낮아지고 가벼워져야 제 원력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천성산과 함께 한 모든 인연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거두어주소서."

타협안이 마련되기 하루 전이자, 4차 단식 100일째를 하루 앞두었던 2월 2일. 지율 스님이 자신을 찾아 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건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세상은 지율 스님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율 스님만의 독백이 아니라 온 생명의 울부짖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2003년부터 합의에 이른 2월3일까지 네 차례, 모두 합쳐 241일간의 단식을 해 온 지율 스님은 결국 천성산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버틴 시간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일까. 지율 스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했던 것일까.

지율 스님은 단식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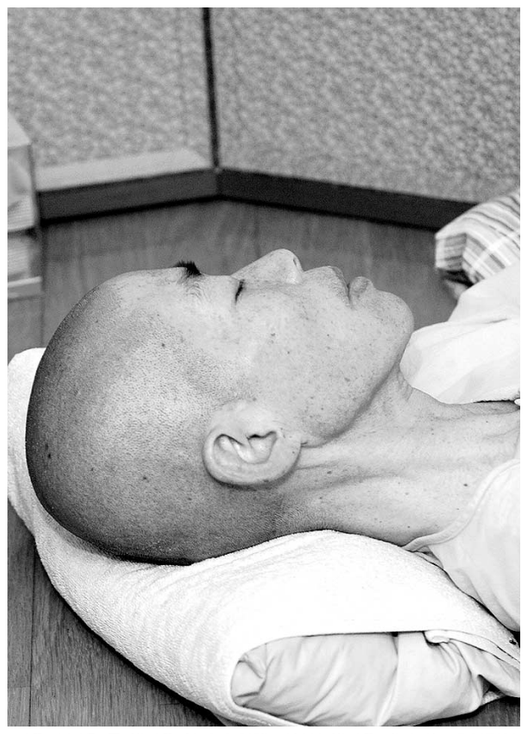
"바위를 깎는 포크레인 소리에 묻혀 작게 들리기는 했지만 또렷이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살려 주세요…' 라는 소리가요. 어린 아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늙은 어머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천 가지 연꽃이 핀 것 같이 아름답다는 천성산. 98년 천성산 내원사로 들어가 참선수행을 하던 지율 스님은 2000년부터 산을 지키는 '산감' 소임을 맡았다. 그 뒤 천성산을 오르내린 것만도 400여 차례. 누구보다도 천성산을 잘 아는 지율 스님으로서는 망설일 것 없는 선택이었다. 지율 스님의 '생명평화' 실천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단식 도중 밤늦은 시간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남들처럼 살면 안되겠느냐"며 흐느끼는 목소리에 눈물이 핑돌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단식도, 주위의 냉담한 반응도 아닌 혈육의 정이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천성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율 스님의 단식을 환경문제로만 생각한다. 지율 스님 하면 천성산이라는 등식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어디 그것뿐일까.

지율 스님은 외로웠다.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극히 적었다. 어떤 이들은 단식이라는 극단적 행동에 대해 이의도 제기했다. 거기에다 국가라는 권력과 개발요구라는 거대하고 엄청난 현실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은 타협하지 않았다. 천성산의 뭇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 그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 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수행자의 다짐이었다. 지율 스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지율 스님은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초인적인 단식을 진행해 왔다. 사진은 단식 100일째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지율 스님의 모습.

권력과 힘의 논리에 때로는 빠져들고, 때로는 모른척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에게는 가슴 속 짐으로 지고 갈 멍에를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을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마저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었다.

그런 정부를 보면서 지율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겠다는 천성산과의 약속이자 자신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행자는 정직해야 된다고, 그것이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지율 스님의 단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되묻는다. 환경의 소중함, 인간의 순수성, 정직함. 이런 것들을 한 데 묶으면 결국 '우리네 삶' 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율 스님은 말없이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지율 스님은 늘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라"고 했다. 그것은 '나' 를 떠나 '모두' 를 보라는 애끓는 절규다. 지율 스님은 생명 · 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 냈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육안내

불교대학

① 교육과정 | 2년 4학기제

② 교육내용 |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사, 불교문화, 불전개설, 경전강독, 계율론, 포교방법론, 상담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와 사회, 선사상 등
+교과목은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구분
• 주간반 | 월 · 화 / 오전 10:30~12:30
• 야간반 | 월 · 화 / 오후 7:00~9:00
• 토요반 | 토 / 오후 3:00~6:00

불교대학원

① 교육과정 | 2년 4학기제

② 교육내용 | 종교의 이해, 경전 원문강독, 불교교리사, 비교종교학, 화엄사상, 법화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아비달마 철학의 이해, 불교의례의 의미와 실천, 현대철학과 불교 등
+교과목은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구분
• 주간반 | 월 / 오후 2:00~4:30
• 야간반 | 월 / 오후 7:00~9:30
• 토요반 | 토 / 오후 3:00~5:30

2) 모집안내

① 응시자격
• 불교대학 : 조계종 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 불교대학원 : 불교대학(1년제 이상) 졸업자

②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대학 입학시 제출)
• 불교대학 수료증 사본1부(대학원 입학시 제출)

③ 모집요강
• 접수 : 1월 3일(월)~2월 18일(금)
(인터넷 및 우편접수 가능)
• 등록금(매학기)
불교대학 – 40만원
불교대학원 – 45만원

④ 특전
• 매학기 장학금(성적 및 신행우수자) 지급
•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대학 졸업시)

조계사 교무국 720-1390 (www.jogyesa.org) 조계사

성보보존법 33년만에 첫 개정

박물관 관련 조항 신설 … 활성화 기대
해당 사찰 주지에 보존·관리 의무 부여

1972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개정도 없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던 조계종의 성보보존법이 드디어 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1월 27일 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및 체계적인 성보보존을 위한 사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성보보존법에서 모호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성보박물관 관련 내용을 대폭 신설했다.

개정안이 종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31개소(개관예정포함)에 달하는 성보박물관이 성보보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성보박물관이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성보박물관을 "성보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박물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한 박물관, 전시관, 유물관 등"으로 정의(제16조 신설)하고, 관장 및 학예연구실, 사무국의 역할을 명문화(제20조 신설)해 성보박물관 및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한 성보박물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신설된 제21조에 따르면 성보박물관은 종령이 정한 등록요건에 맞추어 등록해야 하고,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요건에 위반하여 운영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찰 주지의 성보 관리의 의무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성보 보유사찰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규정(제4조 개정)하는 한편, 성보 발견·멸실·도난·훼손 및 성보의 문화재 지정의 경우에는 총무원장에게 보고를, 경내지에서 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 또는 전통사찰 내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했다.(제5조 개정)

그밖에 개정안은 △성보관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제6조 개정) △성보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성보보존위원회 설치(제7조 개정) △성보 지정 건의에 있어서 성보보존위원회의 자문을 심의로 변경(제11조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성보보존법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종무회의를 거쳐 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군종병 모집정원 미달

개신교 경쟁률 8.8:1…군승특별교구 필요성 제기

병무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불교 군종병 공개 모집이 정원미달로 마감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월 20일 마감한 올해 군종병 모집은, 개신교가 12명 모집에 106명(8.8대 1)이, 천주교가 13명 모집에 34명(2.6대 1)이 각각 응모했으나 불교만 14명 모집에 11명(0.8대 1)이 응모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3~5월이 군 입대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란 지적이다.

유독 불교 군종병만 미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군불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과가 군승특별교구 설치 등 군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무청은 군종장교 보좌와 군법당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 군종병의 지원자격을 불교 전공 1년 이상 수료자나 수계 후 3년 이상 경과자로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기독교 전공자를 배출학수 있는 대학이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50여 곳에 이르는데 반면, 불교계는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등 단 3곳뿐이다. 군종병에 응시할 자격과 원력을 가진 인력이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부실, 홍보부족 등도 이번 미달사태에 한몫했다.

따라서 군포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위한 군승특별교구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곳, 신도 15만을 거느리고 있는 '군불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군포교인력확충, 포교종책 수립, 효율적 군법당 운영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성결 333운동'과 '비전 2020' 운동을 통해 2020년까지 8만 연합회 회원 군인 확보, 전군의 75%를 개신교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공격적 선교전략을 세우고 있어, 불교계도 하루빨리 '군불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은 "군불교위원회가 홍보를 강화하고, 면접관인 군법사들이 직접 군종병 지원자들을 유치하는 등 군종병 모집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징용자 유골봉안 어떻게 이뤄지나

대상 30만구 추정 … 6월부터 착수 계획

한일 불교계가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 봉송작업에 적극 나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8일 총회를 열고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을 송환키로 결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3월경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쇼겐)와 회의를 갖고 합동 위령재 개최 등 유골봉환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오는 6월 이내에 도쿄(東京) 유텐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 705구를 시작으로 일본과 동남아 시베리아 등지의 한국인 유골까지 봉환한다는 방침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이들 무연고 유골을 양평군 양평공원으로 봉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일 불교계는 지난해 6월 10일 일본 도쿄 유텐지(祐天寺)에서 합동위령재를 열고, 일본의 24개 사찰에 보관중인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봉환키로 결의한바 있다.

한국불교계가 유골봉환에 나서는 것은 일본 불교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24개 사찰에 5만여구의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일본 불교계는 한국인 강제동원 명부도 작성해 그동안 꾸준히 국내외에 알려왔다. 이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한 남한출신 유골 705구만 주장하던 일본정부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일 불교계는 유골봉환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종교계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만 8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강제동원된 한국인은 일제가 군수공장과 농장, 토목공사장, 광산 등을 운영하던 일본, 중국 하이난섬(해남도),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끌려갔다.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유골이나마 국내로 돌아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종전 직후인 1948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봉환된 6000여구가 전부다.

우리 정부가 1966년 북한출신자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을 일본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요청하면서 일괄 인수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1969년 제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해서는 연고자 요청에 따라 개별 봉환키로 양국이 상호 양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70~1998년 1192구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이 봉환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목탁소리

'객승' 정말 대책없나?

지난 1월 28일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을 실시해 모은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법정 스님에 따르면 교구본사 차원에서 탁발을 실시하기 하루 전 정체불명의 승복입은 사람들이 먼저 자비의 탁발을 사칭해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법장 스님은 "잘못된 것을 쉬쉬하며 덮어뒀기 때문에 병폐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모두 공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실 객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객승들이 '여비'를 위해 불교계 각종 행사마다 몰려다니고, 조금이라도 더 '여비'를 챙기기 위해 고성과 욕설을 질러대는 모습은 이제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닐 지경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불교계를 강타한 서울 우이동 보광사 폭력사태 때에는 어제 이쪽 편이었던 객승들이 하루 만에 저쪽 편으로 넘어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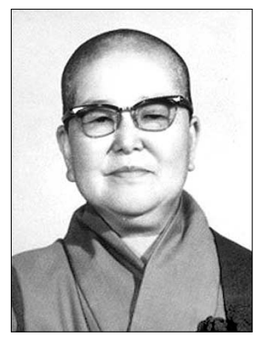
객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지난 1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처럼 다른 종단에서도 종단적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승적도 없으면서 스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선 범종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동우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26> 지명 스님

70여년 한결같이 참선 정진



"어린 것이 멀고도 험한 길을 오게된 것은 전생에 숙연(宿緣)이 있어서 그러하다. 공부 잘하면 성불할 것이다."

금강산 유점사 조실로 있던 만공 스님으로부터 이런 수기를 받고 불법에 인연을 맺은 12살 어린 소녀는 이제 미수를 바라본다. 화운사 능인선원 선원장 지명 스님(85)은 13살 되던 1932년 12월 수덕사 금선대에서의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고 머리를 깎았다.

1921년생인 지명 스님은 어린나이에 출가해 온통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 공부할 마음만 앞섰다. 그런 스님에게 만공 스님은 몇 해동안 노스님들의 시봉만을 맡길 뿐 선방근처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다.

갖은 고생을 물리치고 어른 스님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수덕사 강당에서 사집을 마쳤다. 19세가 되던 해 겨울 만공스님의 허락으로 겨우 선방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다.

이듬해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던 지명 스님에게 만공 스님은 "아난존자에게 가섭이 도각문전에 찰간착(倒却門前 刹竿着)하라 하니 아난이 대답을 못하고 교족(翹足)공부 칠일칠야를 하여 활연대오(豁然大悟) 하였는데, 지명아 너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명 스님은 "꺾을 것이 없는데 무었을 꺾으란 말입니까"라고 답했다. 만공 스님은 "더더욱 공부 열심히 하여라"며 격려했다.

얼마뒤 만공 스님은 "성품이 공하니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비추는 달빛은 시방세계를 비추더라(性空復境寂 心月照十方)"라는 게문과 월조(月照)라는 당호를 내려 지명 스님의 공부를 인가했다. 이 무렵 지명 스님은 "흉중에 의정(疑情)이 가득해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42년 석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45년 만공 스님의 열반 추도문을 직접 썼다. 얼마전 입적한 숭산 스님과는 법담을 나누는 도반으로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

스님이 첫 주지 소임을 살게 된 것은 53년 서산 개심사에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개심사를 재정비 한 뒤 얼마 안 있어 우암 '차재윤' 거사가 창건한 화운사의 주지직을 제의 받았다.

62년 화운사를 맡아 강원을 열고, 강당, 요사, 대웅전, 선원을 비롯한 대작불사를 이뤄냈다. 85년 강원을 닫고 다시 88년 선방을 열면서 수많은 제방 수좌들과 함께 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불편해 대중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결제가 시작되면 선객들을 제접하고 공부를 점검한다.

"중의 본분은 오로지 정진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지명 스님은 요즘도 하루를 여일하게 수행정진하고 있다. 일생을 참선 정진한 비구니계의 원로선지식으로 지난해 하안거에도 선원장으로 수좌회 방함록에 방부를 올린 조계종 최고 비구니 선객으로 후학들의 끝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

조용수 기자

만공 스님에게 수기받고 불법과 인연
조계종 최고 비구니 선객으로 존경받아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직장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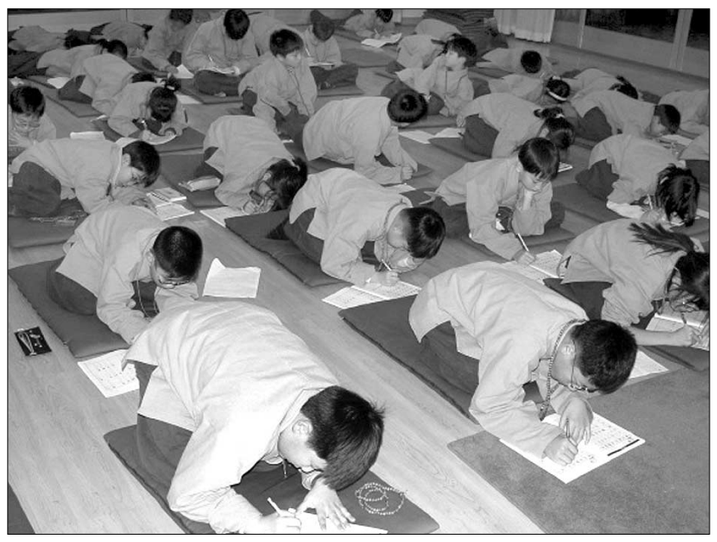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부산 홍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

"당당한 불제자 되길"

출가학교 시스템, 편지쓰기 · 사경 등 호응
가족 · 외국인 대상 매월 정례화 예정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초등학생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금강경>을 사경하는 모습. 참가 어린이들은 낯선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도 시종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이소현 행자님~ 법명은 지혜심입니다. 방수종 행자님의 법명은 무운입니다."

1월 30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법당에서 8박9일 동안 1기 홍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49명의 초등학생들이 차례차례 수계증을 받고 있었다. 엄격한 규율과 빡빡한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일정 끝에 법명을 받아든 행자들의 눈빛과 얼굴은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1080배 후 수계식을 갖고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다진 행자들에겐 법명이 주는 의미는 각별했다. 수계증을 받아들고 법명을 확인하는 행자들에게 1월 23일 첫날부터 법명을 받기 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다.

첫날, 즐거웠던 여름불교학교를 생각하며 홍법사를 들어선 행자들은 수련복으로 갈아입자마자 행자로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을 듣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첫날과 둘째 날은 참회의 절로 다 보냈을 정도로 많은 절을 했다. 떠들다가, 친구와 장난치다, 차수를 하지 않는 등 갖가지 이유로 참회의 108배가 이어지자 행자들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형제, 혹은 친구끼리도 꼬박 꼬박 경어를 사용하며 새벽예불, 아침, 저녁으로 진행된 발우공양, 한문으로 배운 <계초심학인문> <금강경> 독송, 사경, 예절 수업 등 낯선 용어, 낯선 생활들에 적응해 나갔다.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돼 밤 9시에 끝이 나는 하루 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했던 발우공양도 익숙해지고 매일 계속된 108배로 절도 몸에 익고 스님의 <계초심학인문>의 어려운 한자와 내용도 어느새 마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49명의 도반들은 단 한명의 탈락자도 없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수행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주원(초읍초 6) 행자는 "어린이 법회, 수련회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다"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시는 줄 몰랐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법회에 다녀서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수(하남초 6) 행자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음식도 남기지 않고 예의를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된 홍법사 초등부 템플스테이는 몇 달 전 이미 참가자가 마감됐을 정도로 기대가 높았다. 특히 가마솥 체험, 발우공양, 등산, 참선, 염주 꿰기, 사경, 부모님께 편지쓰기, 울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심산 스님은 "일반 수련회와는 차별화되는 철저한 출가학교 시스템으로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행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보고 기특하고 대견했다"며 "앞으로 중고등부 템플스테이도 진행해서 어릴 때부터 수행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불제자를 길러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법사는 방학 기간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외에도 가족,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3월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051)508-0345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양산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추진

학술회 · 공청회 등 계획

양산시가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인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나 영산대 호텔관광대학 정무형 학장 등에 의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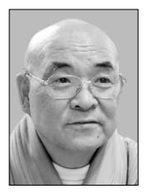
불교문화관광특구는 지난해부터 영산대 컨벤션관광연구원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불교성지화와 관광루트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이후, 지역 정 · 관 · 학계가 관심을 보이면서 탄력을 얻고 있다.

시는 통도사가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이며, 영축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활용, 경주 불국사~양산 통도사~ 부산으로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화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 스님들의 뜻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2, 3월 중으로 통도사 내부 논의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조만간 통도사와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학술용역, 공청회 개최 등 구체적인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표충사 신임 주지 청운 스님 진산식



밀양 표충사는 1월 29일 표충사 설법전에서 신임 주지 청운 스님(사진)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상조 밀양 시장,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혜 스님, 통도사 전계사 중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타종 5타, 육법공양, 취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신임 주지 청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수행력과 호국 정신을 받들어 호국 성지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표충사에 산재돼 있는 많은 문화재, 유물 등이 방치돼 있다며 많은 불교 문화재들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9944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4년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0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 및 중앙교육원에서 경학을 두루 연찬하고 부산 묘관음사 등 제방선원에서 10안거를 성만했다.

천미희 기자

염불공양모임 장학금 전달

불교TV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행)는 2월 2일 불교TV 염불공양모임 사무실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하성심행 회장을 비롯 염불공양 회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김지연 학생회 3명, 고등학생 지한범 학생 외 7명에게 총 5백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성심행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지금의 고통을 나를 성숙시키는 거름으로 알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불교TV 염불공양모임은 1996년 염불공양 봉사를 주로 하는 봉사단체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수해복구,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후원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은 신심 돈독한 청년 불자들을 선별, 불교 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엄마와 함께 '요리! 조리!'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1월 29일 '엄마와 함께 하는 요리쿡! 조리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마의 손을 잡고 참가한 아이들은 평소 집에서는 가질 수 없던 요리에 신이 났다. 요리를 하면서 반이 넘게 먹어 치우는 아이도 있고, 조그만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이도 보였다.

함께 요리를 하는 엄마들의 표정도 밝았다. "햄버거는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인데 만들 엄두를 못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사 먹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어야 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프로그램은 참가자 30명이 모여 앉아 함께 먹은 식사 시간은 이웃간의 정겨운 대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모영 복지사는 "방학 중에 엄마와 아이들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어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대덕 스님 100명, 100일간 법문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24일부터 6월 3일까지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제14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1994년 첫 백고좌법회 이후 14회째를 맞는 올해 백고좌대법회의 주제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 그리고 계율이다.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백고좌대법회는 법랍 30년 이상의 대덕 스님 1백 명이 매일 1품씩 심도 있는 법문을 하고, 화엄경 중간에 일주일간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팔상성도에 대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세 번의 108배 기도 후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봉행되는 법회는 2월 24일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대전 무상사 주지 무심, 파계사 율원장 철우,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이 차례로 법문하며, 前 원로회의 부의장 원명, 동화사 강주 해월, 통도사 승가대학장 혜남,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등을 비롯해 경주 동국대 교수 지호, 법공, 도오 스님과 동국대 선학과 교수 성본,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운문승가대 학감 일진 스님 등이 감로법을 설한다. 이밖에도 해인선원장 해운, 용주사 주지 정락, 법왕사 회주 정무 스님 등도 법사로 나선다.

백고좌 대법회는 100일 동안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호국불교 법회의식으로, 신라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다가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진 것을 법왕사가 부활시켜 1994년부터 이어왔다.

이번 백고좌법회기간에는 수행 방편으로 불자들이 법화경 사경을 할 수 있도록 8권의 법화경 사경노트도 배포한다. (053)766-3747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대불련 대경동문, 곽병원 보현회 '불자의집' 의료봉사



"다리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잘 봐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월 29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에는 저소득층 노인과 노숙자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통증을 호소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 동문회(회장 임해수)와 곽병원 불자회인 보현회가 함께 지역 노숙자 및 노인 50여명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것(사진).

이날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한 의료진은 곽병원 곽동협 원장, 대불련 대경지부 임해수 동문회장을 비롯해 모두 10여명. 넓지 않은 '불자의집' 입구에 접수창구가 설치되고, 방에는 내과와 정형외과가 마련되고 한쪽에는 주사실도 마련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노숙자와 지역 노인들. 손수레를 밀며 폐지를 주워 모으는 일을 하는 정희순(70) 할머니는 작년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왔다. 게다가 고령으로 인한 청력장애까지 있어 의사소통이 매우 힘든 상태. 그러나 보현회 회원들은 할머니 옆에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에 적극 나섰다.

곽병원 의사와 간호사 15명으로 구성된 보현회는 이날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2월 18 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敎育委員會 永鎭 國際敎育學院長 楊公服, 敎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월정사 '조직의 맛' 확실하네!

연합신도회 이어 3개 단체 추가창립…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내 신도 · 신행단체 활성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회, 거사림회, 진부신도회, 불교학생회, 합창단 등의 신도 · 신행단체와 산내 암자 신도회를 하나로 묶은 연합신도회가 출범한데 이어, 1월 28일 바라밀회(회장 최경철), 대관령 불자회(회장 박제홍), 운전불자회(회장 최진복) 창립법회가 합동으로 봉행됐다.

특히 이 가운데 운전불자회는 면단위 최초 운전기사 불자모임이고, 대관령 불자회는 횡계지역 첫 불자모임이라는 점에서, 월정사가 지역민과 밀착하려는 포교방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도 · 신행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단기출가학교 등으로 월정사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월정사가 지난해부터 지역 청소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수청소년회'를 발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심사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창립법회를 봉행한 세 단체는 곧 연합신도회 산하로 소속될 전망이다. 개별 활동 보다는 연합신도회 산하에서 다른 신도 · 신행단체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다. 연합신도회는 봉축행사를 비롯해 월정사 각종 행사에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교구 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월정사도 신도 · 신행단체 활성화를 수행, 포교, 문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수행풍토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올 5월 고승초청참선법회와 철야용맹정진을 진행하고, 6월까지 신도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해 말사에 보급한다. 불교대학을 운영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소식지 〈오대산 향기〉와 VMS(음성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4월 신도단체 성지순례와 6 · 10월 신도단체 화합 한마당 및 교구 합창단 연합발표회 등 신도회 친선과 화합도 도모한다.



월정사의 바라밀회 · 대관령 불자회 · 운전 불자회의 창립법회 후 기념촬영 모습. 지난해 연합신도회를 출범시켰던 월정사는 이번 신행회 결성으로 탄탄한 지역포교 기반을 갖추게 됐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매월 연합신도회 합동 법회를 개최하는 등 법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포교바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리산 9개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전남도가 지리산권 사찰을 묶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1월 31일 도청에서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위원, 구례 곡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지리산 지역의 사찰들을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세계 문화유산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키로 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신청될 사찰로는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실상사 등 지리산내에 소재한 9개 사찰이며 빠르면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희태 전남 문화재위원은 "지리산권 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이미 1999년부터 건의되었다"며 "이날 등재 사찰 범위와 조사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판' 커지는 갑사 괴목대신제…11일 정오 열려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의 전통문화행사인 괴목대신제가 2월 11일 열린다. 올해 괴목대신제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치러지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했다.

괴목대신제는 갑사 앞에 있는 1600년 된 괴목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약 300여 년 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행해져오다가 끊긴 이후 2000년 다시 복원돼 문화축제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낮 12시 괴목대신제를 시작으로 장승제 등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마을주민과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된다.

놀이마당은 어린이 투호대회와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에 이어 풍물시연, 대중가수 및 국악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의 축제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참가 예상인원은 4천여 명. 현재 갑사 인근 숙박업소는 축제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전국의 관광객들로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다. 괴목대신제가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갑사의 노력 때문이다.

갑사는 공주산성, 무열왕릉, 공주박물관 등 인근 관광지 및 휴식처를 안내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설 명절을 절에서 지내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행운권을 추첨해 푸짐한 상품도 증정한다.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은 "괴목대신제를 전국 최고의 문화행사로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041)857-8981

한명우 기자

대웅전 초석돌 발견

제주원당사터, 규모파악 '열쇠'

제주 원당사터에서 대웅전 기둥을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돌이 발견됐다.

제주시는 원당사터 발굴조사에서 대웅전 초석과 주변에 산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갈과 계단 등을 발굴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대웅전 초석은 원당사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원당사는 고려시대 건립된 제주의 대표적 사찰로, 현재 원당사터에는 1914년 중건한 불탑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당사터 오층석탑은 제주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불탑이자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현무암 불탑으로 제주불교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원당사터 발굴 담당자인 제주시청 함우혁씨는 "정확한 것은 정밀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오층석탑 바로 인근 북쪽에서 발굴된 초석은 탑 주변에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는 사찰 구조로 봐서 대웅전 초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당사터 발굴조사에서는 회랑건물 및 요사채가 확인됐으며, 원당사가 조선초기까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조선초기 백자류와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됐었다.

한명우 기자

마애삼존불 보수·복원

서산시, 개심사 영산탱 등도

지난해 12월 확정된 내포(內浦)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서산시가 내포문화권의 최고문화재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에 들어간다.

서산시는 서산마애삼존불, 개심사 영산회괘불탱화, 보원사지 석조와 당간지주, 법인국사 보승탑비 등에 대한 보수 · 복원에 나선다고 1월 28일 밝혔다.

시는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의 경우 안전진단과 주변 정비를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이 묘사된 개심사 영산회괘불탱화(보물 제1264호)는 6천만원을 들여 부분 보수와 보존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 보원사지 터에 있는 석조(보물 제102호)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법인국사 보승탑비(보물 제106호) 등도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망일사, 천장사, 간월암 등이 보유하고 있는 13건의 문화재를 국가 및 도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내포문화권은 서산과 예산 경계에 남북으로 뻗은 가야산 주변지역으로, 서산 마애삼존불 등이 산재해 있어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북한산 승가사

스님·신도 '정진코드' 통일



북한산 승가사 적묵당에서 참선수행중인 비구니 스님들. 승가사는 24시간 죽비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행 · 기도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1년 내내 선방과 법당에 수행열기 가득
30년 불사로 '북한산 대표사찰' 자리매김

'굽이굽이 바위 사잇길을 오르고 또 오르니, 산허리의 선각(禪閣)이 단풍 속에 자리 잡았네'

다산 정약용이 가을 승가사를 보며 읊은 시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북한산이라면, 북한산을 대표하는 사찰은 승가사다.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승가사는 해발 580m의 서울 북한산 산봉에 자리 잡고 있는 주변 경관이 빼어난 사찰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경 속에 위치한 까닭에 왕들과 문인들이 자주 찾았다고 한다. 보물 제215호 마애석가여래좌상과 보물 제1000호 석조승가대사상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25m 높이의 '호국대보탑'이 인상적이다.

승가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상륜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다. 상륜 스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불사에 매달렸다. 대웅전, 영산전, 적묵당, 명부전, 일주문, 종각 등을 신축 또는 중창하면서 승가사의 옛 면모를 갖춰나갔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수행도량이자 신도들의 기도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동안거가 한창 진행 중인 2005년 1월 승가사의 선방(적묵당)에서는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용맹정진하고 있다. 산철이 돼도 적묵당은 수행하는 스님들로 구도열이 식을 줄 모른다. 다른 법당에서는 철야정진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법당은 24시간 개방된다. 대웅전, 명부전, 석굴각 등에는 담당 스님이 있어 신도들의 수행을 돕는다. 승가사에서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다. 사시사철 죽비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 승가사가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은 용인에 건립 중인 법륜사 불사다.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선방을 짓겠다는 상륜 스님의 발원으로 10년 전에 시작됐다. 그리고 오는 10월 마침내 선방을 개원하게 된다. 대웅전 등 전체적인 불사가 마무리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선방 개원만으로도 의미는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법륜사에 보살선방도 마련하고 복지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부처님 가피 아래 여기까지 왔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요. 하지만 지금 선방과 법당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주지 상륜 스님은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대중들이 승가사의 '힘'이라고 말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나비가 찾아오듯 수행분위기가 갖춰진 승가사에 구도열정을 가진 대중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 승가사에는 오늘도 바로 그 '힘'으로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02)379~2996 한명우 기자

재충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수강생모집

불교문예 분야
◆ 사찰 기초의식 습의과정
◆ 범패 · 무용 실기가정
◆ 불교조각 · 불화 실기
◆ 불전기초 · 대승경전연구

사주명리 분야
◆ 사주명리 초급 · 고급과정
◆ 주역과 현대생활 응용
◆ 점성술 · 복서육효 응용
◆ 육임 · 기문둔갑 미래 예측

주택풍수감정법 천명사주감정법
교재 최초 공개!
저자직강 노 병 한 교수
◆ 모집정원 : 각 과정 30명
◆ 수강료 : 각 과정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육기간: 18주 (기초 5주 / 실전 13주)

서화예술 분야
◆ 서예(한문 · 한글) 실기
◆ 전각 예술 실기
◆ 문인화 · 수묵화 실기
◆ 옻칠화 · 채묵화 실기
◆ 도판 (도자기 서예) 실기
◆ 서 · 화론 선독 과정

생활풍수 분야
◆ 생활에 응용되는 풍수
◆ 인테리어와 풍수응용
◆ 주거설계와 풍수응용
◆ 풍수를 통한 부동산 전략

외국어 회화 분야
◆ 중국어 회화
◆ 일본어 회화
◆ 한문 사서

자연치유 분야
◆ 사주학을 통한 한방 연구
◆ 대체의학을 통한 자연치유
◆ 기공을 통한 건강생활
◆ 전래 한방비전 연구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1. 10 ~ 2. 25
◆ 수강대상 : – 남 · 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 2005년 3월 첫 주부터(16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성취감을 느껴 보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로 오세요
www.dongbang.ac.kr 문의전화 : (02)745-2141

전통있는 불교교육의 최고 명문학당

부산불교교육대학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고시에서 전국 최다 포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불교교육의 명문 학당인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

구분	제25기 교리반(6개월)	제15기 불교학과(1년)	경전연구과정(2년)	제16기 수화반(1년)
교육내용	사찰예절, 교리, 문화, 역사	불교 교육에 필요한 18과목 수학	2년동안 경전 4과목 수학	기초 및 불교전문 수화
교육일자	주간 : 매주 화 오후 2시~4시 야간 : 매주 화 오후 7시~9시	야간 : 매주 목 · 금 오후 7시~9시	매주 수 오후 7시~9시	매주 목 오후 7시~9시
등록금	입학금 : 40,000원(교재제공)	입학금 : 60,000원(교재제공)	입학금 : 60,000원 (교재비 별도)	입학금 : 20,000원 (교재 제공)
	수업료 : 월 30,000원	수업료 : 월 60,000원	수업료 : 월 40,000원	수업료 : 월 10,000원
자 격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분	불교기초교리 이수자 또는 동등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본 대학 불교학과를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원서접수	2005년 1월 10일 ~ 3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식	2005년 3월 10일 오후 4시			
문의처	본 대학 교무실 051)867-9944, 9946(부산시청 옆 부산불교회관 5층)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세대초월 미래 위한 '투자' 한 호흡

전남 화순·구례·곡성

이처럼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신행활동도 광주에 의존하던 화순불교는 서서히 자체 신행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화순 40대 주지스님들 '봉사'로 포교·신행 견인

구례 화엄사 등 큰 절 즐비… '은근한 불심' 과시

곡성 관음사 효 교육, 성륜사 철야정진 '브랜드'



화순사암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화순 전남대 병원 내에 불교법당을 개원하는 등 포교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화순

불교 활성화 요인 가운데 중요한 화두 하나는 '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어진다는 것은 변화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물론 새로운 마인드는 필수조건이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젊은 생각을 나눈다면 금상첨화.

근래 들어 화순지역은 젊은 스님들이 모이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 화순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운주사, 만연사, 개천사, 쌍봉사 등의 주지가 40대로 한창 때이다. 지난해 이들 젊은 스님들이 화순사암연합회를 정비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부쩍 빨라졌다.

화순사암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화순 전남대병원 내에 불교법당을 개원했다. 지도법사는 경주불교병원 법당을 맡았던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이다. 일장 스님은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기본소양교육부터 시켰다.

또한 사암연합회는 지난달 화순 시내에서 건물을 임대해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0여명의 독거노인, 불우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비와 자원봉사자는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이 분담하고 있다.

남면 모후산에 자리한 유마사는 내년에 호남최초의 비구니 승가대학을 개원한다. 5년간의 대작불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유마사는 교육을 통해 호남불교를 일신하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천불천탑의 운주사도 수행, 기도, 포교, 문화휴식 등 종합도량을 목표로 장단기 계획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운주문화축제를 지역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기획과 진행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독특한 형태다.

구례·곡성

조계종 19교구본사 화엄사를 위시해 구산선문 발상지 태안사, 심청전의 원류 관음사, 불교계 큰 스승 청화 스님이 주석한 성륜사 등 대가람이 즐비한 구례·곡성은 여느 지역보다 불교와 인연 깊은 부처님 땅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역불교계의 활동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직장직능단체를 통틀어서 변변한 신행단체가 없다. 불교유치원은 물론 불교관련 복지시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불교세가 약한 것도 아니다. 어느 지역보다 불교적 정서가 강한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발생한 서남아시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탁발에서 3만 인구의 구례에서만 400여만원이 모금된 것만 보아도 불교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지리산 남쪽 온화한 지역에 자리해 있어 신행과 신심도 은근한 편이다.

올해로 20회째 불교예술 대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리산 불락사는 불교음악을 통해 부처님세상을 구현해 가고 있다. 불락사 예술제는 음악인들 사이에 한번은 꼭 서고 싶은 무대이기도 하다.

최근 곡성군은 관음사 사적기를 바탕으로 '심청'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관음사도 불교와 심청, 효 사상으로 이어지는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중이다.

성륜사는 청화 스님 열반 후에도 주말철야정진, 재가선원 운영 등으로 흐트러짐 없이 큰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구례·곡성=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절집이야기 방송으로

금종 스님 (구례 천은사 주지)



스님들의 수행담만큼 재미있고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도 없다.

동진 출가한 금종 스님은 40여년간 전국의 제방 선원을 다니며 경봉, 전강, 향곡 스님 등 당대최고의 어른스님들을 시봉하며 정진했다.

그동안 보고 느낀 절집이야기를 광주,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3년 가까이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신심과 분심을 내지 않을 이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올봄에는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묶어 책으로 낸다.

천은사에도 스님의 이야기법문을 듣고자 찾는 이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금년에는 이들에게 불교의 참맛을 전하기 위해 시민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문중의 노스님들을 공양하며 정진하고 있는 스님은 노스님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복지시설건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화스님 유훈 잇기 매진

도일 스님 (곡성 성륜사 주지)



15년전 창건된 성륜사는 짧은 연륜에도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중심에는 2년 전 입적한 청화 스님의 수행력과 큰 스님을 시봉하며 궂은 일을 도맡아 행한 도일 스님이 있다. 주지 도일 스님은 6년 전 금강선원을 확장해 수좌들이 제대로 안거에 들게 했고, 재가자 선방을 개원해 승속이 함께 정진토록 했다.

또한 주지 부임과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 법회를 개설해 함께 정진에 참여하고 있다. 수행뿐 아니라 불교교육도 중요시 여겨 매월 2회씩 경전법회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2월부터 <천수경>강좌를 새롭게 시작한다.

해인사 율원 출신의 율사 도일 스님은 청화 스님 다비식후 큰 스님의 유지에 따라 거마비를 전국 선원으로 회향해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여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청설화'로 포교 원력

지인 스님 (곡성 관음사 주지)



심청전의 원류 관음사. 주지 지인 스님의 화두는 불교와 심청, 효 사상을 어떻게 접목해 나가느냐이다. 먼저 황폐한 가람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난한 시골사찰이기에 직접 중장비를 운전하며 축대를 쌓고 가람의 틀을 잡고 있다. 아직 함께하는 대중이 없어 혼자서 주경야선(晝耕夜禪)한다.

가족이 함께 쉬면서 심청설화를 통한 불교 가르침을 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빨치산 교육관이었던 요사채는 역사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님은 또한 사찰입구 2천평 규모의 억새밭을 활용해 10월경 산사음악회를 구상하고 있다.

주지부임 첫해에는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곡성읍내에서 해마다 제등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청년회, 신도회 결성도 추진 중이다.

불교음악 발전의 주역

상훈 스님 (구례 불락사 주지)



불교종합예술 범패(梵唄)를 계승 발전시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상훈 스님의 발원이다. 대금, 가야금은 물론 서양악기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다. 1990년 지리산자락에 불락사를 창건했다. 사명 그대로 '불교음악의 집'으로 법당도 법고전이다.

20여 년 전,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의 인연으로 쌍계사 국사암에서 불교예술제를 시작했다. 요즘 전국 사암마다 펼치는 '산사음악회'의 시발이다. 해마다 초파일을 기해 펼쳐온 야단법석이 올해로 20회째다. 매년 박범훈, 김성녀 씨를 고정으로 안비취, 묵계월, 김덕수 사물놀이 등 국내 최고의 음악인이 다녀갔다.

'붓다' '이차돈의 죽음' 등 교성곡에 직접 출연한 스님은 매년 구례축제인 '남악제'의 전야제 시가행진과 남악제례를 감독하고 연출한다.

천불천탑 도량 '사이버'세계로

정행 스님 (화순 운주사 주지)



조계종 기획·연수국장에서 교구본사 재무·사회국장까지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정행 스님은 운주사를 단순 관광사찰에서 종합도량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님이 추구하는 종합도량은 수행 기도, 포교, 문화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찰전산화 사업을 마치고 종단프로그램인 가람지기와 홈페이지(www.unjusa.org)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엔 선원을 확충해 더 많은 수좌들이 찾도록 하고, 운주사의 상징인 와불전을 건립해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운주문화 홍보관을 설립해 영상센터, 갤러리, 세미나실, 석조문화재연구소, 운주문화공동체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로 10회째인 운주축제는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전반을 주민에게 맡기며, 칠월칠석 전통다례제를 금년부터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사업 매진

정과 스님 (화순 만연사 주지)



'내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할일이 많다'.

선방 수좌로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던 정과 스님이 첫 주지소임을 맡아 포교현장에 나선 지 5년. 늘상 느끼는 것은 도량정비에서 신도교육, 자비실천에 이르기까지 하루해가 짧다는 것이다.

올해 3회째 모집중인 교양불교대학은 화순 유일의 신도교육장으로 최고의 강사진 확보가 자랑이다. 해마다 3월 신학기면 중·고생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소년소녀 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보살피고 있다.

정과 스님은 복지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불교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방생 법회 보시금을 5년째 적립하고 있다. 초발심을 잃지 않고자 안거철이면 전국의 선방 세곳을 다니며 대중공양을 올리는 등 수행자 외호에도 적극적이다.

화순은 송광사 2세 진각국사의 고향으로, 진각국사를 조명하고 사상을 홍포하고자 세미나,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속에서 전법·봉사 발원

보화 스님 (화순 개천사 주지)



'올곧은 정진이 최상의 포교다.' 보화 스님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스님은 언제나 하나도 수행, 둘도 수행이다. 수행도량 불사에 전념하던 스님이 지난해 10월 화순사암연합회장을 맡았다. 침체한 지역불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뜻을 같이하는 지역 사암 스님들과 십시일반으로 화순읍내에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자원봉사를 위해 연꽃봉사단을 결성하고 운영비는 사암연합회에서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 개원한 화순 전남대병원 법당을 연합회에서 맡아 개설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화순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불교유치원과 불교대학을 유치해 교육과 자비실천으로 지역불교를 일으키자는 복안이다. 선방을 전전하던 스님이 개천사에 머문 지 5년. 폐허 속에 법당과 선방이 건립되고 이제는 내용 채우기에 들어갔다.

■인터뷰 /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

"환경 파괴되면 수행도 없어요"



"환경보호가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자 수행이다"고 강조하는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은 환경 학자 못지않은 환경 전문가로 수행환경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바빠졌다. 개발로 인한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와 참배객 증가로 인한 산중사찰의 오폐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화엄사 산하 40여개의 말사에 강조하는 것도 사찰의 무리한 증개축보다는 친환경 수행공간을 후대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스님은 강론을 펼치던 화엄사 '광학장'을 정비해 수련회와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배객이 잠시라도 사찰에 머무르며 불교를 체험토록하기 위해서다. 수련회를 통해 발우공양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사찰생활이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힘쓰고 있다.

금년에는 포교영상,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춘 국제규모의 연수원을 착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임진란 때 희생된 의승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비구니 전문승가대학 교육장으로 쓰일 유마사 육화료 전경.

유마사, 호남최초 비구니 승가대학 불사중

5년 전만해도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는 경내에서 소가 풀을 뜯던 폐찰위기의 작은 암자였다. 그러던 이곳에서 불교세가 약한 호남불교에 일대변혁을 일으키는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 최초의 비구니 전문 승가대학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 만세루(염불당), 육화료(교육장), 향당(교수실) 등이 건립되고, 내년 개원에 앞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이다.

주 교육관인 육화료는 전통 목조건물로 건평 75평, 전면 7칸 측면 4칸의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는 강의 및 발우공양하는 대 강의실과 숙소가 마련되며, 2층에 독서실이 자리한다.

사교, 대교반을 위한 선열당과 부속시설을 남겨두고 있는 유마사 승가대학은 오는 4월경 구족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주지 일장 스님은 "유마사 승가대학은 내년부터 학년 당 30명씩 선발한다"며 "불교계뿐 아니라 화순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맞는 교화방편 갖출터"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신년 인터뷰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는 "록정 · 수성 종령님들의 잇따른 열반으로 인해 침체됐던 종단분위기를 추스르겠다"며 "1년이 넘는 어른부재의 공백기간 동안 느슨해진 조직을 챙기고 그 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효강 종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덕택에 종단 운영이 한층 안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수명관정 수계법회를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성대하게 치를수 있었습니다.

12월 종조 원정대종사의 유품과 서적, 행장 등을 정리한 원정기념관을 개관한 것도 지난해 손꼽을만한 일이었습니다. 원정기념관은 총지종의 위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스승(진리를 전하고 제자를 가르치는분)과 교도(법형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불단 장엄 같은 의식상의 변화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단 의식 의궤에도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 동안 소리를 거의 내지 않던 염송을 큰 소리로 하는 방안, 그동안 합장으로 대신하던 오체투지를 다시 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종도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오체투지는, 앉아서 하는 염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롯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체투지 재실시 · 불단장엄 의견 수렴
신축 법당 낙성 · 지방 사원 감사 실시

종단 정체성과 관계있는 불단장엄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차원에서 새롭게 연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총지사에 봉안됐던 티베트 금강계 만다라 등을 점차적으로 전국 사원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못 했지만 종단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들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종무계획은.

-종령님 이하 종도들도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종단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 신축한 사원에 대한 헌공불사(낙성법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4개의 사원이 건립됐지만 종단 사정이 여의치 않아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들 행사를 무사히 매듭지어 종단 교화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지방 사원에 대한 감사도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할 생각입니다.

▲새해를 맞은 불자들을 위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달라짐이 있어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다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온갖 작물이 잘 자라듯 마음에 심으면 복이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새해에는 복 짓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화합으로 종단발전 기여"



인 터 뷰 총지종 신도회 김은숙 회장

총지종 신도회 김은숙 회장(66)은 "올해도 신정회의 지상과제는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며 "신도회가 단합된 힘을 모아 종단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신도회를 운영하며 보람이 있었다면.

-지난 한해 신도회를 운영하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종조 원정기념관을 개관한 일부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경연에서 총지종 봉축장엄등이 장려상을 수상한 일까지 총지종 종도들이 하나로 뭉쳤기에 가능했던 성과들입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보다 종단 어른, 신도회, 청년회, 총무원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신도회의 올해 주요 사업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도화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은 불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도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서 함께 하는 신도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신도회의 가장 큰 사업은, 일선에서 물러난 보살님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퇴한 총지종 스승님들은 종단에서 양로원인 기로원을 운영해 모시고 있지만, 노보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받고 외롭지 않도록 하는 게 신도회가 해야 할 본분 같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신도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도회의 활성화 방안은?

-신도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신도들의 몫입니다. 각 교구마다 신도회가 결성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앙회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활동할 신도 대표들을 뽑고 중앙회를 제대로 꾸려 종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경 예정된 경로잔치, 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 각종 종단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일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강유신 기자

천태종, 호스피스협회 만든다

해외입양아 고국찾기 돕기로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은 1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스피스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니르바나호스피스협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천태종복지재단은 올해 정회원 100명과 일반회원으로 나눠 현장 위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호스피스 종사자들도 보수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 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또 입양아초청 겨울 템프스테이 개최등 해외 입양아찾기 사업도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양아들이 북미권과 유럽권으로 흘어지는 것에 착안해 홀트아동복지회와 덴마크 현지 입양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양아들의 고국 찾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태종은 산하복지단체 및 장애인 · 노인 단체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경찰청과의 연동을 통한 미아 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며 복지의 지평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무원 스님은 "복지는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짜임새 있는 불교 복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지진피해 스리랑카에 보문종 1천만원 전달



보문종(총무원장 법종)은 1월 28일 스리랑카 대사에게 종도들이 모은 남아시아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법종 스님은 "지진해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의 아픔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곡계굴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재



곡계굴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재 모습.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월 21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느티마을에서 사회부장 무원 제주 문강사 주지 진강 스님, 유족대표 조병우씨, 권기수 단양부군수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곡계굴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재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재에서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천태종은 단양 곡계굴 참사자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는 것 뿐 아니라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뜻있는 활동에도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계굴 미군폭격사건은 1951년 1월 6.25전쟁당시 굴속에 피신해 있던 400여명이 미군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충북 영동군 노근리 학살의 유사사례이다. 김원우 기자

관음종 올 예산 47억원 3월까지 승려분한신고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월 26일 서울 묘각사에서 제42차 중앙종회를 개최해 2004년도 결산 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05년 새해 예산안 46억 98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3월 31일까지 관음종 소속 스님들에 대한 분한신고를 하기로 결의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스님에게는 추가 1회의 분한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신도 및 스님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불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관음종은 1월 24~26일 2박 3일간 서울 묘각사에서 종단 스님 대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강유신 기자

진각종, 4월 문화복지축제 연다

진각종 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올해를 '문화복지기반 확충의 해'로 정하고, 4월에 문화복지축제를 개최한다.

진각종 복지재단은 문화복지연대 활동강화를 위해 문화인력 인프라 구축 확대와 4월 중 문화복지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협조해 문화와 복지가 접목된 신개념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진각복지대상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대내외 상벌사항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화된 복지사업 전개를 위해 진각사회복지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만월회 회원 배가운동, 스리랑카 JGO센터 활성화 북한 및 탈북자 지원을 위한 국제구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신도 1375명 동안거해제 구인사, 한달수도 마쳐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구인사 갑신년 동안거 해제식이 1월13일 설법보전에서 열렸다. 이번 동안거에 한달수도를 수료한 불자는 1375명으로 집계됐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해제사를 통해 "한달동안 수행한 것은 자아완성을 이루는 큰 공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우리문화구조대'가 양동마을 간 이유?

개발위주 정책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본격화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세 속에서 문화유산이 부적절하게 개발돼 고유의 정취를 잃어가는 요즘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 감시단 '우리문화구조대'가 다시 뭉쳤다. 경주양동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을 30억 들여 개발하려는 경상북도의 계획이 혹시나



과도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안동 병산서원 앞 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이들 우리문화구조대(www.munwha119.org)는 1월 18일 정비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논의를 시작, 2주가 채 되지 않은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에 걸쳐 양동마을을 답사했다. 그 '번개답사'를 동행 취재했다.

강학당 뒷산에 올라 양동마을을 조망해본다. 보는 각도에 따라 높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풍경에 대원들은 연신 카메라셔터를 눌러대야 했다. 평생을 양동마을과 함께 해온 이석정 옹. 마을을 안내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마을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사진 위).

우리문화 살리는 길, '관심'만 있으면…

고가에 철조 계단, 감동과 실망 교차

1월 31일 유가의 법도와 선비기풍이 5백여 년 이어진 보기 드문 반촌(班村)으로 전통문화가 가장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양동마을을 찾아 서울, 울산, 춘천 등지에서 온 10여명의 대원들은 우선 마을의 고가와 초가집들을 꼼꼼히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안내는 회재 이언적 선생의 17대손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이 곳에서 보낸 이석정 옹(79)이 맡았다. 이 옹은 멀리서 마을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자청했다.

가장 먼저 대원들을 맞이한 것은 조선 성종 때 청백리인 우재 손중돈(1463~1529) 선생이 살던 관가정(觀稼亭 · 보물 제442호). 관가정에서 내려다보이는 마을의 풍광은 대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 보물 제412호인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이 노모를 모셨다는 흥(興)자 형태의 가옥 향단(香壇)은 복잡하고 세밀한 구조로 대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양동마을의 매력에 빠져들던 대원들은 생경한 모습에 실망하고 말았으니, 철조 계단이 놓인 이원복 가옥, 회벽은 새로 칠해졌으나 건물이 앞으로 기울어져 불안한 상태의 이원용 가옥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서 문제 지점이 쉽게 발견됐다. 곳곳에 비어있는 집들은 방치된 느낌까지 주고 있었다.

안내를 맡은 이석정 옹은 예전의 양동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양동마을에 천석꾼이 너덧 집 됐어요. 큰 초상 때는 외지에서 문상객들을 태우고 온 말이 수백 필이 말뚝에 묶여 길가에 쭈욱 늘어선 것이 그런 장관이 없었지요. 이제 그 활기는 다 사라지고 관광객들만 찾으니 아쉬운 거야 어찌 말로 다 합니까."

300년전 환경서 살라고?

3시간 넘게 마을을 둘러본 대원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마을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위한 자리였다.

문화재 지정 이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은 마을 보존의 대의는 인정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골에서는 소를 키워 애들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곳은 외양간도 지을 수 없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 외양간이라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일 하고 귀가하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욕실을 지을 수가 없으니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우리문화구조대원들은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당장의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조선 중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곳은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에 바빴다.



"마을 정취와 주민의 편의라는 두 문제를 함께 풀 방법은 없을까?" 주민들과 대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원으로 참가한 서동화(조각가) 씨는 "양동마을은 지금 잘 보존되느냐 다른 민속마을처럼 생명력을 잃고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 마을도 지키고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외관 · 주민 편의 다 살리는 묘안은?

대화를 마친 후 마을의 토속음식으로 '거하게' 저녁끼니를 해결한 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과도한 정비가 마을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칠지도 모르고, 주민의 편의만 감안하다보면 마을의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과연 대안은 있을까.

대원들은 먼저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해서 받아온 사업계획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한 대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차장 건설과 휴게소(전시장) 건립, 그리고 퇴락 가옥 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퇴락 가옥 보수는 원형 보존을 뜻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주민편의보다는 관광객 편의에 치우친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전봇대와 전선을 제거해 이 곳에서 영화촬영이 이뤄지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텐데 휴게소나 전시장 건설부터 시작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한 대원은 "마스터플랜이 다양한 입장을 청취해서 마련된 것 같지 않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동 하회마을처럼 고유 정취를 잃고 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논의의 초점은 마을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의 편의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마을 한 복판에 자리 잡은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됐다.

문화재 지킴이 시민 활동 활발해야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우리문화구조대원들은 답사의 내용을 정리해 답사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그들의 계획을 경청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나 다른 문화지킴이 단체들과 협력해서 양동마을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하기로 다짐도 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재지킴이는 35개 단체 8천여 명. 최근 들어 정부는 이들의 감시자 역할을 달게 받아들이며 시민단체를 문화재 관리자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문화구조대의 1박 2일간의 답사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누군가가 있는 한 문화재 훼손의 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의 답사를 주도한 김아영 강원대 강사는 "양동마을이 감동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텐데 힘이 없다보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구경꾼 시각을 벗어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함을 새삼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글=박익순 · 사진=고영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대한천문풍수명리성명협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자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황으로 불교대상수료
대한불교조계종 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태고종 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現 대한불교禪조계종 만복사 주지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삼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사업 하시는 분
• 이사 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사형통을 기원하시는분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세트) 가격 98,000원
※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재수대길 ▮ 소원성취
Fe니켈도금 + 순금도금


복돼지액자 ▮ 달마도액자
소재: 아크릴액자 + pp금장


앞면 : 달마도 뒷면:만사형통부 건강부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75mm × 50mm


소원성취 ▮ 재수대길
켓츠아이 핸드폰고리
소재: 켓츠아이+순금도금


진품달마도 액자 규격 : 44cm × 5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1월 28일 서울 능인복지관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만두를 빚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설 음식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능인사회복지관, 직접 빚은 만두 · 떡 독거노인 등에 전달

"스님, 만두 빚으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1월 28일 서울 능인복지관. 명절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복지관을 찾는 33명의 SK 네트웍스 직원들이 능인복지관 관장 법등 스님의 만두 빚는 모습에 한마디씩 거든다. 스님이 만두 속을 넣고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예쁜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등 스님은 "그저 강원에서부터 쭉 해온 일"이라며 웃어넘겼다.

이 날의 메뉴는 김치만두. 만두 속과 만둣국에 들어갈 고명은 모두 능인복지관 어머니 봉사회의 다지고, 부치는 손놀림 속에서 만들어냈다.

명절 때마다 능인복지관 인근의 구룡마을과 개포동, 포이동 일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떡이며 만두를 만들어 오다 보니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 SK 네트웍스 제명국(41) 과장은 "집에서도 만두 잘 빚는다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른다"며 너스레를 떨고 옆에서 묵묵히 만두를 만들고 있던 강형남(37) 과장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SK 네트웍스 직원들과 능인선원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낸 만두는 모두 3000여 개. 정성껏 빚은 만두와 함께 신도들이 모은 돈으로 능인선원 떡방앗간에서 공들여 빼낸 가래떡 2kg, 김 · 볶은 고기 · 계란 지단 등의 떡국 고명이 한 박스로 포장됐다. 독거노인 및 지역 저소득층 이웃들이 설날 아침에 물만 붓고 끓여먹을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모든 준비를 해서 직접 100여 가정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관장 법등 스님은 "강남하면 '부촌'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회에는 언제나 그늘진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명절을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02)577-844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지진해일 희생자 49재 열린다

12일 도선사 호국참회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2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 호국참회원에서 열린다. 도선사는 불자 1인당 남아시아 희생자 1인의 위패를 봉안도록 하고 여기에서 모아진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49재는 세상을 떠난 후 중음신(中陰神)으로 떠도는 영가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한 불교행사다. 혜자 스님은 이와 관련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떠도는 수많은 남아시아 영가들을 감싸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02)993-3161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26~2월 1일)

윤지한 1만원 이두경 5만원 박승복 2만원 성불사신도회 30만원 옥련암 10만원 일화스님 30만원 정혜사 100만원 구도회독서모임 100만원 동학사총동문회 200만원 보명사 60만원 박미향 4만원 마니산정수사 50만원 봉화회 20만원 조계종수선회현담스님 100만원 신림동약수사 100만원 강화 백련사 52만8000원 김태완 10만원 이미희 10만원 보문종총무원장 500만원 수덕사 본말사 7114만6260원 강화청련사 128만5000원 이정숙 2만원 연수암김경숙 50만원 광법사 10만원 김윤석 125만6000원 장승규 10만원 법흥사 50만원 조영희 2만원 백흥사 10만원 청원사사부대중 178만8000원 다음카페정율스님회원일동 275만220원 이성수 3만원 임휴사 50만원 정정선 4만원 이영순 10만원 원주청림사 30만원 송기섭 10만원 서울관음선원 42만9000원 연잎회 10만원 김주호 5만원 송경숙 2만원 오희창 50만원 망월사 30만원 김성훈 5만원 CYNY 5만원 불광사 100만4360원 원각사 62만원 용주사 20만원 법화사 18만4000원 각원사 100만원 제25교구용암 30만2000원 자재암 100만원 이기오 1만원 대각사 30만원 통일사(서정) 10만원 양형진 2만원 7교구 다보사 24만7000원 복구암 30만원 부여보리사 30만원 쌍계사2471만570원 보적사 30만원 8교구 직지사 본말사 1593만4230원 임송자 10만원 8교구직지사본사 1741만3190원 한상철 5만원 한상용 5만원 선운사주지 2740만원 최상숙 2만원 김지미 120만원 16교구고운사 2000만원 불국사본말사 1억1042만2220원 은해사 2000만원 총무원부실장스님 140만원 불교여성개발원 338만237원 불교신문사 4325만5700원 법주사본말사 3000만원 신흥사본말사 5000만원 대흥사본말사 2000만원 조계사신도일동 1억원 봉녕사 85만7000원 윤신자 5만원 심현미 1만원 선정희 10만원 안성운수암 100만원 용주사 1000만원 만의사성직 100만원 직지사 33만8800원 차승열 10만원 건천보현암 20만원 박동석 100만원 전국비구니금련회 100만원

누적금액 1,184,534,212원원

지진 · 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 · 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 (02)2011-1824~5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 (재) 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556,150원
채수경 박순옥 하만석 최정자 이진아 이민아 김재숙 -합 532,800원

총누적금액: 37,721,78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봉사하고 젊어지니 즐거움 넘쳐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회

"아유,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유자차 한잔씩 해요."

1월 28일 식당을 가득 메웠던 노인들이 모두 빠져나가 조용한 가운데 맞은 오후 2시. 마포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회가 다음 날 노인들의 점심식사에 대접할 '돼지 주물럭' 재료 준비를 끝내고 바쁘게 돌아가던 식당일에서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다.

다른 회원들을 위해 유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애교만점' 유정화(64) 보살이다. 나이답지 않은 외모에 발랄한 목소리를 가져 봉사 모임 내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유 보살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간이나 한 자리에서 한 뜻으로 일해 온 봉사회라 그런지 한 사람이 '척' 하면 다른 사람이 '척척' 받아낸다. 음식 하나를 준비해도 어떤 이는 야채 썰고 어떤 이는 반죽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별 협의를 하지 않아도 절로 된다.

이렇게까지 잘 통하게 된 것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주의 거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오는 할머니 ·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뭉쳐 전체 인원 20여 명이 봉사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돌아가면서 '출근'한다는 봉사회. 일은 11시부터 시작인데 식사 준비는 물론 배식,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상 한 번 찌푸리는 일이 없다.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봉사회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자체적 활동'이 어느 단체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냉장고 등 고가의 주방기구가 필요하다면 누구랄 것 없이 모금을 하던지 자비를 털던지 해서 마련하고야 마는 것이 이 봉사회의 저력이다.

누구보다 활발히 이런 봉사활동을 이끌어온 봉사회 '왕 언니' 공옥금(78) 보살의 말에 따르면 경조사 기금 마련과 김장철 김장 나눔 등도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원력으로 이뤄질 정도다.

"식사하러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꼭꼭 씹어 잡숴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역 노인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봉사회가 있어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다.

김강진 기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마포 '노인의 집'

마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인근에 전셋집을 마련해 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노인의 집'에는 현재 3명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전순영(76) 할머니와 구경희(76) 할머니는 '노인의 집'이 생기고 난 직후부터 함께해 왔다. 최근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어 정 모(88)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됐는데, 아직 정 모 할머니는 '노인의 집'의 다른 식구들에게 마음을 다 열지 않은 상태다.

할머니들은 스스로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봉사회 회원들은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만으로는 할머니들의 건강과 생계를 절대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어 걱정"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후원문의: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02)365-3678

170여 가구에 떡 · 생필품 전달

승가원 한솔복지관



한솔복지관 이윤화 복지사가 2월 3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설날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은 2월 3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설날 선물을 전달했다.

한솔복지관과 (주)KT 직원들이 함께 한 이번 '설날 선물 나눔행사'에서는 성남 한솔마을 170여 가구 '차상위계층'에 떡국 떡 2kg, 생필품 선물 세트가 전달됐다.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온 한솔복지관은 이번 설을 맞아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관장 성화스님은 "지난해부터 유난히 기업체들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설날 소외 이웃에 자비 나눔 이어져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 경남지역의 사찰 및 불교단체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이 활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2월 4일 법화삼매당 향적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부산진구 초읍동과 연지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 100 세대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이웃들과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사)금강자비회**(이사장 노화순)는 2월 4일 창원시청 대강당에서 제 15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총 4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성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모 · 부자, 무의탁 노인 등 30세대에 1200만 원, 저소득가정 고교생 6명에게 장학금 720만원, 국립마산요양원 법당 후원 성금으로 500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도 2월 4일 사무실에서 설날 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80세대에 제수용품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으로 980만원, 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성금 등 총 1380만원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마산창원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자비나눔한마당' 행사를 통해 조성된 성금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해 전달식 모습.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기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종파를 떠나
참된 선지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스님 한분을 모십니다
010-6783-5020

한평생을 참선수행만 할려고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
다섯분만 연락바람
(일체 비용은 없음.
단, 20세부터 50세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참선수행만하는 도량임
010-3151-1501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천일지장기도
하실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011-483-5639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군
016-521-0003

기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4세, 비구)
017-515-7527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60세이상
011-576-2737

일년 기도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3-7834
011-589-105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포항
천년 관음도량 자장암
011-584-0888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23석자 한세트(옥촛대, 향로, 다기)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4525-9095

미국에서 기도하시고
생활 하실분
(비구, 비구니 스님)
미국 비자 소지
042)282-9270

공부하시는 비구니스님께
작은암자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016-337-4197
041)952-4197

부산(포교원)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9338-747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60만원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054-638-8887

"불교유치원 원장님 구합니다"
자격 : 유치원 원장 자격 요건 구비 하신 분
새로 개원하는 불교 유치원임으로 신심있는 불자에 한함.
연락처 : 양평 용문사
전 화 031-773-3797
스님직통 011-789-0478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토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 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특별개인지도
● 짧은 시일의 지도를 불설 28숙을 겸해서 자신있게 활용하도록 해 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룡동
● 대지 : 약 5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54)334-4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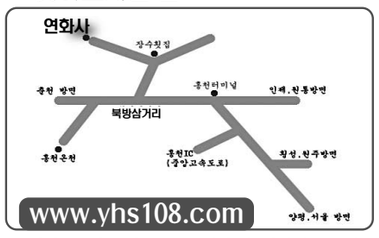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 지 순 례**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요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문막 ● 위치 : 경북 ● 위치 : 충북
● 법당 : 15평 ● 법당 : 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8평 ● 요사 : 60평 ● 요사 : 30평
● 부지 : 986평 ● 부지 : 1500평 ● 부지 : 980평
● 가액 : 2억 5천 ● 가액 : 5억5천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 1억5천, 2억5천(300평)
4억(600평山中)4억3천(400평)
7억(800평절경)7억(280평)
● 사찰납골당
① 7억5천(대:2200평, 건250평)
② 8억(대:3000평,건100평)
※ 사찰, 사찰터 多, 공양주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전세 2억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터)안내
● 산세수려한곳
사찰터 최적지
● 대지 2천평
(총 6천평)
055)794-5252

포교당안내
● 위치 : 홍재역 10분거리
● 평수 : 약 40평 ~ 45평
● 법당 : 약 45평
● 가액 : 전세 시설비 포함
5200만원
시설완비
02)3216-1118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위치 : 서울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부지 : 천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법당 : 12평
● 요사 : 23평, 산신각 ● 요사 : 30평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 공양실1, 법당1
법기 일체 완비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7-206-4003
02)919-464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5분거리
● 절터 : 150평
●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요
017-587-719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교통편 : 버스정류장 2분
전철(2,5호선 8분거리)대도로변
● 평수 : 52평 5층건물 중(2층전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 : 즉시법회(완벽), 법당, 공양실
(30명), 사무실, 접견실, 주차장,
스님사무실, 스님방(샤워실, 화장실)
● 답사 후 시설비 결정
02)2699-763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1. 경북 상주시 화북면<펜션형 토굴> 임 600평, 대 423평, 굴법당 9평, 요사 35평, 터밭 250평, 주차장 500, 심야보일러, 백두대간문경 쌍용계곡, 상주IC 30분 ● 전세 5500만원
2. 경북 예천, 대 300평중 100평 등기, 법당 18평(단청), 요사 28평, 미륵대불 5자, 산신용왕 각 3평, 용궁 약수물, 뒤산국유지 사용가능 ● 1억 5천만원
3. 충북 옥천읍(IC5분거리), 대 200평중 100평등기, 법당 25평, 요사 29 평, 산신 5평, 집기일체 양도,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1억 3천5백만원
4. 경북 상주 화서면<펜션형목조건물>, 부지 900평, 대 300평, A동 70평, B동 18평, 심야보일러 상주 IC 5분 ● 가액 3억 7천만원
대田권 사찰급구 부동산 여직원 구함
해동불사 017-409-95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 위치 : 구리시 근교
● 부지 : 110평 ● 부지 : 700평
● 법당 : 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6억 ● 가액 : 10억
● 산속에 있으며 교통요지임 ● 산세좋으며 유서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20분거리)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산신각(천연동굴) 15평, 대웅전
차평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
● 실수요 스님일절(중계인사절)
011-369-415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평수 : 150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 자 모 집
011-9150-9190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위치: 경남 고성 ● 위치 : 밀양 상동면
● 부지 : 80평 ● 부지 : 9백평 ● 부지 : 349평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요사채 : 30평 ● 부속건물 : 10평
● 가액 : 2억 8천 ● 가액 : 2억 2천 ● 가액 : 2억
● 한적한 도심 암자 ● 조용한 시골암자 ● 풍수만점 토굴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충남(온양에서 20분거리)
● 평수 : 사용평수 200평(대지48평)
● 건물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1동, 방3개, 주방, 방1개
● 가액 : 4천만원
※ 스님이 사정상 급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인연이 되실분 찾습니다
041-841-3090
017-337-4168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 중 허가 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 30평
요사채 : 30평
은행융자 3천 5백만원
● 가액 :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대지: 150평
● 건물 47평 재래식화장실2,
창고1, 임법당, 넓은거실
(50명수용가능)
● 조립식건물 7평(별도)
수세식화장실, 넓은마당
● 가액: 3500만원
019-265-242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 2층건물 2층 총 60평에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
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범종 에어컨 옥탑에 삼성각 요사채 30평 방 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법회가능)
● 가액 : 2000만원 월 60만원
모든집기와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0-6319-688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15분거리
● 면적 : 사찰부지 1300여평, 전 280평,
답 600여평 ● 건물 : 요사채50여평,
임시법당, 10여평, 원 황토방 4.5여평,
창고2개 ● 기타 : 사찰전용 도로 1.5km
완전포장, 매실나무 70여그루
● 가액 : 2억5천만원 절충가능
2004년 11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찰운영에 무리가 있어 양도함
011-866-7372

포교원안내
● 위치: 김포시내, 중앙승가대학교
오분거리,현재 4학년 졸업반
● 평수: 3층중 3층 / 55평
● 특징: 큰방2 영가단-방1별도
108명분집기, 최고급불기
스님방에어컨, 전체보일러
● 스리랑카불교이주노동자월례법회
● 법당: 원목상단, 후불탱화/50평
지장호신동불 216불
● 가액: 전세4천/시설비2천/합6천
011-820-1500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토굴안내
● 정자호 : 토굴시대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백운동 지삼거리 도보 400m
적색지붕 T자
● 방4칸 겸주방(보일러 완비)
● 대지 : 312평
● 가야산 기도, 등산취가
011-773-545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요사채 2동, 부엌2, 방4개,
임법당1채, 황토흙집1채,
● 석조약사여래, 좌불 조성
● 대지 : 1200평 중 747평. 건물 등기 가능
● 특징 : 산세수려, 넓은계곡,병풍바위
있음. 주변에 유실수, 약초재배가능
● 2차선포장 도로 ● 가액 : 2천만원
010-3130-0969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04-00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대지 : 170평, 건물 40평 (대웅전, 요사채, 행랑)
● 가액 : 3억 5천만원

절터안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 임야 3천평, 전 500평 ● 가액 : 3억
011-864-733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스님의 최적의 장소
즉시법회가능
016-396-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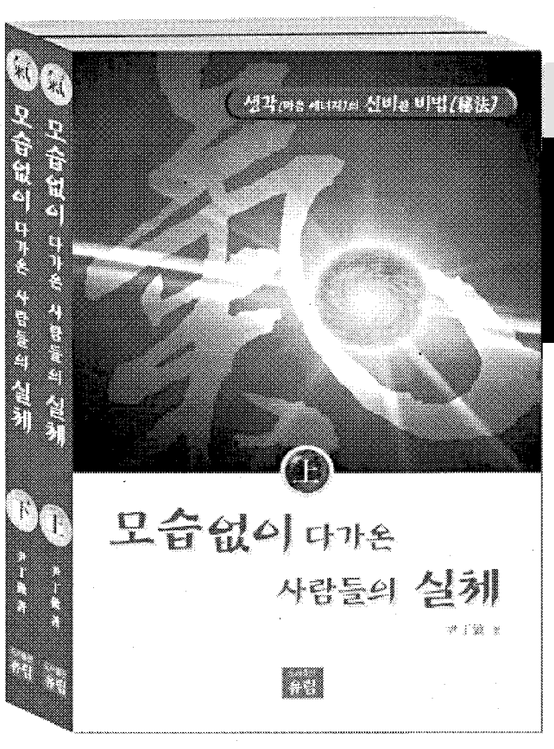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반어동
● 평수 : 120평
2층건물, 슬라브건물3채
사찰앞 도로 8m지점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130-503-2412
011-1755-241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목조) 12평
● 요사(벽돌) 25평
● 가액 : 9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50평
● 삼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전, 법당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www.jinryeo.com

우리 곁에서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고차원의 영적(靈的)초능력자 윤정주 원장의 체험이야기!



우리 생각의 묘법(妙法)과 신비(神秘)를 밝힌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

저 자 : 尹丁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인체(人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이 다가온 사람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아픔과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이 책을 통하여 진여(眞如)수련원 윤정주 원장의 신비(神秘)로운 기(氣 : 마음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느껴 보시고 체험해 보신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여주 송영수氏의 배려로 게재 됩니다.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경불회 동호회를 종단 소속으로? 간섭 · 관리보단 도움을

경승단 체계적 활동 지원 위해 필요!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포교가 우선… 상생의 길 찾아야"

"경승단이 경찰불자들에게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간섭하고 관리하려드는 게 말이 되나요?"

"경찰불자들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안일 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불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와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동하는 경승들의 모임인 대한불교경승단(이하 경승단)의 해묵은 감정싸움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경찰포교 분야에서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두 단체가 서로 서운한 감정을 삭이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경찰청 경승실로부터 불거졌다. 경승실 운영과 법당 불전금 관리를 경승단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하자, 경찰청 불교회는 "경승 스님들이 제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법당과 불교회 운영에 대해 간섭 · 관리하려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불회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내에 있는 '경불회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경찰청 경승스님들의 법회 참석회수에서 경불회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총 41회의 법회 가운데 경승이 주관한 법회는 네 번 뿐이다. 한 경승단 소임자 스님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스님 24회, 신도국장 원철 스님 2회, 김진홍 경불회 사무국장 7회, 태고종 원로의원 덕화스님과 남강수 포교사가 각각 2회씩 법회를 주관했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진명스님과 원철 스님은 두 분의 경승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경불회에서는 "경찰청 불교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진명 스님의 활동을 경승을 대신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불교 활성화를 위해 경승단과 경찰불교회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경승 스님과 경불회 간부가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해양경찰서 창립법회.

여기에 경승단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계종포교원이 경불회에 산하단체 등록을 권유하면서 두 단체간 관계는 악화됐다. 경불회는 조계종포교원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포교원의 등록권유를 경승단의 경불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포교원은 어차피 경불회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산하단체로 등록할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권유했을 뿐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승단도 경불회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경불회가 조계종포교원 등록 거부이유로 제시한 신도단체가 아닌 경찰조직내 동호회라는 주장은 불교모임으로써 존립이유를 망각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불회와 경승단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포교를 이끌어야 할 두 단체의 협조체계가 흐트러져 효과적인 포교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덕화 스님은 "두 단체간 신뢰회복과 역할 분배, 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승단은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지도 · 지원함으로써 경찰불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불교회는 바른 신행과 포교활동으로 재가불자로서의 소양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포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승단은 경승들의 활동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승의 해 · 위촉 추천권을 바르게 행사해 실질적으로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불회도 110개가 넘는 불교회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 조직을 정비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포교사회학과)는 "경승단과 경불회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경찰불교를 짊어지고 나란히 굴러가야 할 양 수레바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철도 발전 기원법회 열린다

철불협, 19일 직지사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에서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로 옷을 갈아입은 철도불자들이 철도발전을 기원하는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 · 이하 철불협)는 2월 19일 오후 2시 김천 직지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창립기념 및 철도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철도공사 법우회를 비롯해 철불협 소속 22개 법우회가 모두 참석하는 이날 법회는 김해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세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건설교통부 차관)의 축사와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의 법어, 지도법사 화암 스님(양평 사나사 주지)의 축원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박창식 운영위원장의 선창으로 모든 철도불자들이 무사고기원문을 낭독하며 이날 법회의 의미를 되새긴다.

김해수 철불협 회장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환골탈퇴하는 대변혁을 이뤘다"며 "우리 철도불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철도발전과 무사고 안전운행을 제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원하는 법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젊은 불심으로 거듭나자" 다짐

불교법조인회 정기총회서

불교법조인회(회장 전창렬)는 2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봉행하고 '젊은 피' 수혈을 통한 젊은 불교법조인모임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이를 위해 불교법조인회는 올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젊은층의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관련 수행 · 기도모임과의 연대 · 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법조인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불교법조인회장 전창렬 변호사는 "다르마법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법조계를 대표하는 불교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

안녕하세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전광역시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재근)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 6개 기관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하는 신행단체입니다. 2002년 5월 창립돼 회원이 140명에서 300여명으로 늘어날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눈에 띠는 변화는 법회 위주의 활동에서 사회봉사 등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에서 제정한 사회봉사의 날에 동참하는 취지로 대전 자양동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자혜원을 위문한 이래 대전관내 복지시설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대전시청), 사랑의집(유성구청), 법동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청), 자혜원(동구청), 탈북주민 위문 및 봉사(중구청) 등 시청과 각 구청 불자회별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청 불자회의 경우 회원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400kg에 달하는 쌀과 떡, 과일, 수육, 음료수 등을 준비해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양준비, 배식, 설거지는 물론 대강당 청소,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회원들의 반응이 좋고 우리 불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는 년 2회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불자회에서는 또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기 위해 매년 철야정진과 사찰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003년 6월과 10월 경주 불국사와 단양 구인사를 찾아 성지순례를 겸한 철야정진을 실시했고, 지난해 10월에도 김천 직지사에서 용맹정진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불자회 주관으로 공주 갑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수련회 및 사찰문화체험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는 '봉사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2003년 11월 대전 공무원불자들이 아동복지시설인 자혜원을 위문하는 모습.

관내 복지시설서 '전천후 봉사활동' 전개

철야정진 · 사찰문화체험으로 내실 다져

이 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매월 백제불교회관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법회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들의 화합의 마당인 동시에 회원들의 수행을 돕는 자리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는 노재근 회장(공무원교육원장)님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불자회' '정법을 배우는 불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초발심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합으로써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불퇴전의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계획입니다.

■전형진 총무(대전시청 문화예술과)

謹賀新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삼론종

전 국토를 불교화 · 전 국민을 불자화 · 전 생활을 불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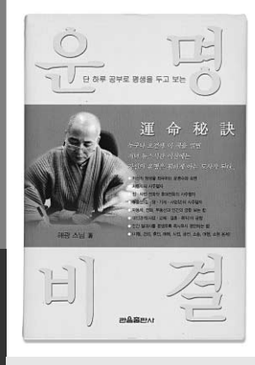
종 정 석파 전석봉
부 종 정 대정 이혜공
승정원장 신수 이종규
총무원장 혜광 사일복
종회의장 대안 정금호
사정원장 정봉 류해원
재정원장 청봉 이인교
포교원장 지운 윤태영
수선원장 오봉 김규채

*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3월 20일(음, 2월 11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충주호 중앙탑에서, 국운융창 경제회복 및 만등불사 대법회에 종도각위께서는 지극한 애종심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선근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호 TEL 02)379-4631 FAX 02)379-4632

베스트 셀러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저 서 불교비전의술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자 전수자 모집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일주문



남북나눔공동체 이사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1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 기념홀에서 열린 '(가칭)남북나눔공동체'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남아시아 돕기 자비의 탁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월 25일 서울 총본산 묘각사에서 종로까지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였다.



법상종 정기임원회의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2월 1일 평택 유가사에서 총무원 이전 법회 결과 보도 등을 안건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6 · 15 남북행사 공동대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은 1월 31일 올해 6 ·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자이툰부대 군승법사로

35사단 정연태 군종법사(대위)는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 자이툰부대 군승법사로 선발돼 2005년 2월 활동에 들어갔다.



무주 백련사서 신년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송병국 회장은 1월 29일 무주 백련사에서 회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 수련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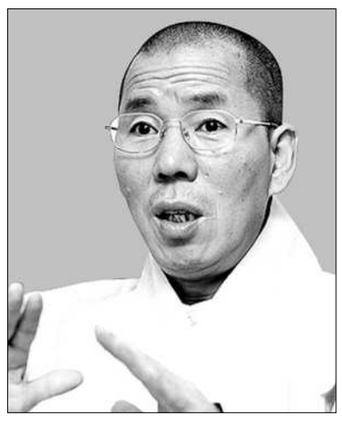


불기협 정기총회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 김원우 회장은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동산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02)722-4162

"경제 · 사회정의 실현이 정토구현"

경실련 공동대표 맡은 법등 스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구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감시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홍원탁 서울대 교수와 공동대표로 선출된 법등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사진)은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이나 생명존중 사상과 경실련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표가 상통해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등 스님은 지난해 12월 구미 경실련 대표로 선출됐다.

"개인 소견이지만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이나 시비를 일삼는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도 시민사회단체의 몫이지만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계층간 지역간 이념간 분열된 사회를 아우르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법등 스님은 경실련은 중앙을 비롯해 각 지역 단위로 구성돼 있는 만큼 하나의 대원칙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펼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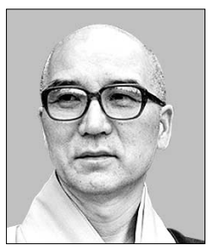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나 환경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대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스님들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펴는 것입니다."

법등 스님은 1961년 김천 직지사에서 출가해 조계종 총무국장, 조계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 지킴이 운동 확산 주력

신라문화원 초대이사장 진철 스님



"밑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밑뿌리가 튼튼해야 꽃을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고들 하지만 한국이란 뿌리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1월 28일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신라문화원 초대이사장에 취임한 진철 스님(사진). 스님은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바탕을 마련하고 활동의 폭을 키워 신라문화를 전승해 21세기 새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각종 강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1964년 월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 4, 5, 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통도사 선덕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민주화 유공자 인정 받아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사진)이 1월 16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지광 스님은 출가 전인 1980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신문검열 철폐, 비상계엄 해제 등을 외치며 전국적인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해 강제해직 당했다.

지광 스님은 "민주화 운동의 역군답게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한국학 선구자 · 불교학 거장 민영규 교수 별세

한국학의 선구자 서여 민영규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유족으로는 아들 기식 씨와 세 딸이 있다.

191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배재학당과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일본 다이쇼(大正)대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고인은 1945년부터 35년간 연세대 사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고인은 연희전문 재학시절 위당 정인보의 가르침을 받아, 조선 양명학파인 강화학의 맥을 이었고, 연세대 내에 동방학연구소와 국학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

불교학에 밝았던 고인은 '선묘와 의상대사(1953 · 사상계)' '원효론(1953 · 사상계)' '석굴암 조상의 교리배경(1961 · 고고미술)' '장곡사고려철불복장유물(1966 · 인문과학)' '일연중편조동오위론(197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저서 <사천강단>에서 교인은 신라 무상 스님과 마조 스님의 관계를 규명해 한국과 중국선종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여인극장' 강유정 대표 별세



불자 연극연출가이자 극단 여인극장 대표 강유정(73 · 사진)씨가 2월 1일 서울 청구 성심병원에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임재준 씨 등 1남 2녀가 있다. 독실한 불자집안에서 태어나 1955년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강 씨는 30년 이상 서울 칠보사를 다닌 불자이기도 하다.

강씨는 1966년 국내 최초의 여성정극극단인 여인극장을 창단, 활발한 극단활동을 펼쳐왔다.

이은비 기자

현대불교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제10회 신행수기 시상식이 1월 2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우선주 씨(대상) 등 수상자들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동국대 교수 법산(심사위원장), 태고종 사회부장 백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총화종 총무부장 현오 스님과 진흥원 최명준 국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은 2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아 방송국내 법당에서 개국 기념 법회와 축하 리셉션을 갖고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법회에서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대성 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 4백만 불자들에게 정법을 전하는 방송 포교의 선봉이 돼 달라"고 법문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장 이취임식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현일환)는 1월 29일 서울 구룡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및 13 · 14대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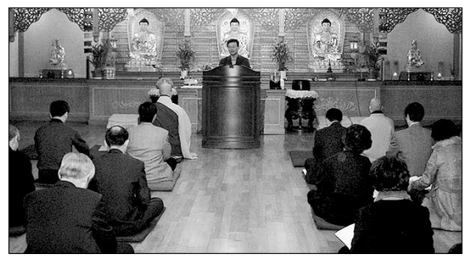
대불청 서울지구는 2005년 연꽃노래잔치,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봉사활동의 날로 정해 보시행을 하고 있다.

구미불교대학 이전 개원법회



구미불교대학(학장 법등)이 구미시 봉곡동에 학사를 마련했다. 1월 30일 열린 화엄탑사 개사 점안 및 구미불교대학 이전 개원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직지사 조실 녹원, 주지 성웅 스님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가했다.

국제포교사회 신년법회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1월 29일 서울 불광산사 법당에서 신년법회 및 9기 국제포교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봉래 회장은 "국제포교사회가 올해로 창립 7년을 맞아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업 외에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옥천지국	옥천 / 영동 / 보은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약정해지 지사장 공고 - 대전지사 류재희 지사장 - 전북지사 조기식 지사장
위 2개 지사장을 2005년 1월 31일자로 약정을 해지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신규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10년의 첫 해를 맞아 지역 포교사를 모집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사시로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가장 믿음직한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지역 포교소식을 정성으로 알리는 불교홍포에 앞장서실 활동적인 지사장님을 모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 맛을 생활 속에서 되살려내는 정상의 신행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신규 개설 모집 지역
충남 / 대전, 강원권, 울산 / 경주 / 포항, 제주권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사업 전개.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진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 활동계획서, 추천서(사암련회장 또는 교구 본사급 주지스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제출기한 : 2005년 3월 6일(토)
- 제출방법 : 우편(3.6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방문 접수.

4) 제출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문의전화 : (直) 02)737-0090 (代) 02)737-8881 팩스: 02)737-0697



불자 세상보기

구 승 회
동국대 윤리학 교수

도덕의 江마저 오염되면

올해로 해방 60년이 된다. 우리는 식민지 수탈과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폐허로부터 눈부신 경제적 성공을 이룩하였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 일류기업과 상품,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앞선 세대들은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모름지기 사람은 배워야 산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제도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소홀히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받은 훌륭한 개인이 많다는 것은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희망이기도 하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기반 정보사회로 생산양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문맹률이 세계 최저인 나라, OECD국가 중에서 중 ·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단연 상위권이고, 미국 대학이 배출한 외국대학 출신 박사 중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지난 수능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컨닝을 하였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시험지를 대리로 작성해주고, 학부모를 상대로 점수 장사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력 인사와 부유층 자제들의 성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올려주었다. 지방의 일부 의과대학 대학원은 의사들을 상대로 석 · 박사 학위 장사를 하고,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대리출석 ·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대기업의 강성 노동조합은 취직 장사를 하였다.

이 모든 탈도덕적인 행태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학벌사회, 입시제도, 돈 중심적인 가치관 등 저마다 그럴싸한 원인을 제시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과 창의력 교육에 주목한 나머지 인성, 도덕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렸던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지침은 장기간 유효했던데 반해, 정보사회에서는 도덕의 근거설정이 어려워지고, 옳은 것 · 좋은 것의 기준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화가 지속되기 힘들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이 변하는 가치 불확실 사회에서 '많이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보다 존경받는다. 인터넷과 개인 휴대통신의 발달은 모든 공적인 의사소통을 사적 담화(私密化)로 격하해버리고, 첨단 네트워크 기술은 신뢰에 기반한 현실공간의 의사소통보다는 가상 공동체의 비언어적 소통으로 대치된다. 한마디로 기술 의존적 사고방식이 도덕적 품성을 대신한다.

기술의 세계화는 전통을 해체하였고, 이는 전통에 뿌리내려 있으면서 사회통합의 든든한 끈이었던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위의 해체는 존경할만한 어른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 경찰, 소방수, 선장, 선생님, 아버지의 권위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도덕적 강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적 대 붕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사회질서는 모색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성취와 세계일류는 고도한 불신의 땅에 세운 바벨탑에 불과하다. 세상은 결코 퇴행하지 않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척 하는 자,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일수록 부정의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 인간사의 법칙이라고 자괴해서는 안된다.

후기 기술사회의 인간 교육은 문명을 도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강제된 공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기술 문명의 도덕화는 성숙한 시민사회, 일류 국가로 가는 길에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의 강(江)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환경 생태 문제가 21세기 인류의 핵심적인 화두임을 체감하고 있는 우리에게 최근 조계종 환경위원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송현 클럽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구환경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결의일 뿐으로 종령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당일 회의장의 분위기와 '종령을 다시 정비하도록 총무원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환경위원회 위원장 스님의 의지 표명으로 볼 때, 교구환경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돌이켜 보면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종령에 의해 2001년 12월 8일 발족하였다.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 사찰환경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 사찰환경문제의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된 각종 조사 및 연구 사업, 종단 환경교육, 환경단체와의 연대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환경위원회의 주요 기능이다. 환경위원회는 그 후 사찰환경침해에 대

교구환경위원회에 거는 기대

한 대응, 사찰오수처리시설의 환경부 협의, 방생 지침서 발간 및 친환경적 방생 홍보, 국립공원 제도 개선사업 등 결코 적지 않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 차원의 환경위원회 활동만으로는 각 지역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적절하고 발빠른 대응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인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구환경위 설치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구환경위는 해인사를 비롯하여 통도사, 용주사, 월정사, 화엄사 등에 이미 구성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전 교구에 확대시켜야 할 때다. 그리하여 스님들이 중심이 되고 환경전문가와 운동가가 함께 하는 교구환경위는 민간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환경관련 정부기관과 직간접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조율과 예방에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수경 스님 삼보일배' '지율 스님 단식'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터다. 교구환경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환경과 생명'을 살려내는 산 종교로 우뚝 세워나가기를 거듭 희망한다.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

이렇게 들었다 '사기 조심의 달'

선정(禪定)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탐욕이 빚는 재앙을 관찰해야 하고, 또 이를 벗어나는 일의 공덕에 대하여도 관찰해야 한다. 탐욕은 빌린 물건과 같으니 형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탐욕은 허깨비와 같으니 사람을 의혹하게 한다. 탐욕은 어리석음과 같으니 정념을 잃게 한다. 탐욕은 형구(刑具)와 같으니 마음을 묶어 매는 까닭이다. 〈해탈도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을 '사기 조심의 달'로 정했다. 무슨 무슨 날도 많고 달도 많지만 '사기 조심의 달'이라니…?. 오죽 사기범죄가 많으면 이렇게 정했을까. 공정거래위는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예시한 자료까지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기수법 중 첫째가 공짜선물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은게 있으면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 둘째, 앞서 한 말에 얽매이게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동의하게 만든 뒤 나중에는 최초의 동의사항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제안에 동의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기꾼들일수록 외모가 번드르하고 매력적이다. 넷째, 전문가가 보증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을 이용한다. 다섯째, 마지막 기회라고 유혹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24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불경기일수록, 사회가 혼란할수록 복권이 잘 팔리고 도박 등이 성행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장기불황과 사회탓만 할 수 있을까.

아무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없는 공짜와 '대박'을 좇는 허황된 마음이 사깃꾼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씨앗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하지 않고 달디 단 열매만 열리기를 바라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사기수법에 깜빡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지붕잇기를 성기게 하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이를 뚫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경숙(취재부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용기와 실천력 본받을 일

지율 스님의 환경관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신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실천력은 비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이런 저런 평가와 말은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 만 원짜리 지폐 하나라도 내놓는 실천은 힘든 법이다. 그런데 지율 스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천성산을 살리려 한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용기와 실천력을 본받을 일이다. 스님이 건강하시길 빈다.

신념에 따라 산다는 것(붓다뉴스)

KBS 골든벨 능인고에서 울리다

지난 일요일 TV에서 골든벨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불교계 학교인 능인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린 학생이 나온 것이다. 44번부터는 김희탁 군의 외로운 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김 군은 전혀 막힘없이 50문제를 모두 맞춰서 덩달아 우리 가족들도 기뻐했다. 골든벨 팬인 7살 된 딸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화면에 잠깐 잠깐 스님 모습이 비치는 것도 한결 행복한 느낌을 갖게 했다. 아마 능인고가 불교학교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스님의 모습을 의아해 하며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는 것처럼 열심히 왜 스님이 있는지 찾아봤을 것이다. 불교계 학교에서 TV에 출연하고 스님이 화면에 보인 것만으로도 불교 포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용상(대구시 수성구 중동)

작곡가 윤이상 기사를 읽고

현대불교 511호에 실린 윤이상의 삶과 음악세계 기사는 참 좋은 기사라 생각된다. 윤이상 선생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대음악의 거장이다. 간첩사건에 연루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선생의 고뇌를 기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한 시기에, 불자들의 윤이상 선생에 관한 이해를 높여주리라 믿는다. 올해는 윤이상 선생의 서거 10주기이므로, 이제 명예회복은 물론, 그 혼백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자.

장지현(붓다뉴스)

청불회 이래서야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청불회에 대한 기사였다. 회장직을 서로 꺼린다는 내용을 보면서 문득 홀리클럽이 떠올랐다.

공직의 정점에 서있는 이들이 서로의 종교를 위해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모습이 청불회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은 왜일까.

물론 기사로 봐서는 청와대와 불교계 사이에서 대불교창구의 역할을 하는 청불회장의 입장이라면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남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다만 의무를 무겁다고만 느끼지 말고 부처님 일이라는 생각에서 신심을 좀더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욱(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절에서 유치원 운영해야

우리집 바로 옆에는 원생 모집일이 다가오면 밤을 세워서라도 줄을 서서 입학권을 따내려는 인기 유치원이 있다. 엄마들이 악착같이 이곳에 아이를 보내려는 이유는 그곳이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불자인 나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그나마 가까운 아차산 영화사에 유치원이 있지만 불편한 교통편 탓에 차마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성당 유치원은 포기하고 집 근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도심포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는 결국 그 부모들까지 끌어들이는 방편이다. 절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불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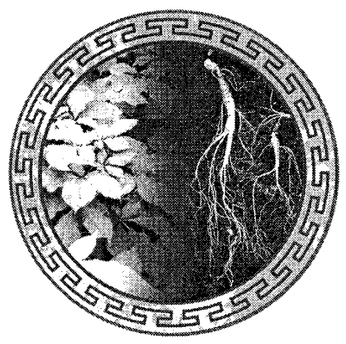
고현주(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교TV를 사랑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tn 불교TV

“사람의 소중함 알면 세상은 따뜻해져요”



‘사명당의 집’을 노숙자의 쉼터이자 자신들의 수행처로 삼고 있는 김광하 대표와 자원봉사자 김국홍 · 김미경 · 곽진선 · 김영진 씨(사진 왼쪽부터).



무역회사 운영하며 불교NGO 활동 앞장
노숙자 · 외국인노동자 · 탈북자 등 지원

‘작은손길’ 김광하대표

“생활과 떨어진 수행은 수련에 불과”

“발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는데….”

“아휴, 괜찮아요. 이리 들어오셔서 씻고 몸 좀 녹이세요.”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노숙자 이용시설 ‘사명당의 집’ 문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근처 지하도에서 밤을 새고 추위를 피해 이곳을 찾은 노숙자들이 깨끗한 실내를 보고 잠시 주춤거린다. 김 대표의 거듭되는 권유에 이들은 신발을 벗어들고 후다닥 세면실로 뛰어간다.

“저렇게 소박하고 순수한 분들이에요. 일부 잘못된 정보나 언론 보도로 ‘노숙자=부랑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노숙자들은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입니다.”

여운(如雲) 김광하(53). 무역회사 사장이자 사단법인 ‘작은손길’의 대표인 그를 사람들은 불교 NGO 활동가로, 또 누군가는 그저 불교 NGO를 돕는 ‘돈 많은 후원자’ 정도로 알고 있기도 하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불련(경제정의실천시민불교연합) 운영위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상임위원, 작은손길 대표를 맡으며 불교 NGO 활동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그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연세대 상과대에 입학한 1970년까지만 해도 그에게 불교는 수많은 ‘동양철학’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 기독교에 관한 책을 두루 읽고 밤새 토론하기를 즐겼던 그에게 불교는 조금씩 ‘특별한’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71년 여름 대구 동화사에서 경봉 스님의 ‘불이(不二)’ 법문을 듣고는 대학 내에 불교학생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76년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너는 불교를 잘 아니 마음속에 번뇌가 없겠다”는 선배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동안 자신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왔다는 반성이 들었던 것이다.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부산 보림선원으로 향했다. 1년 6개월간 수행에만 정진했다. 부모님의 성화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 무렵, 다시 서울로 올라와 외국인 회사에 취직했다.

87년에는 도이상사라는 작은 무역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인 기반도 잡혀갔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의문과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생사를 걸고 수행에 매진했고 스스로 ‘공부가 좀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는 소홀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났다. “도대체 수행을 했다는 사람의 생활이 왜 이런 것일까?” 수행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공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무렵 불교와의 인연을 다시 맺어주는 계기가 생겼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로터리 클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활동을 펼치는 김해성 목사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김 목사는 심한 매질과 노동력 착취, 산업재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줬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불교계 시설을 찾아 나선 그는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를 알게 됐다. 그때가 97년이었다. 처음엔 금전적인 후원으로 시작된 그의 봉사는 현장활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봉사’만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 ‘봉사’였다며, 그는 봉사를 ‘수행’으로 이끌어 보자는 다짐을 했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활과 떨어진 수행은 트레이닝(수련)에 불과할 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와 탈북자 지원 등으로 봉사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수행의 장으로 삼고 있는 곳은 ‘사명당의 집’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사명당의 집’은 노숙자들이 찾아와 몸과 옷을 씻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드롭인(Drop In) 센터. 문을 연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 40여 명의 노숙자들이 찾는다.

시설이 문을 여는 날이면 봉사자 김영진(39)씨는 아침부터 건물 앞 큰길을 깨끗이 쓸어 놓는다. ‘노숙자들이 드나드는 지저분한 곳’이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다. 올해 73세인 봉사자 김국홍씨와 김 대표는 노숙자들의 상담과 재활지원을 맡고 있다. 아버지 같고 때로는 엄한 스승 같기도 한 이들에게 노숙자들은 스스럼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재활의지와 일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쪽방이라도 마련해준다.

김 대표가 ‘봉사자 도반’들과 함께 내건 ‘사명당의 집’ 운영 원칙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 둘째는 노숙자들을 이용해 언론에 나서지 않을 것. 셋째 가능하며 회원들의 힘으로 시설을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화건설이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연세대 불교학생회가 개인사물함을 기증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김 대표의 사비로 이루어졌다.

“회원들의 봉사와 후원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노숙자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단체에서 큰 지원을 받다보면 회원들이 모아준 작은 성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디더라도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주3회만 운영하는 시설을 매일 개방하고 싶고, 노숙자들을 재워줄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싶은 마음이야 회원들의 공통된 심정.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에 무리가 따르고, 이웃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저나 회원들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또한 욕심이고 애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금강경 독송모임’을 이끌고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와 함께 초기경전 번역에 힘쓰는 등 끊임없이 불교를 공부하고, 그것을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김 대표. ‘작은 손길’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손길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 놓는 그에게서 ‘깨달음’과 ‘수행’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닌 ‘동사’임을 느낄 수 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올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바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여시아문 3주 연속 베스트셀러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최제의 책

주제가 있는 ‘禪’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나의 수행법

김기현 (중)



화두참구 사흘째, 스님은 "오늘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쏟아지던 잠은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려나보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후 무렵부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곡하는 사람도 나왔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렸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두 공부 중에 알 수 없이 생긴다는 점에서 모두들 창피함은 없었다. 신기하기조차 했다. 좌복에 앉아 가만히 화두 의심을 했을 뿐인데도 저런 변화들이 몸 안에서 발생하다니. 급기야 저녁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이후 3일간이나 화두만 들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내가 무슨 몹쓸 짓을 그리 많이 했기에 이리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모든 것이 지난 세월 '무명(無明)'과 '악업'을 씻어내는 눈물이라고 생각돼 참회를 많이 했다. 그런 내 몸의 변화를 스님에게 말씀 드렸다. 그러더니 스님은 그 순간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어떤 경계(체험)가 오더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참 나를 몰라 답답한 그 마음만을 밀고 나가라. 지금 이 순간 눈물이 왜 흘러내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화두 의심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답을 찾으란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내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호흡과 장기들(특히 심장의 박동)이 있음을 알고 온몸으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내 몸을 관찰하면 되겠구나'라 여기고 다시 집중했다. 그러나 머리만으로는 화두 공부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일이 지나기 전에 뼈져리게 알게 됐다.

화두 참구 닷새째, 전주에 있었던 송광사 수련회에서 맛보았던 신기한 현상(오로라막이 날 보호하는 현상)을 스님에게 묻고 화두 공부상의 답이길 바랬다. 그러나 스님은 씩 웃으시며 "좀 더 정진하라"고 했다. 다시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지' 찾았다. "잉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 가다가 폭포를 만나면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용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러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잠도 오지 않았다. 화두를 들기만 하면 왜 그리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손수건이 축축해졌다.

비몽사몽간에 화두 공부하다가 날이 밝았다. 화두참구 엿새째가 됐다. 한 참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형성됐다. 가만히 관찰하니 실로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알 수 없는 기운이 내 몸 안에서 위로 솟구쳤다. '바로 이것이구나!' 순간 기뻤다.

그런데 그 기운이 솟구치다 말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한 참 올라가다가는 자꾸 떨어졌다. 스님은 "한 번 떨어지면 처음 화두를 받았을 때처럼 다시 화두를 들라"고 했다. 지금껏 찾아 올라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니 야속하기만 했다. 결국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하루가 흘러갔다. 옛 스님들이 깨침을 얻지 못하고 하루해가 지면 통곡하며 운다는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계속)

■ 변호사

쏟아지던 잠 어느 순간 싹 달아나고 화두만 들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육조단경'이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

'마음' 정체 밝혀주고 공부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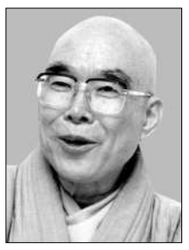
"일체만법이 모두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자기 마음을 좇아 단박에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내 본래의 근원인 자성은 청정하다. 마음을 알아 본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된다."

'깨달음' 선언. 〈육조단경(六祖壇經, 이하 단경)〉의 핵심인 '불성의 자각사상'을 담은 한 구절이다. 이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육조 혜능 선사의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또 달마 대사로부터 육조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흐르는 '자성귀의(自性歸依)' 사상의 집약이다.

〈단경〉의 실천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일체선악에 따른 '죄의 성품(罪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통찰하는 '무상참회(無相懺悔)'법을 일러주고 있다. 그야말로 마음의 정체를 샅샅이 밝혀주고 앞으로의 공부 길까지 소상히 제시하고 있어, '마음공부의 로드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단경〉이 최근 출·재가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서울 불교전문강당 산하 경전연구위원회가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을 강사로 초빙, 오는 3월 11일부터 6개월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옥수동 대승암에서 〈돈황본 육조단경〉 강좌를 연다(011-497-8018). 또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우희종 교수(02-880-1262)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서울 관악구 고시촌 정혜사에서 〈육조단경 강설〉을 열고 있다. 〈단경〉이 선수행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은 무엇인지를 고우 스님, 성본 스님, 우희종 교수, 김윤수 부장판사 등에게 들었다.

중도·연기사상 선체험으로 일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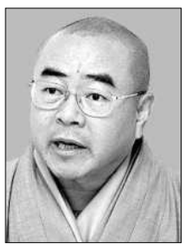
'돈황본 육조단경' 강의하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단경〉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연기사상이 녹아있다. 물론 모든 경전이 중도·연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논리적·이치적이다. 반면 〈단경〉은 선(禪)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때문에 〈단경〉은 출·재가자들이 중도·연기사상을 선으로 체험하는데 유익한 경전이자 선어록이다.

중도·연기는 '양변을 여의라'는 뜻이다. 즉 '나다 너다'라는 이원적 사고를 벗어나라는 말이다. 〈단경〉은 이처럼 주객을 초월한 자리를 '불성을 본다'고 표현한다. 또 '본래 성품을 본다'고 한다. 혜능 선사가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양변을 여읜 자리가 바로 불성임을 보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도·연기가 〈단경〉의 핵심이다. 갈등, 대립, 투쟁의 극단적 삶을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꿔놓은 지혜인 것이다. 양변을 여읜 중도·연기적 삶은 현재 지구상의 종교,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선적인 처방전이 된다. 내 민족, 네 민족, 내 국가, 네 국가 등으로 갈라보는 시각을, 함께 더불어 산다는 중도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단박에 깨쳐 본래 불성 바로 본다"



'돈황본 육조단경' 역주한 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

〈단경〉 이해의 말머리는 '돈오견성(頓悟見性)'이다. 즉 '단박에 깨쳐 본래 불성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단경〉은 중생심을 마음의 근본자리인 '불성'으로 돌이키는 길을 제시한다. 깨달음의 주체가 불성이고, 그 불성의 작용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한다. 불성을 자각해야만 반야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자비도 구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때문에 〈단경〉은 자각에서 자각으로 끝난다. 망념에 사로잡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자각. 이것이 〈단경〉의 실천적 언어인 '식심견성(識心見性)'이다. 또 '지금, 여기, 자기'를 늘 들여다본다는 '일행삼매(一行三昧)'다. 그래서 〈단경〉이 풀어내는 방식은 철저히 실천적이다. 대승불교의 반야와 불성사상이 '생활선(生活禪)'의 형태로 녹인 점,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無念)을 종으로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은 것이 그 실례다.

결국 〈단경〉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선의 실천으로 정립한 선불교의 성전이라 할 수 있다. 반야와 불성사상을 통합, 선수행으로 전개하도록 새로운 선불교의 실천체계를 확립했다. 또 조사선이라는 생활종교를 중국의 대지에 정착시킬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 선불교의 금자탑을 세운 경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경〉은 선수행의 지침서가 된다.

"자기 마음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정혜사에서 '육조단경' 강의 서울대 **우희종 교수**

핵심은 '마음보기'다. 즉 내 안의 불성을 보라는 가르침이 〈단경〉의 논지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단경〉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점에서 〈단경〉은 이미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에서 설해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과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맥론〉 등에서 강조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풀어놓은 '마음공부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단경〉은 '깨달음이란 이렇고 저렇고'하는 설명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아 볼 것인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 공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짧고 간결한 〈단경〉은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자상하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개념화된 불교로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이렇게 〈단경〉은 불성에 대한 직접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형식화된 선을 타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마음공부가 왜 중요한지부터 어떻게 마음을 보라는 것까지 마음공부의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선수행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수행법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상세해 공부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가자들에게 생활 속 깨달음 제시



'육조단경 읽기' 펴낸 파주시 법원 **김윤수 부장판사**

육조 혜능은 말한다. 우리는 부처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재물이 많든 적든,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그 성품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때문에 〈단경〉은 재가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삶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단경〉은 마음공부의 탄탄한 교과서가 된다. 선수행을 하는데, 기초적인 불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마음은 원래부터 연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처럼, 〈단경〉은 불성에는 남북이 없고, 불성의 성질은 청정공적하다는 개념으로 선수행의 기틀을 제시해준다. 또 〈단경〉은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불(自佛)이야말로 진불(眞佛)'이라면서, 부처를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단경〉은 재가자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즉 혜능 선사가 15년간 유발행자로 지내오면서 '거사도 깨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일상사 그대로가 선'이란 〈단경〉의 메시지가 일상 속에서도 선수행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셈이다.

정리=김철우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차크라 명상으로 마음 다스려 봐요

7개 차크라 특정 심리상태와 관련 깊어
'소리 도형 색 향' 등 집중 대상으로 활용

요가는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요가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몸의 에너지가 밀집돼 있는 '차크라'라는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척추를 따라 위치한 일곱 개의 차크라는 각각 특정한 심리상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차크라의 정화 및 각성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요가치료학 전공의 첫 석사 논문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차크라 모형 및 차크라 명상의 활용방안(김복태)'과 차크라 명상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차크라 명상의 실제와 그 치유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차크라 명상법의 종류

각 차크라에 해당되는 신체 부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차크라 명상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각적 집중 대상을 활용하는 명상법이다. 일곱 차크라는 고유한 진동음을 가지고 일곱 개의 기본 음계(도레미파솔라시)와 각각 공명한다. 소리 파동이 인체의 고유한 진동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심신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각 차크라에 해당되는 모음 소리를 음송하면서 해당 차크라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시각적 집중 대상을 활용한 차크라 명상 기법도 널리 사용된다. 각 차크라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도형, 즉 '얀트라'에 집중하는 방법과 각 차크라에 해당되는 색깔을 심상화하는 색깔 차크라 명상법이 있다. 전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을 도형화한 얀트라를 보며, 후자는 무지개의 일곱 빛깔들을 떠올리며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색깔 차크라 명상법은 색깔이 특정한 진동을 통해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제로 고안됐다.

이외에도 자연과 접촉하거나 향기를 맡으며 해당 차크라에 부드럽게 주의를 집중하는 차크라 명상법이 있다.<표1>

심리상의 공통된 특징

김복태씨는 4명의 차크라 명상 경험자들이 기술한 '경험 보고서' 내용을 각 차크라별로 분류해 공통된 특징들을 범주화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공존했고, 상위 차크라로 갈수록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가 성자들이 보고한 내용들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2>

심리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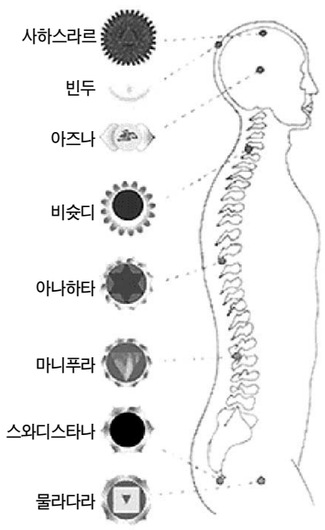
특정한 차크라에 마음을 집중하면 고요하고 잠잠해진 마음의 수면 위로 무의식적 자료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집중을 심화시키다보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중립적인 태도가 자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가에서는 의식 에너지가 어떤 차크라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 기질이나 성격 등이 결정된다고 본다. 차크라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자각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 성향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마음을 관찰하지만 마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능력을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자각과정을 거쳐 차크라 명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일곱 개의 차크라 에너지가 각성되면서 그 안의 극과 극의 성향들이 통합될 수 있다. 양극성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양극성에 대한 자각을 놓지 않으면서 양극이 균형을 이루는 중도를 체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차크라 명칭과 부위



정화 및 각성을 위한 요소들 <표1>

차크라	색깔	음소리	자 연	아로마
물라다라	빨강	'oh'	여명, 일몰, 신선한 대지	백향목, 정향
스와디스타나	주황색	short 'o'	달빛, 맑은 물	일랑일랑, 샌달우드
마니푸라	노란색 황금색	long 'o'	햇빛, 꽃밭, 무르익은 곡식 들판	라벤더, 로즈메리
아나하타	녹색, 분홍색	'ah'	만개한 꽃, 연분홍색 하늘	로즈
비슛디	연한 파란색	'eh'	파란하늘, 부드러운 파도	세이지, 유칼립투스
아즈나	남색, 보라색	'ee'	밤하늘	민트, 쟈스민
사하스라르	보라색, 흰색, 황금색	'm'	산꼭대기	유향, 연꽃

차크라별 여러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 <표2>

차크라 종류	경험한 감정
물라다라 차크라	억압됐던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동굴 이미지), 안정감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분노, 성적욕망과 무의식
마니푸라 차크라	열기, 활력과 생명력
아나하타 차크라	슬픔, 정화의 느낌, 사랑과 자비심
비슛디 차크라	목의 통증과 답답함, 순수함과 마음의 평화
아즈나 차크라	의식의 상승감과 자각의 확장 및 통찰, 내면의 빛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 선종의 간경관(看經觀)



지율 스님 때문에 오랜만에 대중과 더불어 <금강경> 한편을 완독하게 되었다. 조계사 극락전 이층에서 일주일동안 다른 종교성직자들이 참여하는 단식과 별도로 일층에서는 조계종도들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마음을 맞추어 운율을 함께하여 합송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맛과 멋으로 가슴이 울려온다.

간경(看經)은 독경(讀經)과 다르다. 경전에게 굴림을 당하면 독경이고 경전을 주체적으로 굴리면 간경이 된다. 반야다라 존자의 이야기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달마 대사의 스승이 반야다라 존자이다.

스승을 보면 그 제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행적을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겠다.

동인도 국왕이 수행자를 초청하여 재(齋)를 베풀었다. 공양청을 받아서 가면 당연히 경을 읽어주고 축원을 해주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같이 간 다른 승려들은 열심히 일심으로 경전을 읽고 있는데 반야다라 존자만이 경전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자께서는 어째서 함께 경전을 읽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빈도(貧道: 승려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는 숨을 내쉴 때 모든 반연을 따르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도 5온 · 6처 · 18계에 머물지 않나니, 항상 이렇게 백천억경을 읽습니다. 한 두권 뿐만 아닙니다."

존자는 경전을 읽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입장이다. 즉 모든 반연을 쉬고 일상생활의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경전을 읽고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경을 읽어봐야 한 두 권이지만 항상 일상 속에서 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백천억경을 읽고 있다는 논리이다.

경전을 들고 모양을 갖추어 읽는 형식보다는 경전을 읽는 그 정신으로 항상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위앙종의 실질적 개조인 앙산 선사도 사미였을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종(宗)화상 문하에 있으면서 어느 날 동자들 방에서 경을 읽고 있는데 화상이 와서 물었다.

"누가 여기서 경을 읽고 있었는가?"

"제가 읽었습니다."

"무슨 경 읽는 소리가 노래부르는 것 같으냐? 경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가?"

그러자 앙산 사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화상께서 경을 읽을줄 아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것입니까?"



경 읽는 자세나 가락에 관계없이
간절함과 정성 담겨있느냐 중시

그러자 종(宗)화상이 "여시아문…" 하면서 경을 읽기 시작하자 앙산 사미가 말했다. "그만! 그만 두십시오."

사미인지라 경읽는 소리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종 화상이 유창한 운율에 매끈한 목소리로 경을 읽어주려 했지만 앙산 사미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경 읽는 것이 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심으로 읽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 읽는 자세나 가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간경에 임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이런 것이 선종적 간경관(看經觀)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청매인오 선사는 "심불반조(心不返照)하면 간경무익(看經無益)이라"고 하여 마음을 관조하지 않으면 경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기수련 운동, 그리스도교 위협" 천주교 대응 나서

천주교계가 요가를 포함한 기(氣)수련 운동이 종교색을 띠며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정면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기수련 운동으로 인해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 본당과 기관 단체가 사례 수집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학적인 성찰이나 연구조사 단계에 머물러온 것에서 벗어난 천주교계의 본격적인 대응이라 눈길을 끈다.

천주교계 언론도 한국교회 차원의 대응을 지지하고 나섰다. 천주교계 대표적 주간신문인 가톨릭 신문은 '기수련,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다섯 차례 연재한 최근 기사에서 "기수련 운동에는 이전의 어떤 이단 사상이나 신흥 종교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들 수련단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종교성을 지닌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수련 단체들은 근본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교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신문은 또한 이미 확산되고 있는 요가나 각종 대체의학 요법들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구 차원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12일 당시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였던 강우일 주교가 '기수련 문화에 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사목서한을 통해 "기수련 문화는 처음에는 묵상이나 건강의 보조 수단으로 다가오지만 차츰 정신세계와의 교류가 전제되고 자연스럽게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신재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 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 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 香火 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 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 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 - 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 천 수 륙 재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 목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태평소 호적반 모집(매주 1회 금요일 오후 3~5시) ● 강사 : 중요무형문화재 피리 정악 이수자 이거희
※ 특전 : 본교 졸업시 그 기능이 인정되면 무형문화재 수륙재 및 범패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 032) 529-6708 / 전송 : 032) 529-6709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내리는 눈발 속에서 "괜찮다, 괜찮다"

연기(緣起)이므로 평등(平等)하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1) 불교의 첫걸음은 우리가 아는 '사물'의 세계가 주관적 욕망과 환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입니다. 주관적 욕망에 물든 환상의 세계를 상(相)이라고 하고, 그 칙칙한 점착을 벗어난 객관의 세계를 법(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相)의 세계에 집단적 무의식적으로 최면되어 있어서 객관적 법(法)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잘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습니다.

2) 불교의 지혜(智慧), 혹은 반야(般若)는 이 두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 통찰력이 고통과 갈등의 '이 편(此岸)' 세상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저 편(彼岸)'의 행복과 평화로 인도해줍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계의 실상(實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3) 오온(五蘊)은 바로 그 객관적 세계의 구성요소들(諸法)입니다. 오온을 통해 '자아'와 '이름'에 물든 주관적 환상의 세계는 폭로되고, 모든 문장과 어법은 '나'를 제거한 형태로, 남의 일처럼 순수 객관적 요소로 분석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아(無我), 나를 떠남으로써, 나는 비로소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법과 화엄의 세계, 즉 사물의 각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緣起),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하나인 세계(華嚴)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신성한 예스

이 세계를 엿보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까짓 것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듯이, 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다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뜻대로 안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미당 서정주 노인의 시처럼, 모든 인간적 흔적을 덮으며 내리는 눈발 속에서, "괜찮다, 괜찮다"고 몇 마디 해 줄 때, 그때 그 세계가 단숨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니이체는 이것을 '신성한 예스(Heilige Ja)'라고 불렀습니다.

불교 공부는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되새기면서 내 몸 깊이 각인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치들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렇군'이고, 길을 가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렇군'이며, 택시에서 요금을 승강이하다가도 '그렇군'이라야 비로소 불교의 가르침이 살과 피의 지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연기법의 자연스런 귀결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평등(平等)'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심 개념임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 제 23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번역하자면, "자아의 점착을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 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復次 須菩提, 是法 平等 無有高下, 是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 無我 無人 無衆生 無壽者, 修 一切善法, 則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所言善法者, 如來說 卽非善法, 是名善法."

직역부터 해 볼까요. "또 수보리야, 이 법(法)은 평등(平等)하여 아래 위가 없으니, 이를 일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일체(一切)의 선법(善法)을 닦으면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 수보리야, (지금) 말하는 바 선법은, 여래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은) 선법이 아니다. 이를 선법이라 한다."

학의 다리 긴 대로, 참새 다리 짧은 대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내 식대로 의역해 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객관적 세계(法)는 평등하니, 아래 위나 혹은 선악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 소식을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다. 의식 무의식적 자아의 점착과 흔적을 다 지우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최고의 지혜가 성취될 것이다. 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보리야, 내가 지금 '깨끗한 삶'이라 말한 것은 자아에 물든 더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삶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천만 아니다. 객관적 세계에는 더럽고 깨끗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 소식을 "학의 다리 긴 대로, 참새 다리 짧은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의 다리는 길고, 참새 다리는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법(法)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 학의 다리는 길어서 좋고, 참새 다리가 짧아서 싫다고 말한다면, 그는 상(相)의 세계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곳이 미묘합니다. 이 분별(分別)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오와 가치판단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문화적 집단의 수준까지, 표면적 의식에서 무의식적 수준까지 걸쳐 있는 '우상'입니다. 그 바탕에 에고가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존하고 영속시키려 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이 모든 분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 동인입니다. 나는 불교가 말하는 무명(無明)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

만일, 우리가 사물을 주관적 환상을 떠나서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如如)' 바라 본다면, 그 세계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뜰 앞의 잣나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단도직입, 그 세계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과 '차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이 객관적 세계의 차이를 가리킨다면, 차별은 주관적 욕망과 편견의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십시오.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하나의 법(法)이 다른 법들과 인연(因緣)에 의해 모여 행(行)을 형성했다가, 찰나에 멸한다면, 그리하여 우주가 찰나에 멸하는 법들의 연기적 과정(proscess)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결이 도출됩니다. "우리는 그들 법(法) 사이의 가치의 우열을 매길 수 없다!"

이 높낮이의 차별 없는 특성을 불교는 평등(平等)이라 부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고 짧음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함도 없으며, 명예도 좌절도 없습니다. 나아가, 수긍하기 쉽지 않겠지만, 삶도 죽음도 없습니다. 삶도 죽음도 없는 판에, 불교는 어디 있겠으며, 사성제 12연기며, 오온 육식이며, 연기법이며 화엄의 이치인들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불경스런 망발이 있느냐고요...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이 그 섬뜩 아득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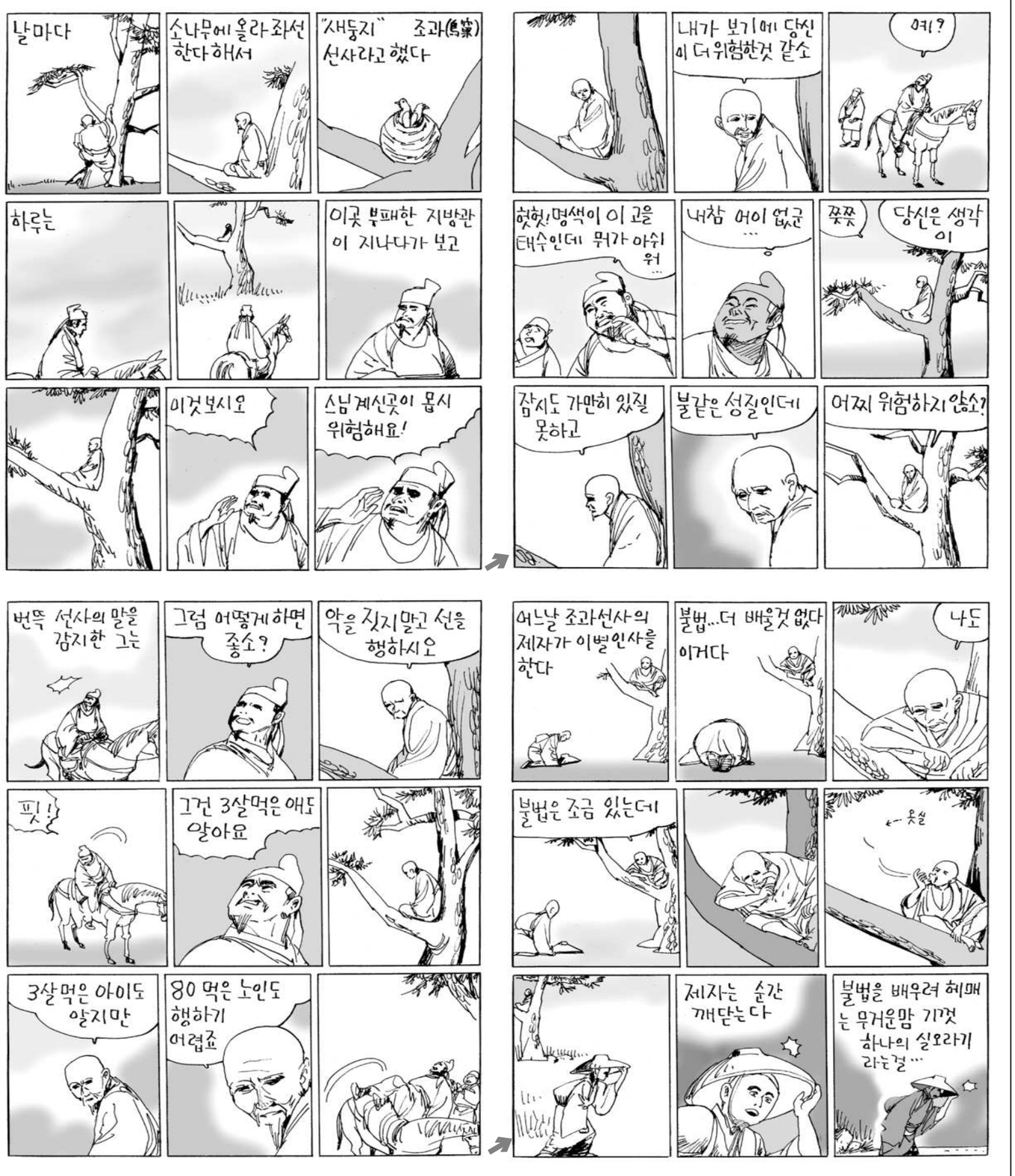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煖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無得."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⑭ 도림선사의 '위험한 곳'

조태호



도림(741~824)**선사**: 중국 당대 우두종의 스님. 절강성 출신. 21세에 과원사로 출가해 경산 법흠에게 배웠다.

네티즌 교리문답

"현양매구(懸羊賣狗)란 무슨 뜻입니까?"

문 최근 당대 최고 선지식인 송담 스님이 숭산 스님 열반 49재때, '현양매구(懸羊賣狗)'라는 법문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화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IP 불학자)

답1: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서 개고기를 판다'는 뜻 입니다. 나름대로 재해석하면, 예전에는 양과 개고기의 가치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상인이 저리한 것은 이문을 많이 남기고자 했을 수도 있고, 개고기가 양고기 보다 보양에 더 좋으나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곳의 상황을 모르니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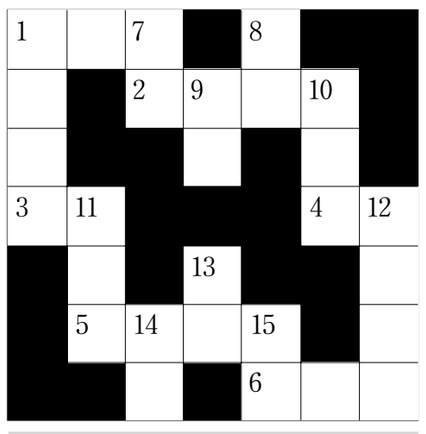
물론 사람을 속이려는 뜻이 있었다 하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용화사 선원장 송담 스님이 숭산 스님의 49재 법회 때 법문하신 것도 그 전 오고간 숭산 스님과의 양고기 개고기의 일화를 세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저런 법문이 오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고 무수한 방편을 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기를 걸어 놓고 아무 고기를 판다고 했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송담 스님이 숭산 큰스님의 49재에 오셔서 예전의 일화를 설해 주시는 것으로, 숭산당 스님을 기리셨다고 보면 까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스님 간에 예전에 오간 일화는 전후좌우의 사정을 모르니 알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또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노선승을 평하려는 것과 같은 일은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허물을 보여주셨다면 밝혀 두는 것도 후학이 따라 걸어가야 할 눈길에 빗질을 해주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은 허물이 아니고 그 이름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시니, 역대 조사 스님들도 제자들과 도반들과의 거량에서 많은 허물을 내 보이신 것도 눈길에 빗질을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한번 대오하신 분들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다 후학을 인도하시려는 현양매구겠지요. (풍각쟁이)

답2: 현양매구는 남송대 무문 혜개 선사가 묶은 48칙 무문관(無門關)에도 나옵니다. 용어가 '양주구육(羊頭狗肉)'으로 조금 다르지만, '양의 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양고기를 팔지 않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은 같습니다. <무문관> <오등회원(五燈會元)> 등이 출전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한서(後漢書)>에서는 '양머리를 걸고 마보(馬脯:말고기)를 판다'와 <안씨춘추(晏氏春秋)>에서는 '소머리를 문에 걸고서 말고기를 판다'는 등의 어구도 있습니다. <잘난 척>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독립협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세운 문 2.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살아가는 두 경극배우의 삶을 다룬 영화 3. 군인들이 신는 신발로 '워커'라고도 함 4.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남 5. 나라를 기울이게 할 만큼의 미인 6.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빠졌다는 바다.

세로

1.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7. 성명 등을 적어 대문에 다는 패 8. '금성'을 이르는 순우리말 9. 임금의 아내 10.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아프리카의 최남단 반도의 끝 11. 불교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십지품과 입법계품이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전함 12. 각 항이 그 앞의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급수 13. 산이나 높은 대지에 둘러싸인 평평한 땅 14. 정부가 빈객으로 접대하는 외국인 15. 책 속의 낱말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록.



장휘옥 · 김사업 교수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처 '세우민 센터'(사진 왼쪽)와 일본 임제종 참선 도량인 고가쿠지 등 세계의 이름난 선방을 3년동안 찾아다녔다.

전세계 선방 돌아 지금 여기에



일본 임제종 스님과 함께 서있는 장휘옥(맨 왼쪽) · 김사업 씨.

지은이는 누구

#장휘옥은 부산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화엄사상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불교학회 이사, 원효학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해동고승전 연구〉 〈정토불교의 세계〉 〈불교학 강의실 1·2〉 등 10여권이 있다.

#김사업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기업 기획조정실에서 입사한 뒤 1년 2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편입했다.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세부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일본 교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천태사상(Ch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이 있다.

도쿄대 교토대, 일본의 두 명문대학에서 각각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장휘옥(54 · 미래학 불교회장) · 김사업(44 · 오곡도 불학연구소 소장) 교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2001년 경남 통영의 외딴 섬 오곡도(烏谷島)로 떠났다.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잊지 않고 수행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두 사람은 정기 배편도 없는 오곡도의 폐교를 6개월에 걸쳐 개조해 '오곡도 명상 수련원(www.ogokdo.net)'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2002년부터 3년동안 틈나는 대로 해외의 이름난 선방(禪房)을 찾아 다녔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한국 불교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들의 그 귀중한 체험들이 최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나왔다. 바로 〈길을 걷는자, 너는 누구냐〉다.

세속 욕심 · 명예 모두 놓고
외딴 섬으로 떠난 두 불교학자
3년간 세계 누비며 체험한 禪

책의 곳곳에서는 각국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 역정은 물론 그 속에서 함께 체험하며 그들의 향훈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은이들의 수행에 대한 열정을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 도량인 고가쿠지에서 지은이들은 6번씩이나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 스님들과 함께 하루 15시간씩 좌선하고, 매일 5회씩 방장 스님과 만나 독참(獨參)으로 수행을 점검 받기도 했다.

고가쿠지의 '로하쓰 오젯신'이란 집중 수행 프로그램은 1년중 가장 추위가 혹독한 양력 12월 1일부터 8일 새벽까지 진행된다. 수행 기간에 수면 시간은 하루 약 1시간에 불과하고, 식사와 청소를 제외하고 매일 15시간씩 좌선한다. 수행처에 온기라곤 전혀없다. 아니 오히려 한겨울에도 선방의 문을 모두 열어놓고 찬바람을 맞으며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 동상은 물론, 졸다가 마루 밑으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수행자도 생긴다. 하지만 수행에 참가한 이들의 화두(話頭)를 깨치려는 열기는 바깥의 혹독한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장 회장은 "세계의 선방 수행 체험을 해보니 일본 임제종의 간화선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함을 느꼈다"며 "임제종 간화선은 수행자가 매일 스승과 일대일로 만나 화두 참구에 대한 경지를 점검받는 독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체험 후 느낀점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또 "우리나라에도 독참 전통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혼자 참선하는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觀)하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처 '세우민 센터'에서 지은이들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밤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묵언과 오후 불식을 철저히 지키는 집중 수련을 통해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렸다. 또한 틱낫한 스님의 플럼 빌리지에서는 울력, 진리 토론, 대지(大地)와 접하기 등의 수행을 하며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호흡과 걷기 명상을 통해 자각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유럽의 선방을 다니면서는 구산 스님의 제자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 선을 지도하고 있는 마틴 배즐러 · 스티븐 배즐러 부부를 비롯해 숭산 스님의 제자인 우봉 스님, 중관학(中觀學)의 세계적 거장인 스위스 로잔대학의 자크 메 교수 등 벽안의 수행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책에 옮겨 놓았다.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책에서 "수행을 하면 보잘것 없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툭하면 다투던 주변 사람들과도 웃고 지낼 수 있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좀더 거창하게 말하면, 살아 가면서 겪는 숱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바로 이들이 이 책을 바깥 세상으로 내놓은 이유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길을 걷는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 김사업 지음
더북컴퍼니 펴냄
9천원

전문가 서평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아손 그렙스트 지음 | 김상열 옮김
책과함께 펴냄 | 1만4800원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04년 12월 24일부터 다음해인 1905년 1월까지 스웨덴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가 대한제국기의 한국을 돌아본 여행기이다. 당시는 러일전쟁중이어서 일본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의 대한제국 방문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는 영국 상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밀입국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스웨덴인은 1926년 일본의 초청을 받아 조선에 왔던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로 알고 있다. 때마침 경주의 신라왕릉 하나를 발굴하고 있었기에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금관이 출토된 그 왕릉의 이름을 스웨덴의 한자명인 서전(瑞典)의 서(瑞)자와 봉황의 봉(鳳)자를 따서 서봉총이라 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그보다 20년 전에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스웨덴인 그렙스트는 1905년 을사조약 직전의 긴박했던 대한제국의 현장을 직접 찍은 140 컷의 사진과 함께 객관적이면서도 따스한 시선의 글들을 책에 담아내고 있다. 구스타프 왕자가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간데 비하여 몰래 들어온 그는 전국을 구석구석 비집고 들여다 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파란 눈에 비친 100년 전 우리

그는 직접 찍은 사진에 스스로 설명까지 달아 놓았다. 틀린 설명도 있지만 나름대로 낯선 풍물을 이해하려 애쓴 외국인의 노력이 엿보이며 그것은 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인 역자 김상열 교수에 의하여 바로잡혀 있다.

저자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지게꾼, 빨래터의 여인들, 호기심어린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때를 함께 보낸 서울의 기생들, 장엄한 황태자비(순종의 첫 부인)의 장례식 광경등 100년의 우리의 모습을 그린 이 책은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 등 비슷한 시기 외국인의 기록과 함께 한국 근대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문화민족으로 규정하며 곳곳에서 그 특징적 면모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승장구하는 일본이 그 문화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는 점, 하루 세끼만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처럼 낙천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 일본에 머물다 왔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비교할 때 머리통 하나는 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체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태도는 여유가 있으면서 당당하다고 한국인들을 표현하고 있다. 몸놀림은 일본인의 특징인 벌벌 기는 비굴함과 과장된 예의 차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자연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끝자락, 망국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운명 속에서도 선인들은 여전히 본래 갖고 있던 상냥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왜곡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역사 깊은 문화국가의 면모를 곳곳에서 확인하게 한다.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40cm × 55cm)
-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출가, 환상과 유혹을 넘어서



출가
윤영관 · 이민우 글/사진
동아시아 | 9천8백원

"머리 깎고 산에나 들어갈까?"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내뱉어본 말일 것이다. 경제가 힘들수록, 삶을 꾸려가기가 어려울수록 출가에 대한 환상과 유혹은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월정사(주지 정념)가 개설한 '단기출가학교'에 매번 수백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출가-마음을 찾아서>는 같은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TV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월정사 단기출가 1기생들의 한 달 생활을 내레이션 없이 그대로 담아낸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출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책에는 1기 단기출가생인 이민우씨(프리랜서 카피라이터)의 출가일지와 프로그램을 제작한 윤영관 PD의 제작기가 함께 담겨 있다.

14살의 문경원군부터 70세의 송광섭씨 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출가'를 감행한 52명이 같은 공간에서 한 달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사회에서 한 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휴대전화와 담배, 돈, 카메라 등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매일 감고 다듬었던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삭도기로 밀어낸다. 입고 온 옷은 사물함에 넣고 행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스친다.

그러나 막상 출가학교 일정이 시작되자 '깨달음'이라는 큰 목적은 간데없고 낯설음과의 사투가 이어진다.

"하루에 열두 번은 더 마음이 곤두박질치며 롤러코스터를 탄다. 출가를 해야지 말아야지, 동고동락하는 행자들이 좋다가 싫다가, 예불이 신성하다가 연극 같다가 한다. 태극권과 요가를 가르치는 스님은 강의 때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고르기를 잘하라 하신다. 호흡하기도 힘든데 마음 조절은커녕,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바뀐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군대 이등병'처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하다. 얼른 예불과 청규(淸規)를 몸에 익히고, '나'를 찾는 '참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만 급하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
카피라이터의 출가일지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기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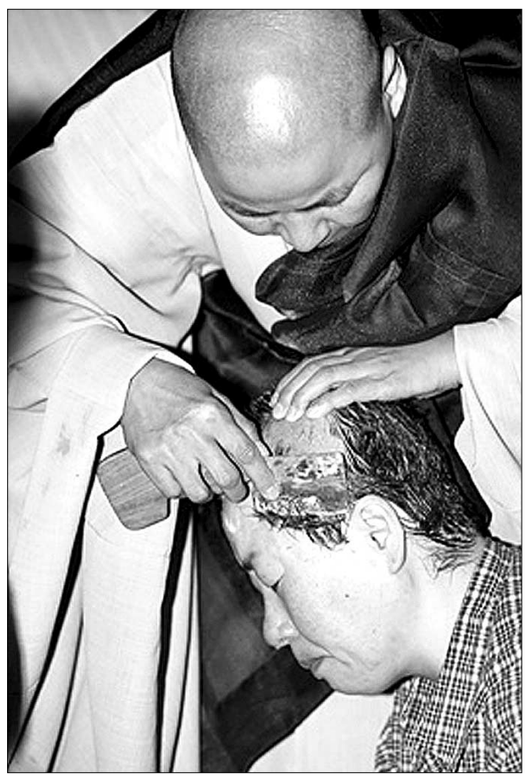
"단풍 들 듯이 중물 들면 좋겠어. 저렇게 나한테 시절 인연이 와 닿았으면 좋겠어…."

한 달간의 단기출가 과정 동안 참가자들이 얻은 것은 각자가 품은 고민의 폭과 깊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참가자 중 더러는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이도 있고, 대부분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 '지금 현재'를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그리고 단기출가학교가 '출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출가'와 '깨달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었나갔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도를 구하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킨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말이다. '단기출가학교'라는 방편은 진정한 '출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둘러보고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인들에게 '출가'는 어떤 의미일까? 세속의 탈출구로써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월정사 단기출가자들은 "마음의 출가를 먼저 하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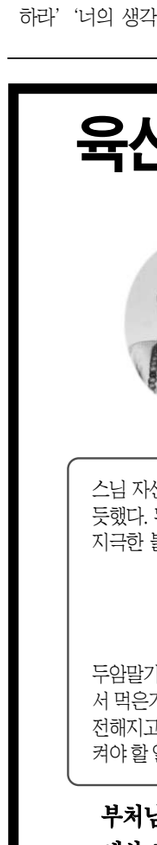
■ **<참사람의 향기>**(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펴냄, 비매품)=평생 '참사람운동(無位眞人)'을 펼쳤던 서옹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서옹상순 대종사 문도들이 펴낸 추모집. 서옹 스님의 법어와 오도송을 모은 '참깨달음의 세계', 선이란 무엇이고, 선을 오늘의 문화와 예술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과 현대사상', '참사람의 길' 등이 담겨 있다. 불교계 잡지와 신문에 실린 인터뷰와 대담도 읽을 수 있다. (061)392-7502



■ **<속을 보이는 사람들>**(해광 스님 지음, 열린출판, 9천원)=15년 동안 인천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해광 스님(금강선원 주지)의 에세이 모음집. 3만원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걸망 하나로 시작한 포교활동의 어려움과 불단과 법탁, 요사채까지 직접 만들며 포교원을 운영한 일들을 원고지에 옮겼다.



■ **<나는 사진이다>**(김홍희 글/사진, 다빈치, 1만5천원)=<암자로 가는 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인도기행> 등의 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선보여 온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 노트. 인터넷 사진 동호회에 '날 때부터 프로냐'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과 2003년 인도와 몽골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함께 모았다.



만화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 혜암 스님 글/그림 | 리빙북스 | 1만1천원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공부법 김헌식 글/그림 | 문자향 | 8천원
마음이 쑥쑥크는 불교이야기 129 양태석 글/이재순 그림 | 바다가보이는교실 | 8천원

만화로 엮어진 불교책은 항상 반갑다. 그 종류가 워낙 적기도 하지만, 만화가 주는 여백의 미와 그 속에서 전해지는 촌철살인의 가르침이 불교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는 출가 전 교편을 잡았고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혜암 스님이 펴낸 만화수상집이다. '일상' '사랑' '나라'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쓴 글과 그림을 엮었다. 수행자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시콜콜한 고민과 유혹을 짚어내고 있다. 스님은 금성출판사의 <한국인물사> <세계인물사> 등의 학습만화를 그렸다.

세속의 공부나 불가(佛家)의 가르침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선사(禪師)들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공부법>**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 '너의 생각으로 보아라' '네 공부 주제를 놓치면 죽는다' '하나에 안주하면 공부는 그만이다' 등 선사들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공부법'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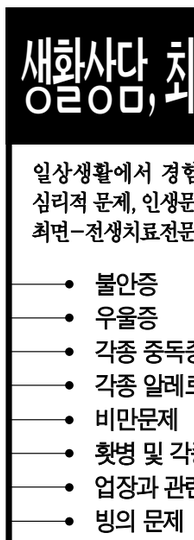
"모든 것을 깨달아 이 세계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한다"는 제자에게 스승은 "공부는 땅과 하늘 사이에서 제대로 살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책읽기만 반복하는 제자에게는 "책만 읽는 것은 그물망에 바람 넣기"라며 "책을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책에 지나치게 빠지지도 말고 자신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면 거기엔 분명 까닭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섭섭한 씨앗'을 친구의 가슴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미움이라는 싹'이 튼 것이지요"

불교경전과 계송을 가려 그림으로 엮은 **<마음이 쑥쑥 크는 불교이야기 129>**는 아이들의 '마음공부'에 도움이 될만하다. <숫타니파타>와 <자타카> <법구경> <열반경> 등에 등장하는 일화들을 쉽게 풀어쓰고 만화와 함께 엮었다. 부모와 아이가 하루 한 편씩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여수령 기자

無로 세상을 보니…



無로 바라보기
지명 스님 지음 | 오늘의 책 | 9천원

'생이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지난 2004년, 무려 5개월간 낡은 무중력 요트로 태평양횡단을 완주한 지명 스님(前 법주사 주지)은 이 물음에 대한 단상을 <無로 바라보기>로 묶어냈다. 1년 여간 일간지와 불교 잡지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모은 이 책에서는, 선승답게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화두 '무(無)'자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스님이 풀어낸 '무'는 책을 읽어가는 말머리가 된다. 여기에서 '무'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한히 변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님은 무아(無我)의 음미와 대자유를 그리며 이 무자를 쓴다고 말한다.

이런 스님의 생각은 물과 바람에만 의지해 태평양 바다를 건너면서 절감한 '물과 바람'의 가르침에서 엿볼 수 있다. 물이나 바람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다만 변하는 것은 상태일 뿐이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3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4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5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림
6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7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효림
9	숨을 기차게 잘 쉬는 법	청견 스님	붓다의마을
10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반야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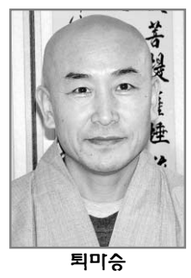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031-736-3734 · 732-3790


비나리를 부르는 사물놀이패.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판굿공연.

울림속에 인간·자연·우주 담는다

‘부모은중경’ ‘천수경’ 등이 흡수된 비나리로 시작

고깔 끝 ‘종이꽃’ 극락 상징, 삼색띠 가사·장삼의 변형


전 세계 수십 여 국가에서 2천 여 차례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김덕수 사물놀이패. 우리나라 전통의 풍물굿을 현대적인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사물놀이’는 무용음악, 재즈, 동서양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청되는 사물놀이와 불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염불가락이 풍물에 남아있는 것이나 성덕대왕 신종에 자그마한 장구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 등을 떠올리면 특정한 연결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사물놀이의 악기와 노래가사, 그리고 복식문화에 드러난 불교의 흔적을 살펴본다.

꽹과리를 연주하는 이광수 선생. 사진제공=민족음악원

사물놀이와 불교

▽불전사물의 또다른 형태, ‘사물’

사찰에는 아침저녁으로 불전사물(佛傳四物)의 법음이 울려퍼진다. 들짐승을 일깨우는 법고, 날짐승을 제도하는 운판, 수중생물을 깨우치는 목어, 중생들을 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범종 등은 원음(圓音)의 소리로 뭇생명들의 마음을 울려 불법의 진리를 전한다.

사물놀이의 ‘사물’이란 어휘는 불음을 전파하는 사물에서 차용한 것이다. 사물놀이에 쓰이는 네 가지 악기는 꽹과리·징·장구·북 등으로,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이들 네 악기는 불전사물과 형태나 소리는 다르지만 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악기의 특성상 금속성 악기인 꽹과리는 하늘로 뿜어져 올라가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한다. 무겁고 깊은 소리를 내는 북과 장구는 가죽으로 만든 악기로 땅을 나타낸다. 이를 인간이 다루고 조화시켜 하나의 조화된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불전사물을 두드리면서 생명을 제도시키는 불가의 전통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사물놀이 노래에 경전 내용 그대로 담겨

사물놀이는 ‘비나리’로 시작한다. 비나리는 사물(四物)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으로, 사물놀이 마당은 ‘관람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하면서 그 막을 올린다.

그렇다면 비나리와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김동원 교수(원광대지털대학교 전통타악연희과)는 “비나리 가사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은중경>은 효를 강조한 경전으로 유교적 전통이 대세였던 조선시대 당시 일반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같은 경전내용은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두루 독송되면서 민간에 퍼졌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민요 선율에 얹어지면서 ‘회심곡’이라는 노래로 급속히 대중화됐다. <부모은중경>외에도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경전들이 비나리에 녹아든 경우는 다양하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진철승 씨는 “충청도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천수경> 등의 경전이 비나리에 흡수된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절이 중창될 때면 사당패를 앞세운 걸립승(乞粒僧)들이 회심곡을 빠르게 소화한 비나리를 읊으며 고사염불을 담당했다. 이들의 유희로 인해 한바탕 대동의 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불사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기도 했다.

▽풍물패 고깔과 삼색띠도 불교에서 파생

풍물패의 복식문화도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법현 스님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반드시 고깔을 써야 했다”며 “현재 풍물패들이 쓰는 고깔은 불교적 전통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풍물패 고깔 끝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지화(紙花·종이로 만든 꽃을 꽃)를 만들어 꽂는데, 이 역시 불교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도 풍물패가 두르는 삼색띠 역시 스님들이 가사 장삼을 수하는 전통에서 파생됐다고 전해진다.

강신재 기자hatiswhy@buddhapia.com


12발 상모를 돌리는 지운하 선생.


삼도농악가락을 연주하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기교와 개인 기량의 조화

■사물놀이란

1978년 김용배(쇠), 김덕수(장구), 최태현(북), 이종대(징) 등 젊은 타악 국악인 4명이 네 가지 악기로 선보인 새로운 공연예술장르. 풍물굿을 모태로 만들어 졌으나 △마당이 아닌 무대 위에서 △10~15분 연주 시간과 4~6명 정도의 일정 인원을 두고 △반복되는 가락에 의지하기보다는 기교화된 가락과 기량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풍물굿과 차이가 있다.

사물놀이 초기에는 각 지방 풍물굿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쳤으나, 점차로 비나리/삼도설장구/삼도농악/판굿의 4가지 연주곡목으로 간소화

삼도농악 ‘사물놀이의 꽃’

됐다. 비나리는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로, 비나리가 시작되면서 공연무대가 열린다. 삼도 설장구 가락은 호남·영남·경기-충청의 장구 명인들의 가락을 한데 모아 새롭게 짠 것으로, 뛰어난 장고잽이가 독주를 하던 풍물굿과는 달리 연주자 전원이 독특한 가락과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삼도농악은 각 악기의 개성과 조화가 두드러지는 ‘사물놀이의 꽃’으로, 영남·호남·중부 지역에서 연행하던 농악가락 중 중요한 가락들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들었다. 삼도설장고가락과 삼도농악가락이 앞아서 연주하면서 음악적 요소를 극대화했다면, 판굿은 상모를 돌리며 여러 가지 대형을 연출하는 등 춤의 시각적 효과가 강한 사물놀이 레파토리다.

만해 스님 자료 총망라한 도록 발간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40년간 수집

광복 6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자료를 한 데 모은 도록이 나왔다.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최근 40년 간 직접 모은 만해 스님 관련 자료를 일대기 순으로 정리한 도록 <만해 한용운>을 발간했다. 만해 스님의 친필 유묵과 사진은 물론 스님과 관련한 내용의 서신, 신문기사, 시비 등이 총망라된 도록에는 150여 점의 자료 사진과 함께 그 해설까지 정리돼 있다.

도록의 자료들은 만해 스님 생전 삶의 추이에 맞춘 일곱 주제 순으로 배열됐다. ‘지견을 세우다’를 주제로 삼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만해 스님 생가 사진을 비롯해, 안중근 등 독립투사의 기개를 읊은 만해 스님의 한시 등을 선보인다. 두 번째 주제 ‘불교인으로의 지향’은 백담사 김연곡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전해준 세계지리서 <영환지략> 등 만해 스님이 출가했던 백담사 자료 중심으로 꾸몄다.

1919년 배포된 ‘독립선언서’, 옥중에서도 독립만을 되뇌었던 만해 스님의 옥중 한시·관련 신문 기사·사진 등이 수록된 ‘3·1운동에 서서’ 주제 부분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 스님의 면모가 어김없이 드러난다.

네 번째 주제 ‘침묵의 미학’은 <님의 침묵> 관련 자료로 엮었으며, ‘설중매화’에서는 애국심을 오롯이 녹인 ‘연좌도장’ 등의 친필 한시를 비롯해 선(禪)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잡지 <선원>의 권두언 자료 등을 공개했다.

심우장에서 보낸 만해 스님의 말년은 <송수첩>, <경허당 법어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우장의 정절’ 주제에서 읽을 수 있으며, 만해 스님 열반 이후의 비석이나 연구논문 등은 ‘만해가 떠난 그 후’ 주제에서 접할 수 있다.

전보삼 관장은 “이번 도록은 광복 60주기를 기념해 문광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애국지사들의 유묵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hatiswhy@buddhapia.com

서신·시비 등 150여 사진·해설 정리



을유년 설맞이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료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10,000원 → 88,000원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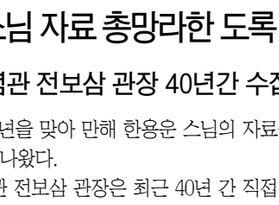
희담석 보료 한정 할인판매 (딱 1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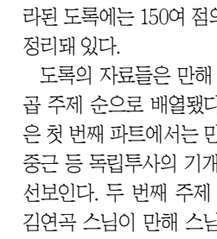
▮ 스님용 희담 보료(보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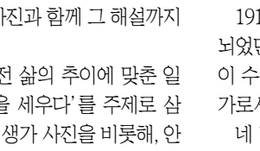

· 2,800,000 → 1,980,000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할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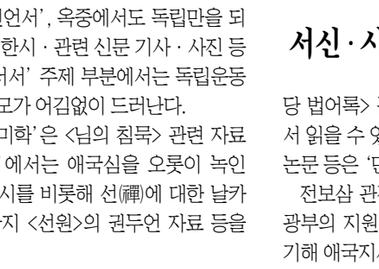
▶ 보료사이즈 : (900mm x 1,9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 1.6cm
▶ 보료의 외피 : 사무드 (고급 인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키미 20,000원
· 크기 : 65 X 65 X 10mm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희담 보료(싱글)


· 4,000,000 → 3,200,000

희담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파장의 방사능력인데,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희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원석의 두께 :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보료의 외피 : 이태리 천연가죽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료 윗면의 전자파 완전 차단

★ 행사기간동안 서울, 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외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신한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자달력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8>



가족을 불러 모으는 네가지 방법

어느 해인가 명절날 큰집에 가지 못하고 오두마니 집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호젓하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만 옆집 가족들의 왁자한 웃음소리며, 전 지지는 기름 냄새가 창을 타고 흘러들자 왠지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어 쓸쓸한 감상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날 집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가는 평소 그 집안의 가장이나 주부가 어떤 마음씀씀이로 일가친척을 대해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단적으로 '모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법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수(手)라는 이름의 한 장자가 5백 명의 장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많은 권속을 거느린 장자를 갑탄하시며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롭게 베풀라[惠施] ·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愛語] · 이익 되는 행동을 하라[利行] · 행동을 같이 하라[等利, 同事]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가지로 사람들을 포용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수 장자여, 너는 진리의 가르침에 적합하게 사람들을 참 잘 이끌어 들였구나. 만일 누구든지 법답게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4섭법을 실천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중아함 수장자경>)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나 법문에서 자주 들었던 '4섭법'이라는 법문이 바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네 가지 방법'이란 것입니다.

<아비달마집이문족론>에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풀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수행자나 가난한 이에게 음식과 약과 옷 등의 필요한 물건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베풂으로 다른 이를 평등하게 거두어 주고 가까이 거두어 주며 가까이 지니고 서로 친하게 따르는 것을, 베풀어서 거두는 일이라고 한다.

사랑이 담긴 말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기뻐할 만한 말 · 재미있는 말 · 얼굴을 펴고 평온하게 보면서 하는 말 ·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하는 말 · 웃음을 머금고 상대방보다 먼저 건네는 말 · 상대방보다 먼저 인사하면서 위로하는 말 · 좋아할 만한 말이고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건네는 말로 사람들을 거두는 일이다.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귀를 기울여 법을 듣게 하고 언제 어느 때나 법을 설하고 가르쳐 주며 바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것을, 사랑이 담긴 말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라 한다.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깊은 병이 들었거나 재앙을 만나 고생하면서 살길이 막막한 이가 있으면 곧 그곳으로 가서 자비심을 일으켜 몸과 말로 방편을 제공하고 보살피고 구제하는 이로운 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믿지 않는 이를 권하여 믿음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요, 파계한 이를 달래고 인도하여 계율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며, 인색한 이를 일깨워서 보시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요, 나쁜 소견을 지닌 이를 조복하여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서로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일을, 도움을 줌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한다.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생명을 해치는 일과 도둑질, 음욕, 거짓말, 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일을 지극히 싫어하지만 친구와 함께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로써 다른 이를 평등하고 가깝게 거두어 주며 서로 친근히 하면서 따르게 하는 것을,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라 한다."

먼저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친척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며 걱정해주는 일.

핵가족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마음 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가족들이 멀어지고 흩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음 명절에는 일가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니 집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 주부의 입장에서야 허리가 휘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명절날 휑한 큰 집보다는 비좁더라도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이 수북한 집안이 좀더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내 피붙이들이 화목해야 그 사랑이 낯선 이웃으로 번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먼저 말 건네고 안부 묻고 걱정해 준다면 일가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겁니다

작심해야 결실이 있는 법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욕심을 줄이면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는 천운 스님. 스님은 이런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 고아, 장애인 등 어려운 중생들을 보살폈다.



지상 백고좌

천운 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설날도 멀지 않았으니 올 한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지 얘기해 줄까?

첫째,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도록 노력해. 그러려면 일단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해요.

수행자라면 더욱 말이 없어야 하는 거야. 항상 쓸모 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해야 해. 망어 · 양설 · 악구 등은 시끄러운 문제의 발단이 되기 쉽지.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목적이 뚜렷한 말 빼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엄청 잘하던 어떤 스님이 있었어. 생일 때마다 나를 초대해서 잘 먹고 놀게 해줬는데, 내가 하루는 무심코 번잡스럽게 생일잔치 챙기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서운한지 다음부터는 일체 초청을 안 하더라고. 생각해봐, 초청하지 않는다고 생일잔치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입방아 한번에 몇 십 년 얻어먹을 게 없어지는 이치야.

자비로운 마음 내보자

남에게 이득이 안 되는 이야기는 화합만 깨뜨려. 친구들에게도 덕담을 많이 해 줘.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도 막상 남에게 그걸 들으면 싫은 법이거든.

둘째, 뭐든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잘 되게 돼 있어. 세상 이치가 인연법의 도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야. '부처님 일은 만사성취'란 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하면 뭐든지 잘 된다는 뜻이야. 자비로운 마음 갖고 욕심을 줄이면 부처님의 지혜도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런 지혜가 생기면 사람들을 화합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셋째, 내 생활이 양명(陽明)해야 돼. 모두가 내 행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지. 양명치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행실에 의문부호를 붙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소문이 나는 법이야.

예전에 누가 정광학원 이사장 좀 해달라기에 내가 그 학교 소문을 좀 들어봤어. '깡패학교 연애학교 도둑학교' 이런 못된 소문은 다 붙었더구만. 불교학교라 누가 일부러 험담을 했나 하고 이유를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야. 몰래 돈 받고 선생을 뽑은 거야. 학교 운영을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못 한 거지.

올해는 남을 위해 살아보자

우리 동국대도 옛날에는 최고 수준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 특히 교수 수준이 조금씩 낮아진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는 거야. 나는 선생 뽑을 때 돈 갖고 온 놈은 자격이 없다고 해 버려. 그 놈은 돈 욕심으로 왔거든. 5~6년 정도 선생을 바르게 뽑으니까 이제는 정광학원에 대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졌지.

넷째,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해. 남을 위한 일을 하란 말이야. 올해가 닭 해인데, 닭이란 놈은 남을 위한 일을 하지, 자기 위한 일을 하는 거 봤어? 노상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꼬끼오 울잖아? 닭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는 <금강경>에 잘 나와 있어. <금강경>의 요지는 다 털어버리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것은 세상만사가 '무유정법(無有定法)'이기 때문이야. 자, 지금 내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는 네 것이고 저 공기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네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지?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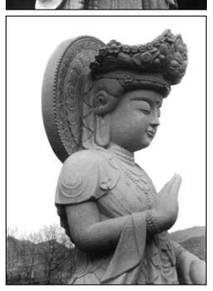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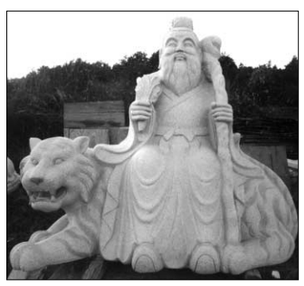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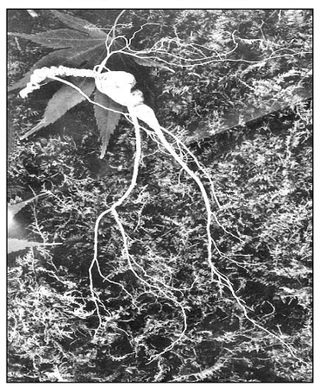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顔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기서 나오는 것이야. 내 것이라 할 게 없는데 감흘 게 뭐 있겠어. 나를 드러내니까 자연스럽게 양명도 되는 것이고, 굳이 나를 위해 따로 뭘 할 것도 없어. 이런 마음 바탕이 갖춰진 후에야 모든 게 차근차근 이뤄지는 것이야.

일단 무소유란 마음을 가지면 남을 구하겠다는 자비심, 보살심이 저절로 생기게 돼. 내 것이 없는데 남과 다툴 일이 있겠어? 남이 어렵다면 당연히 도와야겠지. 이렇게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 남을 구제하겠다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사람들의 화합을 깰 턱이 없지.

불교는 하나만 알면 다른 것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 무유정법, 무소유, 자비심, 보살심이 모두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 거야. <금강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불교의 모든 이치를 깨칠 수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무소유는 보살심의 뿌리

예전에는 스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도 실천은 못했어. 자비란 말은 들어도 그걸 실천할 길을 찾지 못했고 포교란 말은 들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만큼 현실에서 멀어진 불교였던 거야. 내가 몇 십 년 전부터 고아원, 복지관, 납골당을 세웠던 것은 경전 속의 '자비'가 곧 오늘날의 복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요새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세상에 대해 눈을 조금씩 뜨는 것 같아. 복지를 생각하는 스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야. 스님이라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절을 만들어야해. 세상이 점점 물질로 흐르면서 흉악한 일이 많아지잖아. 스님들이 복지를 안 하면 도둑놈 살인자가 엄청 나오게 돼 있어.

스님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무조건 데려가 키워야 해. 그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쳐야 해.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식 유학을 시키기 어렵지만 우리 스님들은 쉽게 할 수 있어. 미국이고 어디고 다 절이 있으니 그곳으로 학생들을 보내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불교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드물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게 다 포교이고 불교 복지 아니겠어? 포교는 종파며 문중이며 승속을 떠나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야. 포교와 복지를 연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어. 부디 명심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배웠으면 남을 위해 회향하려고 노력하길 바래.

올해에는 불자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불교하면 '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한국의 좋은 문화가 다 불교에서 나온 거야. 한의학이며 국악 같은 것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큰 스님들이 발전시키고 퍼뜨린 거야. 괜히 좌절하거나 '남 탓' 하지 말고 우리가 불교를 신식으로 바꿔놓겠다, 내 손으로 불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이런 일 하기 위해 제발 헛된 욕심은 부리지 말아. 돈 두고 죽은 몸을 내가 여럿 봤어. 돈 때문에 전부 분쟁만 일어났어. 요 근래도 문제가 터진 거 봤지? 대단하더구만. 죽을 때 사회에 다 내놔야 해. 부처님 말씀에는 하나도 그른 게 없어. 무소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비 실천 복지에서 찾아야

요새 환경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니 스님들이 불사를 하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수행자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욕먹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려고 하면 불사를 하기에 앞서 스님들 사이에서 수행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해. 여법하게 수행을 하면서 불사를 하면 과욕을 안 부리게 되지. 수행자가 속인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수행과 스님은 하나가 돼야 해.

출가를 해서 강원에서 공부를 했다면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중 하나 이상은 통달해야 할 거야. 그래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법문을 해야 불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겠어? 중생을 위한 부처님이란 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해. 수행자, 특히 스님이라면 중생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중생과 하나가 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어야 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요새 선지식 중에는 중생들이 읽기 어려운 책을 억지로 펴내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잘못이야. 몇 명이나 그 책을 읽겠어. 어지간해서 못 알아볼 책은 돈 들여 내는 게 아니야.

이제 새해야.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작심(作心)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거지. 유시유종(有始有終)이기 때문에 무시(無始)면 무종(無終)이야. 시작의 의미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는 거야. 올 한해 저마다 할 일이 많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얻게 될 각자의 몫도 다른 법이야.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모두들 초발심으로 돌아가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법이야.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천운 스님은 중생과 하나가 돼 함께 호흡할 때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교 포교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에 한평생…고아 200여명 자식처럼 길러

천운 스님은 천운(天雲) 스님은 '인재를 기르는 분'이란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스님이다. 40년 동안 200여 명이나 되는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돌본 것, 교육사업에 혼신을 다한 것만 보더라도 인재를 아끼는 스님의 각별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스님의 손길을 거쳐 간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와 한국불교의 튼튼한 대들보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화엄사 주지 당시 36명을 동시에 출가시킨 일을 늘 자랑삼아 말할 정도다. 그 때문에 성철 스님으로부터 "니가 '중 만드는 공장'이냐"는 꾸중 아닌 꾸중(?)을 듣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신다.

스님의 인재를 아끼는 마음은 스승인 지암 스님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 지암 스님은 나라를 잃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믿었다.

지암 스님이 유학을 보내준 백성욱, 김법린 박사 등은 훗날 한국불교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

천운 스님은 광주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불교대학, 어린이집, 신협 등 10여개 시설, 해남 목포까지 합치면 20여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현재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이 언제나 '현역'이다.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전남도청불자회장 등도 맡고 있다.

천운 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47년 지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56년 지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과 해남 대흥사 조실로 계시면서 향림사에 주석하고 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호 스님

법명도 참 특이한 도호(島湖) 스님은 1975년 속리산 법주사에 입산했다. 십 여 년, 그의 말대로라면 강호(江湖)를 떠돌다가 강원도 삼척의 풍곡이란 곳에다 산호정사(山湖情舍)란 토굴을 창건했다.

산천어가 노니는 물 맑은 계곡을 끼고 있는 그곳 토굴 산호정사에서 스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제법 높은 언덕받이에 위치한 산호정사 앞뜰에 이십 년 쯤은 되었을 소나무 가지 위에다 판자쪽을 엮어 매어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계곡을 응시하며 한 나절을 보내곤 하는 사람이 바로 도호 스님이다. 그는 한마디로 괴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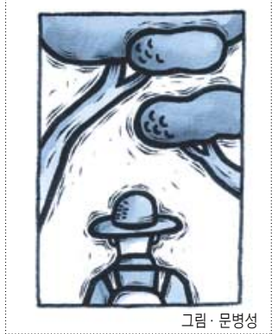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도호 스님, 그는 괴짜답게 행적도 남다르다. 글쓰기를 좋아하여 <정천한해(情天恨海)>란 특이한 이름의 시집을 자비(自費)로 출판하고 그 시집을 몇 해 후엔 증보하였으며 얼마전엔 <시로 읽는 무림천하(武林天下)- 우주는 어쩌면 눈물한 방울> 이란 긴 이름의 명상집을 내기도 했다.

빗소리

우둑커니
오두막집 마루 구석에
쥐어짜 쥐어짜 놓은
걸레같은 외로움
……
미친년 머리카락 숲에
이나 잡으리.

시 같기도 하고 무슨 법어 같기도 하고 허튼 소리 같기도 한 이런 류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한 뒤 스님은 배낭에 걸망에 그 시집을 몇 권씩 넣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혹시, 가뭄에 콩 나듯이, 책을 보시받은 누군가가 책값을 건네줄라치면 그는 아주 좋아하며 공손하게 합장하곤 했다.

속이 답답해지면 그는 몇 가지 옷을 걸망에 넣어 짊어지고 강호유랑 길에 나선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다니다가 그러한 유람인지 방랑인지가 끝나면 그는 그제야 거처인 토굴 산호정사로 연기 스며 들 듯 스며들어 기나긴 휴식에 들어간다.

죽음보다 깊은 잠이요, 죽음 같은 기나긴 휴식에 들어가 한참동안 깨어날 줄 모른다. 곰이 겨울잠에 빠지듯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잠재운다.

도호 스님, 근간에 펴 낸 명상집에서 이처럼 한스런 절규를 내뱉고 있다.

독자여,
어여삐 받아주소서.

오, 끝없는 생사의 길. 저마다 비통한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는 요즈음 시대에 차라리 지구를 절구통에 넣어 박살이 나도록 찧고 또 찧어서 허공에 뿌려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을 어찌하오리까?

독자여,

자비로 낸 시집 걸망에 담고 만행길에 무료로 나눠줘

나의 형제 오오, 나의 동료들이여.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공연히 소리 높이는 이 허약한 중생의 잠꼬대를 대자대비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독자들에게 주는 글 후기에서 이런 한스런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런 그가 이제 그의 말대로의 강호유랑을, 방랑을 끝냈는지 어쨌는지 몇 년 전부터는 아주 작심하고 여름 하안거와 겨울 동안거를 따지지 않고 꼭 선방에서 보내고 있다.

하안거를 지내고 동안거를 지내고 난 끝엔 어김없이 토굴 산호정사로 연기처럼 스며들어가서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혹은 허물어진 담장을 고치고 혹은 씻겨져 나간 텃밭을 손보고, 그러면서 그만의 보금자리에서 혼자 머문다. 곰의 한 겨울 기나긴 동면처럼 저 혼자 그렇게 지낸다. 그런 그가 어떨 때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척이나 자유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요번 겨울 안거는 덕숭산 수덕사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방부 다 들여놓고 왔어요…"

만사태평이란 듯 그는 하룻밤을 머문 뒤 이 말을 하고 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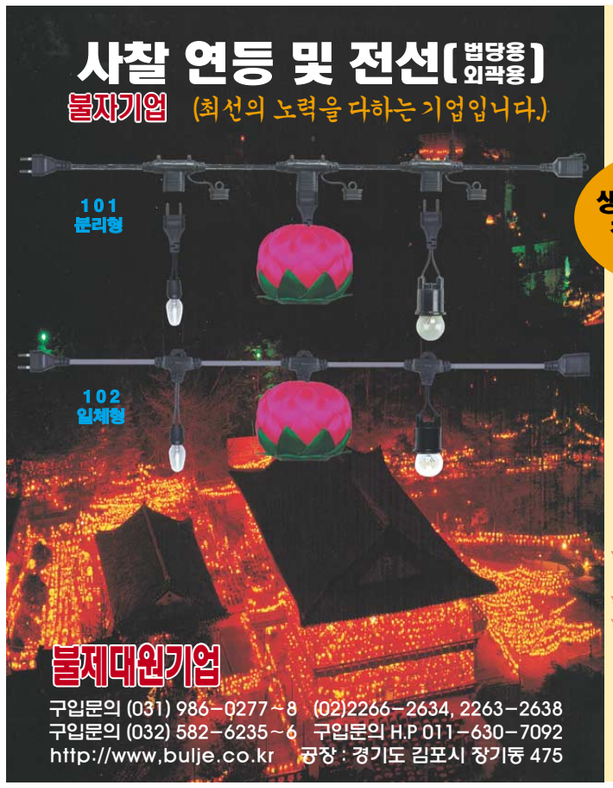
찬바람 부는 이 겨울밤에 그는 깨어 일어나 있을 것이다. 깨어 일어나 덕숭산 자락을 휩쓸고 지나가는 매서운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의 곤질기고 한스러운 고뇌가 이제 그 나래를 접고 안녕해지기를 바란다.

■ 봉화 청량사 주지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2월 9일 수요일 제 512 호



온양민속박물관에서는 명절 때마다 민속놀이 마당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온양민속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씨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온양민속박물관

설 연휴 전통놀이 즐겨요



덕수궁 박물관 내에서는 2월 10일 오후 2시 '북청 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사진제공=덕수궁 관리사무소

고궁 · 민속박물관 놀거리 풍성

"설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어디 갈 곳 없나?"

이번 설은 모처럼 긴 '황금연휴'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유난히 일요일과 겹친 연휴가 많아 이번 설 연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데 이런 긴 연휴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맞으면 텔레비전과 함께, 또는 낮잠만 실컷 즐기다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막상 피로에 지친 육체로 어디론가 발걸음을 떼려니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때, 고궁으로, 능 · 원으로 가보면 어떨까. 장롱 한 쪽에 모셔뒀던 한복을 입고 나선다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뽐내며 무료입장도 가능하다.

고궁과 능 · 원에서는 종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놀이마당을 연다. 특히 경복궁과 덕수궁, 창경궁에서는 각각 농악, 사자놀이, 산대놀이 등의 공연도 기획하고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멋을 보여주기에 제격이다.

신명나는 민속 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민속박물관에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설 연휴 내내 민속놀이마당은 물론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마련했다. 또 온양민속박물관은 닭의 해를 맞은 기념으로 닭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기록해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닭 찾고 선물받기' 행사를 진행한다.

주의할 것은 '민속박물관'이라 해서 모두 연휴에 개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궁과 민속박물관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 · 개관 한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설연휴 전통놀이 행사하는 곳

고궁 및 민속박물관	위치	주요행사	연락처
경복궁	서울 종로구 세종로	2월 9일 오후 1시 흥례문과 광화문 사이에서 '평택 농악' 공연	(02)732-1932
덕수궁	서울 중구 정동	2월 10일 오후 2시 세종대왕 동상 앞마당에서 북청사자놀이	(02)771-9952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널뛰기 등 전통놀이마당	(02)762-9513
창경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월 8일 오후 2시 양화당 앞에서 송파산대놀이	(02)762-4868
종 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행사 없음(조용한 분위기 유지), 무료입장은 가능	(02)765-0195
헌인릉지구관리소	서울 서초구 내곡동	투호 등 전통놀이 진행	(02)445-0347
선정릉지구관리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마당	(02)568-1291
태강릉지구관리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전통놀이마당	(02)972-0370
의릉지구관리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민속놀이마당	(02)964-0579
의릉영위원출장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02)962-0556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전통놀이마당 개최	(02)359-0090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마당	(031)962-6009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민속놀이마당	(031)527-7105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전통놀이한마당	(031)563-2909
홍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윷놀이 행사 등 다양한 놀이	(031)591-7043
융건릉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전통놀이마당	(031)222-0142
공순영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투호 등 전통 놀이 진행	(031)941-4208
장릉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민속놀이 한마당	(031)984-2897
세종대왕릉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매년 하는 전통놀이 행사 진행	(031)885-3123
현충사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앞마당에서 다양한 전통놀이	(041)544-2163
칠백의총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민속놀이 행사 마련	(041)753-870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설 연휴 무료개방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	(061)270-2020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민속놀이 진행 및 풍물놀이 마당 마련	(02)3704-3114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온양 3동	'닭찾고 선물받기', 연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 참여 가능	(042)542-6001
광주민속박물관	광주 북구 용봉동	민속놀이 마당 및 다양한 민속 학습자료 마련	(062)525-863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 2동	민속놀이 마당 및 가훈써주기 행사, 4인 이상 한복 입은 가족에게 연 증정	(064)753-8771

법련사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2월 매주 일요일 어린이 문화 · 환경교실

겨울방학이 무료한 어린이들은 서울 법련사에 가보자. 불교 놀이, 단청 그리기, 참선 등 다양한 주제의 문화 · 환경교실과 '한 겨울밤의 우주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법련사(주지 보경)가 2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방학 문화 · 환경교실을 개최한다.

2월의 문화환경 교실은 △6일 놀이를 통해서 보는 불교의 이상세계(오후 2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공-기운 느끼기(오후 4시) △13일 단청-연화문 그리기(오후 2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공-뇌호흡(오후 4시) △20일 마음의 행복찾기-좌선, 부모님과 함께(오후 2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공-명상(오후 4시) △27일 바람개비와 목걸이 만들기(오후 2시), 신나고 즐거운 놀이(오후 4시) 등이다. (02) 733-5367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한 겨울밤의 우주여행'은 2월 18~19일 국내 대학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희대 우주과학 교육관 천문대에서 진행된다. 76cm 크기의 반사 망원경과 각종 관측시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천체의 움직임까지를 알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장 등을 둘러보고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천문대 외에도 용주사, 경기도 박물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02)733-5367, www.bubryun.com

강지연 기자

게시판

조리사 자격증 강좌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연)은 2월 16일부터 개강예정인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반을 모집하고 있다. 3개월 과정 수강료 15만원. 양식조리사반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2개월 과정에 수강료는 10만원. (051)264-9033

노인컴퓨터교실 지난해부터 노인취업의 길잡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노인취업정보실에서는 컴퓨터 수강생 1기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2월 14일부터 시작이며 만 5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 24명 마감. (02)735-1919



대불련 수행학교 대불련(회장 김홍현)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주 석종사(주지 성담)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005년 수행학교를 연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이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참가비는 3만 5000원.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02)732-0239

독거노인 돌봐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봉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2)2203-36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독	립	문		샛		
불		패	왕	별	희	
장			비		망	
군	화				봉	기
	엄		분			하
	경	국	지	색		급
		빈		인	당	수

극장가

콘스탄틴 / 판타지 / 120분
개봉예정일: 2월 8일
감독: 프란시스 로렌스
출연: 키아누 리브스, 레이첼 와이즈 등
등급: 15세 이상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가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콘스탄틴'의 주연으로 돌아왔다. 영화 '콘스탄틴'은 '슈퍼맨', '베트맨' 등의 시리즈로 유명한 DC 코믹스의 만화 시리즈인 '존 콘스탄틴:헬블레이져'를 영화화한 작품. 인간세계와 지하세계를 모두 경험한 존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 분)은 과연 악의 세력이 점령한 어둠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터널 선샤인 / 드라마 / 108분
개봉예정일: 2월 11일
감독: 미셸 공드리
출연: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등
등급: 15세 이상



주인공은 세상 누구보다 망각의 위로를 절실히 구하는 실연남녀. 애인 클레멘타인과 헤어진 조엘은 그녀가 새로 발명된 기억절제술을 시술받아 추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홧김에 자기도 기억을 삭제하기로 한 조엘. 그러나 다시 불러온 기억의 파일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무엇을 발견하는데….

■ 설연휴 골라 볼만한 불교 프로그램

'참선 이야기' '절로 가는 길' '출가' 눈길

설연휴 방송사의 불교관련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불교방송의 '참선이야기(13일 7:40)'와 불교TV의 '절로 가는길(11일 08:20)', 월정사 단기출가 현장을 소개한 MBC의 '출가(6일 08:05)', 아리랑 TV의 '탱화(8, 9일 09:00)'가 대표적이다.

'참선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과 행장을 소개하고, '절로 가는 길'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불교현황을 영상으로 담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앙코르와트의 건축양식과 역사적 가치도 조명한다. 또 MBC의 다큐 '출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기의 모습을 편집해서 방영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방송에서는 귀성길 교통상황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10시간 특별생방송 '행복한 고향길(2월 7, 10일 12:20~22:00)'을 방송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운상관음도' 족자

새해를 맞아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집안에 모셔두고 싶은 불자들에게 '운상관음도' 족자를 소개한다.

현대적 기법으로 관세음보살의 은은한 미소를 살려낸 그림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족자형태여서 간편하게 설치, 보관할 수 있다. 가격은 마하몰 세일가로 10만원. (02)732-1520



전시

중국미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국립현대미술관 '중국미술의 오늘' 展



류우따웨이作 '설선(2004)'.

중국미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려한 산수화나 광활한 대지가 녹아 있는 수묵화였다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국미술의 오늘' 전을 주목할 만하다. 중국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맘껏 즐길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중국미술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미술의 오늘' 전에서는 '중국미술전람회' 입상작 중 중국화 46점, 유화 41점, 수채화 13점, 판화 14점 등 총 141점이 전시된다. 많은 작품 수만큼이나 작품 형태도 다양하다. 사실주의로 중국의 현재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 작품, 추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몽환적 판타지를 느끼게 하는 작품 등에서 중국 미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현대 중국미술의 대가 류우따웨이의 '설선'과 리나이웨이의 '청음', 량평의 '비 오는 밤' 등이 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월 20일까지 계속되고 이후에는 각 공동주최 미술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30일까지. (031)2188-6000

김강진 기자

애니메이션 마니아들 모두 모여라

중앙시네마, 1년간 독립애니상영전



상영작 '겨울날'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린이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독립애니'는 대체 뭘까. 서울 중앙시네마가 1월 31일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마련하는 '애니광 구출! 영화상영작전'을 주목한다면 전 세계 '독립애니'를 확실히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애니메이션이 모두 거대 회사의 막대한 자본으로 '잘 빚어진' 작품이라면 또 다른 애니메이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번 상영전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독립'이라는 말 그대로 실험 정신과 자본에 기대지 않으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립애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낯설기는 하겠지만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영작은 끝말잇기 형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들이 참여한 연작 애니메이션 '겨울날'. 3월에는 동심을 철학적으로 풀어온 것으로 평가되는 코 회드만의 작품들을 연속으로 상영한다. (02)776-9024

김강진 기자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태고종 총무원장상)

기도에 관한 몇가지 소고 (하)

서경자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그림 · 문병성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는가? 인터넷으로 뽑은 아비라 기도 안내문을 들고 씩씩하게 산길을 올라갔지만 뜻밖의 난제에 부딪혔다. 선배에게 물어물어 구입한 법복은 일단 복장 불량으로 찍혀서 해우소 갈 때를 제외하곤 사용할 수가 없었다. 저고리가 달린 광목 법복만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중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던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여비를 털어 구입하자니 서울 갈 차비가 없어서 막막해 하고 있을 무렵, 보살님 한분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자신의 여벌옷을 빌려 주시어 기도 내내 그 옷에 의지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인도 보살님'이라 불리던 그 분은 정말 인도사람처럼 이국적인 외모를 지니고 계셨는데 하루는 고무장갑을 끼고 해우소청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백련암 직원이었나 보구나.' 생각하였는데 나와 다르지 않게 기도접수를 하고 오신 분이었다.

1년에 4차례 아비라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는 그 신도님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분이 야말로 이 절의 주인이로구나. 나는 객이지 아니한가?' 순간 고개가 절로 수그러졌다.

'아비라'는 내가 해 본 그 어느 기도보다도 힘든 수행이었다. 108참회는 하겠는데 장궤합장을 하고 30분간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법신진언을 암송하고 나면 무릎이 깨어질 듯 아팠다. 좌복 밑에 담요를 겹겹이 깔아도 식탐의 무게만큼 고통의 무게도 가산되었다.

'남은 인대마저 끊어져 내 몸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공부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으리라' 이를 악 물고서 법당 중앙에 걸린 성철스님의 사진을 쳐다보며 다짐 또 다짐했다.

기도는 서울처녀에게만 힘든 것은 아니었나 보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반의 고통이 있었기에 진언을 외우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을 음미하기란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일인즉 앞에 앉은 도반의 흐르는 땀은 또 하나의 경책이 되어 마음을 잡아주었다.

앞에서 기도하신 노 보살님은 3박 4일 내내 서울에서 멀리 가야산으로 공부하러 온 젊은이를 고마워 하셨다. 기도가 끝나고 나선 내 손을 잡고 암자 곳곳에 계신 부처님들께 인사를 다니시었다. 콩을 배꼽에 넣고 그 기운과 더불어 수행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서 콩을 주문하는 소리가 빗발쳤다. 한참을 다니시다가 다음에 올 땐 콩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이 담에 큰스님 앞에 가서 야단맞겠다며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참으로 곱고 아름다웠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세가 지긋한 중년이나 노 보살님이셨기에 몸보신할 비상식량을 소지하고 계셨다. 나 같았으면 며칠을 두고 먹어야 할 양식이라 쉽게 내주지 않을 텐데도 먹을 것이 있는 자리엔 꼭 나를 불러주셨다.

정진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신음이… 기도 마치니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는 이틀 내내 아비라 기도의 고통으로 흐느꼈는데 옆에 계셨던 보살님이 포도즙을 챙겨주셨다. 포도의 힘은 위대했다. 포도의 위력을 절감한 나는 포도를 즐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돌아와 거봉 한 박스를 사서 먹었다.

박카스에 두유, 건빵 등 평소엔 먹지 않던 식품들이 수행중인 내게는 절실했다. 한 그릇에 돌아가며 커피를 얻어먹어도 더러운 줄을 몰랐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아난아, 대중에게서 무엇을 얻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절반쯤을 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틀렸다. 대중으로부터 전체를 얻느니라."

회향 후 종정스님의 하안거 해제법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내려왔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큰 님을 뵙는 것보다 젊은 내가 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식이 끝난 큰절은 썰렁했다. 인도보살님이 나의 처진 어깨를 쓸어주시며 말씀하신다.

"다시 오라는 부처님의 뜻이야. 다음에 꼭 와."

"예" 하고 희미하게 대답하였으나 중생계에 매인 몸이 언제 또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열차에서 보는 세상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구름이 어제와 다르게 보이고 초록색 논밭이 아름다웠으며 산천초목이 모두 불국토였다.

꿈같은 3박 4일이 지나고 또다시 넉 달여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직도 베갯머리에선 백련암이 떠오르고 보살님들께 받았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큰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법 동냥이라도 해야 하고 <대불정능엄신주> 또한 숙제로 남아 있다. 수선회에 동안거 방부를 들여놓고 참선중이며 <선가귀감> <육조단경> 등 선에 관한 서적들을 보고 있다.

불교에 귀의한 지 10여 년 만에 나는 원하던 책을 손에 쥔 셈이다.

원장님께서 "내년에도 주임이 싫으냐?" 고 물으시면 못 이기는 척 수락할 생각이다. 그리고 아기부처님들과 열심히 땀 흘리며 생활할 것이다.

"본래 한 물건이 있어 그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데 물건을 잡아 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객입니까?"

선계와 속계가 공존하는 곳 백련암. 구름과 가까이 위치한 선계에는 수도승과 고수인 수행자들이 청정도량을 지키고 있고 산을 내려다보면 전등 빛이 하나 둘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속계가 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 길이 깨끗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길을 갈 수 없는 건 중생의 두터운 업이리라. 내 이생에서 할 일을 마친 후에 구석의 한자리를 얻어 앉아 더불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 野好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1일(화)	인천 항주	OZ359 전용차량	11:00 12:50 13:50	인천공항 3층 출국장 B~C카운터 7번 테이블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중국 항주 도착 항주의 아름다운 서호, 비래봉, 영은사 관광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철도 대하(4성)	중:기내식 석:현지식
2일(수)	항주 영파	전용차량	전 일	호텔조식 후 항주 출발. 영파 도착, 아육왕사, 태백산 천동사 순례 석식 및 호텔투숙 HOTEL : 녕파대주점(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목)	영파 보타산 낙가산 보타산	전용차량 선편	전 일	호텔조식 후고속훼리 편으로 보타산 이동 불긍거관음원 참배 선편으로 낙가산으로 이동 후 5배 나한탑과 관세음보살을 모신여러 사찰들 참배 후 보타산으로 귀환,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보타산대주점(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금)	보타산 상해	전용차량 선편	전 일	호텔조식 후 보타산의 대찰 보제선사, 고찰 법우선사 등 순례 고속훼리 편으로 보타산 출발 상해 로조항 도착 시내 이동(약 1시간 20분)석식 후 황포강가의 야경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화정그랜드(4성)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5일(토)	상해 인천	전용차량 OZ366	08:00 16:30 19:05	호텔조식 후옥불사 순례 후 중식 공항으로 이동 상해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함사항 : 항공,호텔 2인 1실 기준(4성), 일정상의 식사, 차량, 관광지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훼리
- 불포함사항 :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상외의 비용 및 가이드팁 & 기사팁 여권 및 비자 수수료
- 신청방법 : 전화예약 후 은행송금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2005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학 년	강의내용	교 수 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전수교육조교 이기봉	50명
2학년	각배과	준 보 유 자 김구해	50명
3학년	영산과	전수교육조교 마일운	50명
이 론	불교의식각론	교 수 심만춘	-

2. 응시자격
승려 ·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5년 2월 10일 ~ 3월 4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5년 3월 5일

7. 입학일
2005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 392-3234
종 무 소 02) 392-3007~8 / 팩 스 02) 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담양 댓잎차


안동 국화차


무안 연꽃차

지자체 지역특산물로 '차' 육성 활발

'녹차'가 보성과 하동 등지에서 지역경제 활성 견인차로 떠오르자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도 댓잎과 국화, 뽕잎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용차를 특성화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건강'이 일반인들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차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다양한 차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미에 발맞춰 지자체들이 대용차 생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담양 댓잎차와 무안 연꽃차 등은 전국적인 배급망을 통해 벌써 차인들의 찻상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들이 육성하고 있는 차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차, 농가소득의 '효자'

▶전남 담양 댓잎차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산업과 연계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군은 최근 대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중 차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댓잎차. 담양군과 전남대가 3년여에 걸쳐 지난 2002년 개발한 댓잎차는 지난해 티월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후 스위스 뱀부슈링크사에 10만 달러(한화 1억 2천여만여원)어치를 수출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이 댓잎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이다. 80년대 이후 플라스틱 제품과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대나무 수요가 급격히 줄자 군은 대나무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업체, 학교와 함께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주민과 공무원들을 중국과 일본 등으로 견학 보냈고, '대나무잎을 이용한 식품 개발연구' '죽엽의 약리효능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나무가 고혈압, 뇌졸중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2003년 11월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댓잎차는 '웰빙' 열풍과 '그린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국내에 시판되기도 전에 해외에 수출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해 담양 지역에서만 댓잎차와 댓잎 분말을 생산하는 데만도 10여 톤의 생 대나무 잎이 소요될 정도다. 또한 담양군은 '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댓잎차는 피를 맑게 해주고 숙취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며 "댓잎차는 올해 30만 달러, 내년 50만 달러 정도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경북 안동 국화차
시 지원 아래 다양한 신상품 개발

경북 안동시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화밭이다.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를 비롯해 금계리, 성곡리 등에 펼쳐진 1만여 평의 국화밭은 국화가 만개하는 가을이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 지역의 국화재배가 활성화 된 것은 토질과 일교차 등 국화 자생에 알맞은 기후조건 때문. 다른 지역보다 국화의 향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을 국화를 말려 찻잔에 띄운 국화차는 예로부터 몸의 열을 내리고 두통과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사에서도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국화차를 즐겨 마셨다고 전한다. 이러한 국화차의 전통을 되살린 국화 재배농가는 최근 국화차를 비롯해 금국차, 꽃마실 국화차, 황국차, 가을신선 국화차 등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 안동시 역시 국화 생산자가 국화차를 제조,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화차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무안 연차
축제, 가공공장 설립 등 활용 다각화

전남 무안군은 일찍부터 '연(蓮)'의 상품성에 눈뜨고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왔다.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회산 백련지는 10만여 평 규모로 동양 최대의 백련 서식지. 60여 년 전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저수지였으나 영산강 하구둑이 건설된 후 백련지로 탈바꿈했다.

무안군은 백련지를 중심으로 연꽃이 피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무안 백련대축제'를 개최해 백련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연꽃차, 연잎차, 연향차, 연근과립차 등 연을 활용한 다양한 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인근의 함평군도 해보면 용천사와 합평읍 등에 백련지를 조성하고 백련차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등 백련을 활용한 차 산업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 부안군은 들국화차를, 양잠 주산지인 경북 예천군은 뽕잎을 이용한 '참뽕잎차'를 출시해 홍보에 나섰다. 바야흐로 '차'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령 기자

주홍걸 교수 '운남 보이차' 펴내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보이차. 그러나 갑작스런 유행만큼이나 그 해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 시판되는 보이차 중 '가짜'가 많다거나, 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진짜' 보이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만 믿고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일 것이다.

중국 국가차예사 자격 심사위원이자 윈난성차산업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홍걸 교수(중국 윈난농업대학)는 '운남 보이차'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전문가다. 주 교수는 최근 국내에 소개된 <운남 보이차> 서문에서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이차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며 "21세기 건강음료인 보이차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 생산지 효능 등 정보소개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길"

후발효차인 보이차는 그 독특한 맛과 향으로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압을 내리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막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차에 대해 주 교수는 윈난 지역의 차 자생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차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동안 차에 소량의 물을 뿌렸고, 이로 인해 냉 발효가 진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 교수는 육안으로 보아 곰팡이가 폈거나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것은 좋은 보이차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공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이차는 우려낸 찻물의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맛이 달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보이차의 역사와 주요 생산지역, 보이차를 만들기에 적합한 차나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남 보이차의 화학성분과 주요 효능, 시대별 보이차의 흐름, 보이차 다예 등도 짚어본다. 특히 '보이차의 올바른 구매와 보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보이차의 연대별 특징과 찻잎 구별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고려 모든 의식에 사용…연고차 절정기 중국

고려시대 ⑤

차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송나라에 사신이 오가며 차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상인들에 의해 많은 양이 수입됐다. 다농(茶農)들에게 생산을 무리하게 독려해 도자기나 동(銅), 차 등을 생산하던 농민과 장인들이 산지에서 도주하는 일도 생겼다. 이때는 국가의 모든 제의는 물론 기우제에까지 차가 쓰였다.

중국은 <대관다론>의 저자 휘종이 등극하면서 차 전매제를 다시 실시하고 차의 고급화를 촉진하게 된다. 선가(禪家)에서는 '선원청규'를 관례화하고 <몽계필담> <북원공다록> 등의 다서도 계속 나와 연고차의 절정기를 맞았다. 일본은 사찰이나 왕실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간혹 보이고 투다(鬪茶)의 풍습도 일부 있었다.

① 의천이 미복(微腹)으로 송나라에 가서 천태종의 경륜을 터득하고 불교경전 1천여 권을 가져왔다.

② 통도사 사적록에 절터의 사방둘레 12곳에 장생표를 세웠다. 동을산 쪽에 있는 다촌(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던 곳이다.

③ 이정공이 선지(宣旨)를 받들어 흥왕비를 세우는데 비단, 은그릇, 다포, 말안장 등을 내렸다.

④ 왕(숙종)이 왕비와 원자 등을 거느리고 삼각산 승가굴(상장사)에서 재를 올리며 차를 내렸다.

⑤ 최사추와 곽여가 예종에게 차를 하사받고 시를 지었다.

⑥ 이 책은 고승(高承)이 찬한 것으로 납차, 용차(龍茶), 소단(小團), 석유(石乳), 각다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⑦ 휘종황제 조길은 송나라 연고차의 모든 것을 기록한 <대관다론>을 저술했다.

⑧ <동재기사>는 범진(范鎭)이 찬한 책으로 이 시대의 다세와 몽정차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⑨ 차를 국가에서 관장.

⑩ 심괄:<몽계필담(夢溪筆談)>에 당시의 다세와 교역이 적혀있다.

웅번: 송대 다학자로 <선화북원공다록(宣和北苑貢茶錄)>에서 건천차(建川茶)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⑪ 진사도: 송대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다경서(茶經序)'를 남겼다.

⑫ <대관다론>은 송차(연고차)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다.

⑬ 채경은 송대인으로 황제가 직접 점다한 차를 함께 마신 기록이 <설부삼종>에 전한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고려시대	1082 만복사 건립 1085 금강도량 7일 동안 열다 의천의 입송(入宋) ① @ 통도사의 장생표 ② 1090 송나라 상인 150명이 토산품을 바침 1095 전쟁 승리로 다약(茶藥) 하사 1097 흥왕사에 다기, 다포 하사 ③ 1099 왕이 상장사에서 재를 올리다 ④ 1102 해동통보 발행, 우란분재를 행함 1104 왕이 옷과 다향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1107 신하들에게 다약과 은합을 내림 1108 동소(銅所) 자기소 등 별공물을 과다하게 징수해 장인들 도주 @ 최사추와 곽여에게 차를 내리다 ⑤	송대	1080 각다법·다마법 개정, 사물기원(事物記原) ⑥ 1082 휘종의 등극 ⑦ 1085 <동재기사(東齋記事)> ⑧ 차전매제 다시 실시 ⑨ @ 심괄(沈括), 웅번(熊蕃)의 활동 ⑩ 1102 진사도의 죽음 ⑪ 1103 선원청규 간행 @ <대관다론> ⑫ @ 채경(蔡京)의 활동 ⑬	헤이안시대	1083 원의가(源義家)의 3년전쟁 @ 투다 풍습 1102 백하상왕(白河上王)의 축연에 다례를 행함





내 마음의 등불만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요?

문 스님께서 마음 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절절하게 일러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저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요?

답 항상 하던 말이지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뼈에 사무치리만큼 안타깝습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지 못할까요? 어찌 그렇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자기를 끌고 온 장본인을 믿질 못할까요?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진화를 하면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대로 끌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태양이 잘못하고 잘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잘못돼서 행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이 속으로부터 자꾸 나오면 그것을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놓고 침착하게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참선입니다.

나는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슬그머니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변화돼서 돌아갈 때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 부모가 됐다가 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사생의 천차만별의 생명이 뒤바뀌지면서 돌아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 자식이고, 어떤 것이 내 부모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디다. 풍뎅이도 그렇고 가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남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연방 변질이 되고 바뀌어서 돌아가니까 행복도 잠시 잠깐이죠,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 돌아가는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49년을 설하셨으면서도 한 마디도 말한 예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하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천상천하유아독존이거든요. 지렁이 소굴에서는 지렁이가 높고 호랑이 소굴에서는 호랑이가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높은 거예요. 저마다 다 높고 저마다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따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없죠. '내가 마음을 내서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했다.'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 줬다.' 이럴 수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해 드리죠? 전깃줄과 전깃줄, 전자와 전자라구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하고 모습은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이와 닿을 때, 나도 간절한 마음이 함축이 돼서 가서 부딪치면 불만 번쩍 일어났지 이 즐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 즐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로서 이쪽과 저쪽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는 반면에 '밝게 광명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하여간에 모두가 99%는 부처입니다. 중생을 끼고 다녀서 걱정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와짝 붙으면 불이 들어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하신다면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고'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컴컴하게 삽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소화시켜서 똥 누고 싶으면 시원하게 똥 누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꿈입니다. 한 시간의 꿈! 한 시간의 꿈을 홀떡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끌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배우들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주어진 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잘하는 대로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소임을 맡아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남한테서 받아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감독이 돼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옥황상제도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라는 것도 벗어나야 부처입니다. 태양과 산하대지는 그대로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광명을 이루고 창조를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이럭하는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모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도 돌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가 둘이겠습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든 백인이 말입니다, 리어카에다가 깡통, 병 이런 것만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다리가 아프고 지치니까, 가다가 언덕에 이르니까 그냥 허덕허덕합디다. 그걸 보는 순간 '참, 모두가 자기가 한 대로 저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왔구나!' 개미가 왜 개미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백인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개미들이 소임 맡아 가지고 나온 거나 뭐가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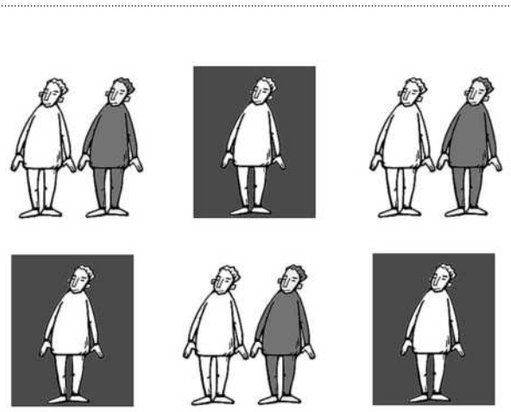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버리면, 호랑이는 양쪽 팔, 다리를 모두 떼어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짐승들이 오는데 창자 먹는 놈이 있고, 살 뜯어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뼈에 살 붙은 걸 떼어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아주 차례차례로 그렇게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뜯어 먹고 뼈다귀만 남으면 그 때는 개미 차례입니다. 그 뼈다귀 속에 들어 있는 거를 다 먹거든요. 그래, 그 백인이 그렇게 하고 가는 거를 볼 때 개미 생각이 퍼뜩 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개미 좀 봐!' 하구요.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과거에 즐겼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사람 개미로서 저렇게 소임을 맡았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망했다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내 탓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모두 얽히고 얽혀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만이 그 얽힌 거를 풀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업이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관법(觀法) 즉, 지켜봐라 이거죠.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다스려 가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급하게 닥치면 아예 잊어버리곤 방방 뛰어요. 나온 자리에다 다시 놔야 할 텐데, 내보낸 자리에다 도로 놓고, 내보낸 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래야 빨리 수습이 되는데, 엉뚱하게 딴 데다가 전부 깔아 놓고는 온통 팔팔 뛰니까 이건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돌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서야 놓으니 이미 차 지나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있으면 촛불재를 하게 될 텐데 촛불을 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불을 켜는 거지 그냥 켜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데서 켜는 불은 가랑비가 쏟아지면 꺼지지만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이 아닙니다. 보이는 불과 보이지 않는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마음의 촛불은 항상 켜고 다니는데, 내가 어떠한 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을 꺼뜨리고 갈 때는 캄캄합니다. 마음의 불을 껐을 때는 캄캄합니다. 그럴 때 남이 촛불을 켠 걸 보면 바로 또 마음의 촛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안 켜는 것도 안 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촛불을 켜고 이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켜 놓는데 얼마만큼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켜야 되겠죠. 자기 주인공은 잊지 마시구요. 세세생생에 내려온,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하여튼 내 마음의 등불만은 절대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림 · 최주현

나를 발견하고 나서의 공부 방법

문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일차적인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모든 건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으십시오.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수억겁 전부터 이끌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이끌어 온 자기 근본자리를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일체 생활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은 일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 놓고 가고 있습니다. 수억겁 전부터 자기를 진화시켜서 사람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의 근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겁니다. 제대로 놓고 간다면 모든 일에서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간다면 생활이 심성과학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뭐를 하는가? 몸속에 든 내 중생들을 둘로 보지 않고 부처와 나와도 둘로 보지 않고, 일체 중생과 나와도 둘로 보지 않는 도리를 습득하게 됩니다. 둘로 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와 자가, 자기와 자기를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스스로 움죽거렸다 하면 자가 되고 가만 있으면 부가 되니까 둘이 아닙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은 도랑 한울에서, 즉 하나로서의 마음을 내게 하는 겁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공,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둘로 보지 않을 것.

다음에는 모든 걸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일체가 수록된 대로 하나하나 풀려서 나올 때에,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서 처음에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놓고 실험을 하면서 체험한다면 자기 중생들을 제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하나 업보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화해서 보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살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음과 양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음과 양을 통해서 돼지 소굴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과에 의해서 뭉쳐진 그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파헤치고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나에게, 모두 각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발견한 그때서부터 비로소 '공부'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수행의 여건을 아주 치밀하고 무겁게 하게 되지 가볍게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있는 거든지 마음이 없는 거든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 반면에 모든 것은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너 나가 없이 그렇게 스스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은 나를 발견해 가지고서도 공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 가지고 한창 예민해졌을 그 무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는 좋은 게 보이면 부처님이 보였다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마구니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면서 버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또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극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당차져야죠.

그러니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다, 일체 환상의 꿈이든지 생시든지, 환상에 부처가 나오든지 귀신이 나오든지 어떠한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항복을 받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둘로 보지 않는 것이죠. 모든 환상에 끄달리지 않고 수련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말입니다. 수없이 나오는 대로, 컴퓨터에 수록이 된 것을 다 무심(無心)으로 돌려서 화해지면 모든 중생들이 천백억화신으로 화합니다.

내 몸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하고 내 몸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중생들부터 제도해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바로 그때서는 삼십이상의 금강신으로서 구족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넘어서서 자기가 완성됐을 때, 자기 몸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바깥의 경계와 안의 경계를 또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특단의 수행방편이 필요한지요?

문 내 안에서 들끓는 의식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지요? 어떠한 특단의 수행의 방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저희 앞에 펼쳐지는 외부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예전에 강태공은 곧은 낚시를 넣고 앉았으면서 영계를 다스릴 때에 명령을 해서 다스렸다 합니다. 노자(老子)는 영계를 다스릴 때에 영원한 나의 친구로서 나와 둘 아니게 다스렸다 합니다. 또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고 영계를 다스렸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다스린 것이 정(正)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내가 그대로, 닥치는 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해 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외부의 나가 그렇게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서야 외부의 그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야, 명령해서 쓰는 게 옳으냐, 영원한 친구로서 나와 둘이 아니게 쓰는 게 옳으냐, 촛불을 켜 놓고 쓰는 게 옳으냐?' 했을 때 제갈공명은 촛불을 켜 놓고 썼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고 또 켜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조금 더 있다가 갈 것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물질로써는 절대로 거기에 눈을 뜨지 말라 하는 거죠. 물론 나의 내면세계의 그 모든 것을 알고서야, 파악하고서야 이해가 가고 또 가늠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30면으로 계속

왜 컴컴하게 사십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사세요!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던지고 빼버려야

☞29면에서 계속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뿌리입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곧은 낚시를 넣고 아무리 있어 봐라. 네가 명령해서 한다면, 말하자면 군사를 모을 때에 분산되기가 쉽고 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백천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노자는 부처님의 뜻을 그만큼 둘이 아니게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깨 한 알갱이를 심는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시간을 두어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식이란 것은 찰나찰나 바뀌어서 화할 수가 있으니 한 찰나에 한생각이, 그 한생각이 수천수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법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고 물바퀴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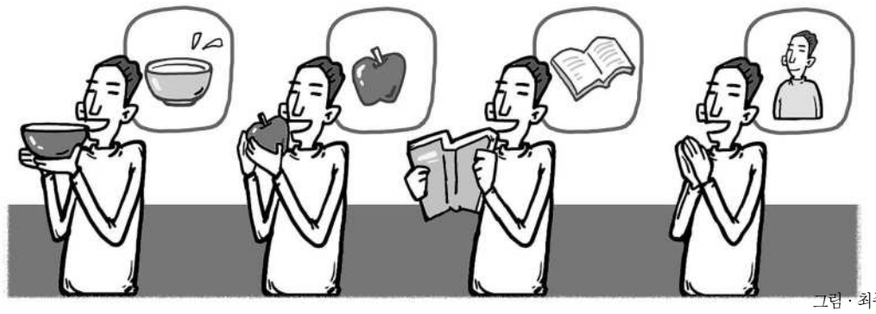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냥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극한 믿음과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 적게 잡아도 십일억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숫자를 어떻게 따지리까마는, 십일억이 넘지만 십일억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만약에 그 십일억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깨알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없이 수만 개가 됐다가, 아니 억겁에 이 세상 대천세계를 꽉 덮고도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말입니다. 그 많은 것이 다 벌떼 일어나듯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도 하나가 일어났다 하면 수십 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막는 놈은 적고 해하게 하는 놈은 많아진다면 그 집은 쓰러지는 겁니다. 좀 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빨갛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빨개집니다. 노랗게 생각을 했다 하면 전체가 노래지는 것이고, 악으로 나오는 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할 때는 전체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묶어 놓지도 않았는데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四聖諦)를 설할 때 고(苦)라는 문제가 제일 첫번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악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고 선으로 가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거든지 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자성불이라고 합니다.

본래자성불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가하니 마치 맷돌처럼 물건만 넣으면 저절로 갈아져 나오고 맷돌이 이탈을 안 하고 잘 돌아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심봉을 꽂지 않는 맷돌은 이탈을 하게 되고 물건이 잘 갈려 나오질 않아서 사는 데 복잡하고 배고프고 추운 문제들이 나오면서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도 갈 수 있고, 또는 화목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넓게 보지도 못하며 또 그렇게 좁아서 살기도 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이 알아들지 못하고 감지를 못한다면 좋은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러분이 먹어 보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그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세계의 그 살림살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 바깥의 살림살이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내 안의 불성이 어디에 있나요?

문 본래 있는 나의 근본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안의 불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 여러분이 열쇠고리라면, 그 열쇠를 불성이라 한다면, 늘이면 백천 개로 될 수도 있고 줄이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공안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공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휴! 참 세월은 무상해!" 이렇게 말씀들 잘 하시죠? 무상하다고요. 그런데 무상한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항상 고정됨이 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내가,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을 쑥 던지고 빼 버린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바르게 선정도 베풀고 올바르게 물리가 터져서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물질이라는 거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부서지고 썩고 그러면서 돌아가니 무상입니다. 무상!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게 허무해서 한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일체 만 가지 생활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저 태양은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산하대지는 만물만생을 길러낸다.' 천지가 둘이 아니요. 애들을 기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수화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수화풍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 생명이지 딴 생명들이 아니에요. 나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불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데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불성이 하나요, 또는 흩어지면 불성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불성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부처라고 했고 무(無)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좇아 나왔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나온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입력이 돼 있는 대로 솔솔 지금 현재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아상이 있어서 죄를 짓고 무기력해서 죄를 짓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고 불순해서 죄를 짓고, 그저 평등하게 생각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죄 지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의식들이 차원에 따라서 전부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고 금은 금방에 모이듯이 자연적으로 그냥 모이죠? 저절로. 그러니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고 볼 수밖에요. 전부 입력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팔자 운명을 어디 가서 한탄을 하겠습니까. 자기 탓이지. 그러니 잘했든 못했든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악과 선도 놔라 했습니다. 그걸 놓지 않는다면 악으로 간다면 선이 따르고 선으로 간다면 악이 따르니 악과 선도 놔라. 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한 게 없어진다. 입력이 됐던 것이 다 없어지면 홀연히 자기는 밝아질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너 때문에 나는 살고 너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사랑도 값비싼 사랑을 해야지 값싼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요 착이요, 욕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만 없다면 고정된 게 하나나 있나? 그러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했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안 할 때는 부처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움죽거렸을 때는 바로 활용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미래에 그 수박씨를 심어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는 되남을 테니까요.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필요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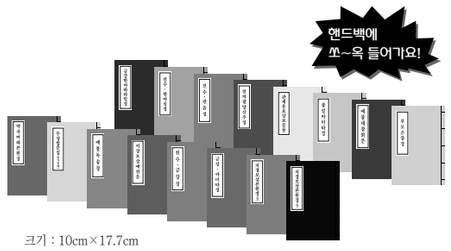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법보시로 좋습니다.

포켓용 한장본 불서 안내



크기 : 10cm×17.7cm

■금강반야바라밀경	142페이지	3,000원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2,500원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2,500원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2,5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2,500원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2,500원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2,500원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2,500원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2,500원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2,500원
■예불독송경	89페이지	2,500원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2,500원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3,500원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3,500원

호신불 열쇠고리



앞면 뒷면1 뒷면2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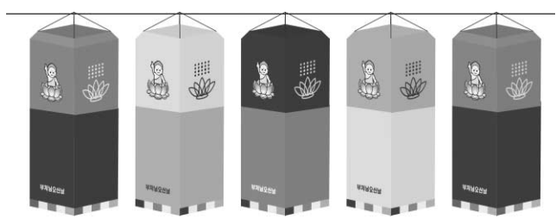
호신불 카드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제작 하였습니다.
■크기 : 대-4.9cm×7.8cm
소-3.6cm×6.1cm
■24K 순금 도금



앞면 뒷면1 반야심경 뒷면2 광명진언 뒷면3 소원성취부 뒷면4 차사고예방부 뒷면5 삼재소멸부

봉축위원회지정 초파일 청사초롱



■미리 주문하세요.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색상 : 분홍, 노랑, 군청, 연두, 빨강

코끼리 옴자 상패

■크기:가로27.5×세로17×높이24cm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대표전화 (02)723-4306 홈페이지 : http://www.gamro.net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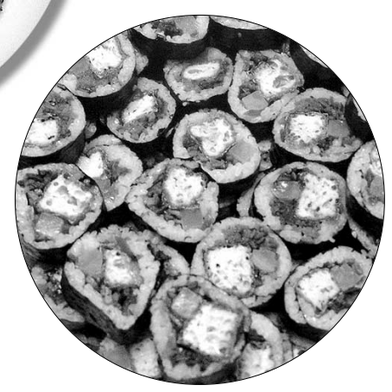
512-31 2005.2.4 2:43 PM 페이지 1 (1,1)

설 연휴 '사찰 어린이 간식' 만들기

건강이 보이면 설 더욱 신나요



◀ 애호박냉이전



△퓨전 두부김밥

재료: 쌀, 다시마, 김, 두부, 우엉, 당근, 시금치, 단무지,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간장, 조청, 소금, 통깨

1. 두부는 굵고 길게 썰어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고 170℃의 식용유에서 노릇하게 두 번 튀긴다.
2. 채 썬 우엉은 들기름을 두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간장과 조청을 넣어 졸인다.
3.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소금간하며 기름에 살짝 볶는다.
4.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친 뒤 소금, 참기름과 함께 무치고, 단무지도 준비한다.
5. 쌀에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지어 소금, 참기름, 통깨로 간을 한 뒤 김 위에 얇게 펴고 김밥을 싼다.



△무전

재료: 무, 밀가루, 소금, 식용유, 사과초고추장(사과, 고추장, 식초, 통깨)

1. 무를 곱게 채 썰어 소금을 넣어 버무린다.
2. 무에 물기가 생기면 밀가루를 넣어 되직하게 반죽하여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숟갈씩 떠서 전을 부친다.
3. 사과초고추장: 사과를 강판에 갈아 고추장, 식초, 통깨를 넣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4. 무전에 초고추장을 얹어 먹는다.

나물, 부침개, 탕국…설날 상다리가 부러지게 올라오는 음식들이지만 아이들은 몇 입 먹다말고 남기곤 한다. 대신 입맛 까다로운 요즘 아이들은 세뱃돈을 털어 과자나 사탕, 콜라, 햄버거 등 군것질을 하며 설 연휴를 보내기 일쑤다. 유난히 긴 올해 설 연휴동안, 집에 있는 재료로 아이들 입맛에 맞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간식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이 '사찰 어린이 간식' 요리법을 알려준다.

차례 올리고 남은 야채 이용, 칼로리 낮고 맛 담백



선재스님이 사찰간식인 애호박냉인전을 부치며 아이들에게 조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스님, 야채로만 전을 부치는데 맛있어요? 왜 고기는 안 들어가요?"

지난 1월 30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사찰 어린이 간식 만들기' 시간. 올망졸망 모인 50여 명의 아이들은 애호박냉이전을 준비하는 선재 스님에게 호기심이 가득 어린 질문을 던진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음식에 꼭 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는 건 아니지"라고 대답한다.

스님은 애호박을 반으로 갈라 한쪽은 곱게 채 썰어놓고, 남은 애호박은 굵은 강판에 갈아 준비해둔다. 냉이도 깨끗하게 씻어 송송 썰어 놓으니 준비가 끝났다.

손질한 애호박에 밀가루를 넣어 찰 지게 반죽하고 중간 중간 소금으로 간한다. 마지막으로 냉이를 조심스럽게 반죽과 섞는다. "이때 냉이 특유의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이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익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킨다.

한쪽 면이 익은 전 위에 고명으로 고추를 얹어 노릇노릇하게 지지자 여기저기서 "스님! 저 주세요~" "저도 주세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제일 먼저 애호박냉이전을 먹은 김혜양(11)양은 "야채는 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서 신기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매일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조희진(10)양도 거든다.

함께 요리하며 가족간 화목 다져

이날 참석한 주부 조미일(47 · 서울시 안국동)씨는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라서 연휴동안 식구들과 다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조리법을 꼼꼼히 메모한다.

선재 스님은 "자극적인 것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약이 되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사찰음식으로 간식 만드는 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김밥 하나를 만들어도 햄이나 계란 대신 아이 두뇌발달을 돕는 두부를 튀겨 넣거나, 호박이나 무처럼 담백하고 칼로리가 낮은 야채로 전을 부쳐 느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스님이 추천하는 사찰 간식의 특징이다.

"가족이 다함께 설날 차례상에 올리고 남은 무, 호박, 두부 등으로 간식거리를 만들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아이에겐 색다른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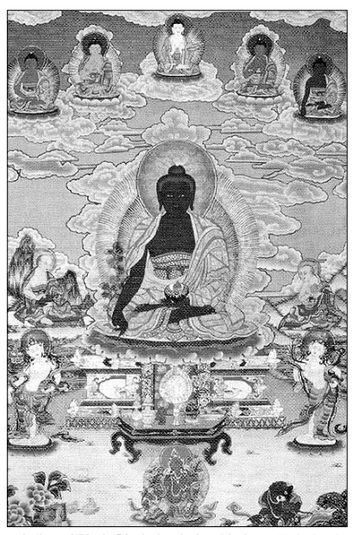


'의술' 자비심 키우는 수행 방편

불교는 여러 면에서 의학과 유사하다. 병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은 불교 교리로 볼 때 '끝없는 윤회로부터의 해탈'에 비유된다. 더욱이 불교 교리의 핵심인 '고(苦)'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발점부터가 비슷하다.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궁성 밖에 나갔다가 처음 마주하게 된 '생 · 로 · 병 · 사'라는 너무나도 빤한 생물학적 현상의 '고' 때문이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일체 중생이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너무도 절박한 존재의 '고통' 앞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생 · 로 · 병 · 사'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갖은 노력과 고행 끝에 그 해답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렀다.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본성은 '고'임을 깨닫고 그 원인을 이해하여 '고'라는 끝없는 존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 · 집 · 멸 · 도'라는 사성제이다.

사성제는 의학의 진단과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간단하고도 명백한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적부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대의왕(大醫王)'이란 칭호로 불려왔고, 그의 가르침은 고통 받는 일체 중생들을 능히 구하고도 남을 최상의 비방을 제시한 것으로 믿어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고 교화하는 승 · 속의 불자들은 그래서 일찍부터 병자를 수발하는 자로 비유됐다.



티베트의학의 창시자 약사부처님.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신비의 약초인 미로발란(myrobalan) 열매를 수지하셨고, 왼손에는 세 가지 감로(감로병을 치료하고 사자를 소생시키는 감로, 젊음으로 되돌리는 감로, 항상 마르지 않고 마음을 밝혀 지혜를 더해주는 감로)로 채워진 약사발을 들고 있다.

의학의 진단 · 치료에 사성제 똑같이 적용

불교도들은 브라만교를 배경으로 한 카스트제도의 지나치게 청결을 강요하는 관습에 결코 얽매이지 않았다. 때문에 불교도들은 환자나 병원물질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감염 위험도 높아져 의학을 가까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 초기 교단에서는 승려들끼리만 사원 내에서 의술을 행할 권한이 주어지고, 속인들을 상대로 한 의술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구제라는 승려들의 일차 목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속인들로부터 받은 보시의 자선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봉사에 대한 대가로의 의미 전락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입장은 대승불교 전통이 발전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대승불교에서는 승 · 속 모두에 보살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의술활동은 보살행을 위한 자비심을 키울 기회가 되고 효과적인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이 (불)교학, 문법(학), 인식론 그리고 예술과 나란히 승단의 교육과정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키는 원력과 가피력을 지닌 새로운 명호의 부처님들이 불교에 등장하게 됐다.

약사불(사진)은 그중의 한 분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마침내는 티베트에서까지 열렬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불교가 지닌 의료적 면모와 치료자로 명성을 드날린 승의(僧醫)들의 활약에 힘입어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의학의 가르침을 약사불이 설하신 것으로 믿는 곳은 티베트뿐이다.(계속)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약 사 암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건물 등기인 : 손동수. 이종봉

2004년 12월 2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당하茶당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회음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
대구한의대학교 인체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512-31 2005.2.4 2:43 PM 페이지 1 (2,1)



SK와 함께 만나고 싶은 당신이 되어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곁의 아름다운 당신, SK가 당신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하며 생활 속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withheart.sktelecom.com

SK Telecom